



복음 원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

니파이전서 15:14



복음 원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본 교재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과 제언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0024. 전자우편: cur-development@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워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기재해 주십시오. 교재 제목을 반드시 기입하시고 교재의 장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과 제언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1978, 2009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5/07

번역 승인: 5/07

*Gospel Principles*의 번역

목차

소개	1
제1장 하나님 아버지	5
제2장 하늘 가족	9
제3장 택함 받은 지도자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13
제4장 선택할 수 있는 자유	17
제5장 창조	23
제6장 아담과 이브의 타락	27
제7장 성신	31
제8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	35
제9장 하나님의 선지자	39
제10장 경전	45
제11장 그리스도의 생애	51
제12장 속죄	59
제13장 신권	67
제14장 신권 조직	73
제15장 주님의 성약의 백성	81
제16장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87
제17장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95
제18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101
제19장 회개	107
제20장 침례	115
제21장 성신의 은사	121
제22장 영의 은사	125

제23장	성찬	133
제24장	안식일.....	139
제25장	금식	145
제26장	희생	149
제27장	일과 개인의 책임.....	155
제28장	봉사	161
제29장	주님의 건강의 율법	167
제30장	자애	173
제31장	정직	179
제32장	십일조와 헌물	185
제33장	선교 사업	189
제34장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킴	197
제35장	순종.....	201
제36장	가족은 영원할 수 있음.....	207
제37장	가족의 책임.....	213
제38장	영원한 결혼.....	219
제39장	순결의 법	225
제40장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233
제41장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	241
제42장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245
제43장	재림의 표적.....	251
제44장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57
제45장	복천년	263
제46장	최후의 심판.....	269
제47장	승영	275
시각 자료.....		281
색인		283

소개

학습 지도서 및 교사 교재

복음 원리 교재는 개인 학습 지도서 및 교사 교재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본 교재를 공부하면서 주님의 영을 구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속죄와 복음의 회복에 대한 이해와 간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품게 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여러분의 목적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개인과 가족에게 닥치는 어려움에 신앙으로 맞설 수 있다.

교회와 가정에서 가르칠 때 유의할 점

교사가 되는 것은 위대한 책임이며, 그 일에는 다른 사람들을 강화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아서 6:4)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많은 기회도 포함된다. 다음 원리들을 따르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 영으로 가르친다.
- 교리를 가르친다.
- 열심히 배우도록 권유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일 때 그들은 주님의 영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다. 그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배우며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마음을 열게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들과 친분을 쌓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한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반원들이 복음 원리와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자유로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편안한 공과 분위기를 조성한다.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31~39쪽을 참조한다.

영으로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대의 선지자와 경전을 통해 계시되고, 성신으로 확인된 그리스도의 교리이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려면 주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 또한 교리와 성약 50:13~22 참조) 실제로 가르침을 주는 교사는 성신이므로, 주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41~48쪽을 참조한다.

교리를 가르친다

각 장을 가르치기에 앞서 그 장을 철저히 공부하여 교리를 확실하게 이해한다. 또한 각 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충 성구들을 공부한다. 각 장에 실린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때 여러분은 더 큰 정성과 권능으로 가르치게 될 것이다. 교회 교리에 대해 절대로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 후기의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경전, 그리고 성령이 입증하는 것만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42:12~14; 52:9 참조)

여러분이 본 교재를 사용하여 정원회나 반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아무리 흥미 있는 외부 자료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교재 대신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 교재 말씀과 경전에 초점을 맞춘다. 공과를 보충해 줄 개인 경험과 교회 잡지 기사를 적절한 시점에서 사용한다.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50~59쪽을 참조한다.

열심히 배우도록 권유한다

공과를 가르치면서 복음 원리가 일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원리들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 가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토론하도록 반원들을 격려한다. 원리에 따라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러분은 반원들이 소리를 내서 읽고, 질문에 답하거나 경험을 나누도록 권유함으로써 그들을 공과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단, 이러한 권유를 받은 반원들이 당황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에만 그렇게 한다. 여러분은 공과를 준비하면서 참여자들에게 특별한 부분을 지명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며 그들이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다. 여러분은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반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이 공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이 주제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61~74쪽을 참조한다.

덧붙이는 제언

본 교재 각 장에는 유의 사항이 한두 가지씩 실려 있다. 이 유의 사항에는 여러분이 반원들을 사랑하고, 영으로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며, 반원들이 열심히 배우도록 권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언이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

제 1 장

하나님은 존재하심

-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해 주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물문경의 선지자 엘마는 이렇게 기록했다.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엘마서 30:44) 밤하늘을 바라보면 엘마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된다. 그것은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볼 수 있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식물, 여러 종류의 동물, 산과 강, 비와 눈을 뿌리는 구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한다.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가르쳤다.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신다.(교리와 성약 20:17 참조)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제3니파이 9:15; 모세서 2:1 참조) 그분은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조직하시어 형체와 움직임과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하늘과 물이 생물들로 가득 차게 하였고, 산과 들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살게 하셨다. 또한 우리에게 낮과 밤, 여름과 겨울, 파종기와 수확기를 주셨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셔서 다른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창세기 1:26~27 참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절대자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이다. 그분은 “우주의 위대한 아버지”이시며 “아버지와 같은 보살핌과 관심으로 온 인류를 보신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39쪽*)

교사들에게: 시작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본문 내용을 찾아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본질

- 하나님의 속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모세서 2:26; 6:9 참조) 우리 몸이 그분의 몸과 같다는 것을 안다. 그분의 영원한 영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몸 안에 거하신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그러나 하나님의 몸은 완전하고 영화로우며,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성스러운 광채를 띤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분은 사랑, 자비, 자애, 진리, 권능, 신앙, 지식, 판단력과 같은 속성을 가진 의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고, 모든 것을 아시며, 선으로 가득 찬 분이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분의 자녀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됨

-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여] ……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더 잘 지키게 된다.(요한1서 2:3~5 참조) 그분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므로써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1. 그분이 존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모사이야서 4:9 참조)
2. 경전을 연구한다.(디모데후서 3:14~17 참조)

3. 그분께 기도한다.(야고보서 1:5 참조)

4. 최선을 다해 그분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킨다.(요한복음 14:21~23 참조)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보충 성구

- 사도행전 7:55~56(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아들)
- 교리와 성약 88:41~44(하나님의 속성)
- 시편 24:1(땅은 여호와의 것임)
- 모세서 1:30~39(창조)
- 엘마서 7:20(하나님은 잘못을 범할 수 없으심)
- 조셉 스미스-역사 1:17(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분리된 존재이심)
- 엘마서 5:40(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 요한복음 14:6~9(아들과 아버지는 닮았음)
- 몰몬서 9:15~20(기적의 하나님)
- 아모스 3:7(계시의 하나님)
- 요한복음 3:16(사랑의 하나님)



하늘 가족

제 2 장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 후기의 선지자들과 경전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자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모든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인간은] 일시적인 육신을 입고 이 지상에 오기 전에 …… 하늘 부모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숙하도록 양육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336쪽)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의 형제 자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께 있는 신성한 자질들을 발전시킬 잠재력을 물려받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고 충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동안 개성과 재능을 발전시켰다

- 여러분이 축복받은 재능과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보라.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영으로 지내는 동안에 지상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준비했다는 것을 경전에서 배웠다.(앨마서 13:1~3 참조) 하나님께서는 장차 지상에서 지도자가 될 그들이 아직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 전이었던 때에 이미 그들을 예임(선택)하셨다. 예수와 아담, 아브라함도 그러한 지도자들 중 하나였다.(아브라함서 3:22~23 참조)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이 세상

교사들에게: 각 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고 각 장에서 어느 부분을 다루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영의 인도를 구한다.

의 주민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 받은 모든 사람은 ……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예]임되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511쪽) 그러나 지상에 온 사람들은 모두 봉사할 기회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다.

우리는 하늘에서 모두 같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가 하늘 부모의 아들과 딸, 즉 남자와 여자였음을 알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참조)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은 서로 달랐으며, 지상에서 각자 다른 일을 하도록 부름 받았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우리가 가진 “영원한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토마스 에스 몬슨, 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82쪽; 또는 리아호나, 1986년 11월호, 66쪽)

회장이 전세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가리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이며 이곳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교훈을 배우고, 재능과 개성을 통해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태어날 때와 장소를 택하셨다.

- 다른 사람들의 재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계획을 제안하심

- 지상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잠시 그분을 떠나 있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진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께 있는 거룩한 자질들을 발전시키기를 바라셨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전세의 집을 떠나 시험을 받고 경험을 해야만 했다. 우리의 영은 육신을 입어야 했다. 우리는 죽을 때 육신을 떠나며, 부활할 때 그 육신과 재결합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불멸하는 몸을 받을 것이다. 시험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신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93:30~34 참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천국 회의를 소집하여 우리의 진보를 위해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을 제안하셨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9, 511쪽 참조)

교사들에게: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을 갖는다면 사려 깊은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질문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답을 들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깊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따른다면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부활하고, 하늘과 지상에서 모든 권능을 받으며, 그분처럼 하늘 부모가 되어 영의 자녀를 갖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 받을 장소인 지구를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배웠다.(아브라함서 3:24~26 참조) 휘장이 기억을 가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집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기억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의지를 행사하여 선이나 악을 택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신앙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다. 우리가 지상에서 진리를 다시 들을 때 그분은 우리가 그 진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요한복음 18:37 참조)

또한 천국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보하는 목적이 충분한 기쁨을 갖는 것임을 배웠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미혹되어 다른 길을 택하고, 가야 할 길을 잃게 되리라는 것도 배웠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경험하면서 질병, 낙담, 고통, 슬픔, 사망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리라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경험과 유익이 되리라는 것을 이해했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이러한 시련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기보다 오히려 정화시켜 줄 것이다. 시련은 인내와 자애를 가르쳐 줄 것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15~16쪽 참조)

또한 천국 회의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죄를 짓게 되리라는 것도 배웠다.(교리와 성약 29:46~47 참조) 우리는 죄를 극복하고 부활로 사망을 이기기 위해 구주가 보내지리라는 것도 배웠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범을 따른다면 승영하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리라는 것도 배웠다. 우리는 충분한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몇 가지 열거해 본다.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이러한 속성을 발전시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보충 성구

- 히브리서 12:9(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심)

- 욥기 38:4~7(전세의 생활이 암시됨)
- 아브라함서 3:22~28(전세에 대한 시현)
- 예레미야서 1:5(전세에 대한 시현)
- 교리와 성약 29:31~38(전세에 대한 시현)
- 모세서 3:4~7(영적 및 육적 창조)
- 고린도전서 15:44(영적 및 육적 창조)
- 교리와 성약 76:23~24(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
- 교리와 성약 132:11~26(진보의 계획)

택함 받은 지도자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 3 장

구주와 지도자가 필요했음

-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야 했는가? 우리에게 왜 구주가 필요했는가?

전세에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제안되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쳤다.(욥기 38:7 참조)

우리는 잠시 동안 하늘집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분 곁을 떠나 있는 동안 모두 죄를 짓게 되고 일부는 길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사랑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아셨으므로 우리를 도울 방법을 계획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구주가 필요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아브라함서 3:27) 여호와라고 불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또한 모세서 4:1~4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기꺼이 지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 선택하기를 바라셨다. 그분은 우리가 승영에 이르기에 합당한지를 증명하기 위해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라고 말씀하셨다.

루시퍼라고 불렸던 사탄도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1) 사탄은 우리 모두를 강압하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허용되지 않게 되어 있었다. 그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를 빼앗으려 했고, 우리를 구원하는 대가로 모든 존귀를 원했다. 그의 제안을 따랐다면, 우리가 지상으로 오는 목적이 좌절되었을 것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03년], 207쪽 참조)

우리의 택함 받은 지도자이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 이 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무엇을 느끼는지 생각해 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아들의 말을 모두 듣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아브라함서 3:27)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선택되고 예임되었다. 그것은 여러 성구에서 언급되었다.(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1:19~20; 모세서 4:1~2 참조) 한 경전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지상에 태어나시기 오래 전에 야렛의 형제로 알려진 물몬경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이더서 3:14)

지상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한복음 6:38, 40)

천국 전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분노하여 모반했다.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사탄과 그를 따랐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영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구주를 따르는 영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사탄을] 이겼다.”(요한계시록 12:11)

이와 같은 큰 모반 때문에 사탄과 그를 따랐던 모든 영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고 하늘에서 내쳐졌다. 하늘 무리 중 삼분의 일이 사탄을 따랐고, 그 때문

에 그들은 벌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29:36 참조) 그들은 육신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 지상에서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자신이 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로 선택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탄과 그를 따랐던 자들도 지상에 왔지만, 그들은 영으로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으며, 매일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하도록 부추긴다. 전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천국 전쟁은 어떤 면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우리는 구주의 가르침을 따라야 함

- 구주께서 주신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으며, 이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준다. 정해진 때에 그분은 친히 지상에 오셨고 직접 보여 주신 삶의 방식과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과 승영을 가르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신권을 확립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해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분이 맡으신 역할을 다하셨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여 승영하기에 합당해지는데 달려 있다.

보충 성구

-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2~28(전세에서 택함받으신 구주)
- 교리와 성약 76:25~29(천국 전쟁)
- 요한계시록 12:7~9, 11(천국 전쟁에서 구주를 따랐던 자들은 어린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음)
- 이사야 14:12~15(루시퍼가 쫓겨난 이유)

교사들에게: 여러분은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들이 "보충 성구"를 개인별로, 또는 짝을 짓거나, 또는 모두 함께 공부하게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제 4 장

영원한 원리인 선택의지

-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택의지를 갖는 일이 왜 중요한 것인지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내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모세서 3:17)

하나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자유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사탄을 따름으로써 사로잡힘과 죽음을 선택할 자유도 있다.(니파이후서 2:27 참조) 선과 악 가운데서 선택하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권리를 선택의지라고 부른다.

전세에서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가 있었다. 지상 생활이 추구하는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니파이후서 2:15~16 참조) 만일 의로운 것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나타내 보일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것을 스스로 선택했을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

선택의지는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주요 문제 중 하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사탄의 추종자들 사이에 반목을 초래한 중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 사탄은 이렇게 말했다. “보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존귀를 내게 주소서” (모세서 4:1) 이와 같은 말로 그는 “[하나님을] 거스려 모반하였고 ……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멀하려 하였[다.]”(모세서 4:3) 사탄의 제의는 거절되었으며, 그는 자신을 따르던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다.(교리와 성약 29:36~37 참조)

구원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택의지

선택의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상 생활은 시험의 기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를 육으로 창조할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시험해] 보리라.”(아브라함서 3:25) 선택의지라는 은사가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는지 여부를 보일 수 없을 것이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힐라맨서 14:30~31 참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생활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의 선택의지는 강화된다. 의로운 선택은 더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준다.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 지혜가 자라고 인격이 단련된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커지고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면전에서 영의 자녀로 있었을 때부터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했던 선택은 우리가 지상으로 오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과 능력, 지식, 지혜, 그리고 기타 모든 선한 것들이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옳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배우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93:28 참조)

-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선택의지에는 선택이 필요함

- 왜 반대되는 것이 필요한가?

선과 반대되는 악이 없다면 우리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없다. 물몬경의 위대한 선지자 리하이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11)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사탄이 선에 대항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분은 사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모세서 4:3~4)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는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며]……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니파이후서 2:18, 27) 한다. 사탄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선도 원하지 않는다.(모로나이서 7:17 참조)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우리를 자기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한다.

사탄의 유혹을 따를 때 우리는 자신의 선택을 제한하게 된다. 다음에서 든 예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려준다. 바닷가에서 이런 표지판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자. “위험—소용돌이. 수영 금지.” 우리는 이것을 일종의 구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우리는 여전히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 해변을 따라 거닐며 조가비를 주울 수도 있다. 석양을 바라볼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또는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위험 지역에서 수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소용돌이에 휘말려 물속으로 끌려들어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거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익사할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행동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선택을 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연히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갈라디아서 6:7; 요한계시록 22:12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의 속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사탄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간

교사들에게: 간단한 그림은 학습자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장에 나와 있는 대로 경고 표지판 비유를 토론할 경우, 칠판이나 큰 종이에 표지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구해야 한다.(제3니파이 18:15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희를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고린도전서 10:13; 앨마서 13:28 참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고 영생을 향해 나아가도록 지시해 준다. 현명하게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승영을 얻고, 영원히 진보하며,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파이후서 2:27~28 참조)

-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충 성구

- 모세서 7:32(선택의 자유)
- 아브라함서 3:24~25(지상 생활은 시험임)
- 앨마서 41:3; 모로나이서 7:5~6(행위대로 심판받음)
- 니파이후서 2:11~16(반대되는 것이 필요함)
- 모로나이서 7:12~17(선과 악의 선택)
- 베드로후서 2:19; 요한복음 8:34(죄는 속박임)
- 니파이후서 2:28~29; 앨마서 40:12~13(행위에 따른 보상)



창조

제 5 장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 우리는 왜 지상으로 와야 했는가?

우리가 영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와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계획에 관해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듣고 기뻐서 소리쳤다.(욥기 38:7 참조)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열망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면전을 떠나 육신을 입어야 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이 되도록 준비하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생활해야 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은 지구라고 불렸다.

- 구원의 계획에 대해 배웠을 때 우리가 기뻐서 소리쳤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구를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그분은 또한 다른 수많은 세계를 지으셨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권 권능으로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 자녀라.”(모세서 1:33) 이 진리에 대한 다른 증언들도 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은 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다.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4)

교사들에게: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 중 일부는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다. 소리내어 읽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읽어주시실 분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런 후 읽겠다고 자원하는 이들에게 부탁한다.

창조하다

-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구와 그 위에 거하는 만물은 물질적으로 창조되기에 앞서 영적으로 창조되었다.(모세서 3:5 참조) 지구를 물질로 창조할 계획을 세울 때, 그리스도는 그분과 함께 있었던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내려가리라. 이는 그 곳에 공간이 있음이니, 우리가 …… 이 들[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 거할 땅을 만들리라.”(아브라함서 3:24)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는 지구를 만들고 조직하셨다. 그분은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다. 물과 육지를 나누어 바다와 강과 호수로 지구를 아름답고 비옥하게 하셨다. 또한 풀과 나무, 꽃과 기타 모든 종류의 식물을 만드셨는데, 이 식물들에는 새로운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씨앗이 들어 있었다. 그런 후 그분은 동물들 즉, 물고기, 가축, 곤충, 그리고 온갖 종류의 새를 만드셨다. 이 동물들에게도 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제 지구는 만물 중에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인류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우리의 영은 지상에서 살 수 있도록 살과 피로 된 육신을 받을 것이다. “나 하나님 이 태초부터 나와 함께 있던 나의 독생자에게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매, 그대로 되니라.”(모세서 2:26) 이렇게 하여 최초의 남자인 아담과 최초의 여자인 이브가 창조되었고, 그들은 우리 하늘 부모의 몸과 닮은 육신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 창조를 마치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기뻐하셨으며, 하신 그 일이 좋음을 아시고는 잠시 쉬셨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그분의 사랑을 나타냄

- 하나님의 창조물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지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온기와 빛을 주는 해를 생각해 보라. 식물을 자라게 하며 세상을 깨끗하고 새롭게 만드는 비를 생각해 보라. 지저귀는 새 소리나 친구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생각해 보라. 우리 몸은 얼마나 놀라운지—어떻게 일을 하고 즐기며, 또 실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 이러한 모든 창조물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

버지께서 얼마나 지혜롭고 큰 권능을 갖고 계시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들이 신지 이해할 수 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동식물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창조되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니,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맛을 위하여 또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영혼을 활기 있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18~19) 하나님의 창조물은 무수하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랑하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모세서 1:35)

-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 여러분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보충 성구

- 창세기 1장; 2:1~7; 아브라함서 3:22~23; 4~5장; 모세서 1:27~42; 2~3장(창조의 기록)
- 히브리서 1:1~3; 골로새서 1:12~17; 교리와 성약 38:1~3(창조주 예수)
- 교리와 성약 59:18~20; 모세서 2:26~31; 교리와 성약 104:13~17; 마태복음 6:25~26(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



아담과 이브의 타락

제 6 장

지상에 온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

- 아담과 이브가 용감한 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자녀를 위한 집으로 이 지구를 마련하셨다. 아담과 이브는 지상에 살 최초의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모세서 1:34; 4:26 참조) 우리 아버지의 계획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은 인류를 이 지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첫 번째 부모가 되었다.(교리와 성약 107:54~56 참조)

아담과 이브는 아버지의 가장 고귀한 자녀들 가운데 있었다. 영의 세계에서 아담은 천사장 미가엘로 불렸다.(교리와 성약 27:11; 유다서 1:9 참조) 그는 사탄과 대적인 전쟁에서 의로운 자들을 인도하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되었다.(요한계시록 12:7~9) 아담과 이브는 우리의 첫 번째 부모가 되도록 예임되었다. 주님은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머리로 세웠으니, 허다한 민족이 네게서 나올 것이요, 너는 영원토록 그들을 다스리는 왕자니라.”(교리와 성약 107:55)

이브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되었다.(모세서 4:26)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모세서 3:18; 또한 고린도전서 11:11 참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결혼하게 하셨다. 이브는 아담이 맡은 책임을 함께 나누었으며, 또한 그가 받을 영원한 축복도 함께 누릴 것이다.

-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교사들에게: 시작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본문 내용을 찾아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그들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에덴 동산

-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는 어떤 상태였는가?

에덴 동산에 머물던 시절, 아담과 이브는 아직 필멸의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였[다.]”(니파이후서 2:23) 또한 그 때에는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다. 아담과 이브의 영은 땅의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서 거하였으므로 육적인 삶을 영위했지만(모세서 6:59; 아브라함서 5:7 참조) 하나님 면전에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도 영위하였다. 그들은 아직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자녀를 가지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모세서 2:28)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모세서 3:17)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멸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있는 이브에게 갔다.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이브를 유혹했다. 사탄은 이브에게 그녀와 아담이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기]”(모세서 4:11) 될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유혹에 넘어간 이브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다. 그 일을 알게 된 아담도 그 열매를 먹는 것을 선택했다.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겪게 된 변화를 타락이라고 일컫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담과 이브

- 아담과 이브가 범법한 결과로 생긴 육적, 또는 영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 그들의 육적인 상태가 변화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필멸의 상태가 되었다.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자녀는 질병과 고통, 육체적 사망을 겪게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범법 때문에 영적인 사망도 겪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담과 이브와 그들의 자녀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범법이 가져온 위대한 축복

- 타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타락이 인생의 계획에서 필요한 단계였으며,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후기의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다. 타락으로 우리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권리와 육신, 그리고 영생을 얻을 기회를 축복받았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러한 특권 중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타락 후에 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모세서 5:11)

선지자 리하이는 이렇게 설명했다.

“보라,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

“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며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며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2~25)

- 타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는 것 역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충 성구

- 니파이전서 5:11; 니파이후서 2:20(첫 번째 부모이며 가족인 아담과 이브)
- 니파이후서 2:14~21(반대되는 것과 타락, 인생은 시험임)
- 니파이후서 2:22~26(타락은 구원의 계획의 일부임)

성신

제 7 장

성신이 아담과 이브에게 음

- 아담과 이브에게 성신의 인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 땅을 경작하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녀를 많이 낳았고, 그 아들과 딸들 또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모세서 5:1~3 참조) 그리하여 약속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이 그분의 면전을 떠나 지상으로 오기 시작했다.(아브라함서 3:24~25 참조) 그들이 지상에 올 때 하늘집에 대한 기억은 지워졌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향력까지 차단하지는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영의 자녀에게 도움과 위안을 주고 그들을 인도하도록 성신을 보내셨다.

아담과 이브는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간구했다. 그분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계명을 주셨다. 아담과 이브는 그 계명에 순종했다. 주님의 천사는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구원의 계획을 가르쳤다.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고 아담과 이브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성신을 보내셨다.(모세서 5:4~9 참조)

성신의 권능으로 아담은 이렇게 말했다. “땅의 모든 권속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는 내 범법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열렸고, 이 생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다시 육체로 내가 하나님을 뵈을 것임이니라.”(모세서 5:10) 이브는 성신의 증거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범법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결코 후손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선과 악, 그리고 우리의 구속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영생을 결코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라.”(모세서 5:11)

- 우리에게 성신의 인도가 필요한 이유와 아담과 이브에게 성신의 인도가 필요했던 이유는 얼마나 비슷한가?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반원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은 자신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반원들의 이름을 알아두고 공과를 할 때 이름을 부른다. 반원들끼리 서로 이름을 알도록 돕는다.

성신의 속성

- 성신은 아버지와 아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러한 차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신은 신화를 이루는 한 구성원이시며(요한1서 5:7; 교리와 성약 20:28 참조) “영의 인격체”(교리와 성약 130:22)이다. 그분은 한 번에 한 곳에만 계시지만 영향력은 동시에 모든 곳에 미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신화라고 일컫는다. 그분들은 자녀들이 추구하는 목적에서 하나이다. 그분들은 각각 구원의 계획에서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통치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신은 모든 진리를 계시하고 증거하신다.

성신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사자이며,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가 되신다.(본 교재 제21장 참조)

성신의 사명

- 성신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성신은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 구주이며 구속주이심을 증거하실 것이다.(제3니파이 28:11; 교리와 성약 20:27 참조)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의 아버지임을 알려주실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승영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실 것이다.(로마서 8:16~17 참조) 주님의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모로나이서 10:5)

성신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린도전서 12:3)라고 기록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 성신의 권능 덕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생활하도록 인도된다.

성신의 설득력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어떤 사람이 성신으로부터 증거를 받으면, 그 증거는 그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에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며, 그 말은 설득하는 힘이 있습니다. 천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눈과 마음에 인상을 주고 결국 희미해지겠지만 성신의 감명은 영혼에 더 깊이 새겨져서 지우기 어렵습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제5권 [1957~1966년], 2:151)

스미스 회장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성신을 통하여 진리가 골수에 뿌리 박혀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편, 제3권 [1954~1956년], 1:48)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특별한 사자와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당해야 한다.

- 여러분의 간증이 자라도록 성신이 도왔던 때를 생각해 본다. 상황이 적절하다면 그런 경험 몇 가지를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나눈다.

보충 성구

- 모세서 5장(아담의 가족 이야기)
- 교리와 성약 130:22(성신의 정체)
- 요한복음 14:26; 15:26; 16:13; 누가복음 12:12; 니파이후서 31:18; 32:5, 8장; 33:1; 엘마서 14:11; 제3니파이 27:20; 제4니파이 1:48; 모로나이서 10:6~7; 교리와 성약 8:2~3; 11:12~13; 20:26(성신의 역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함

제 8 장

기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하여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18:19)

기도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매일 그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어떤 존재나 인간이 만든 것 또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기도하지 않는다.(출애굽기 20:3~5 참조)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기도는 태초부터 복음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였다. 주님의 천사는 아담과 이브에게 회개하여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명했다.(모세서 5:8 참조) 이 계명은 절대 거두어진 적이 없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영향을 받는다.

교사들에게: 이 장은 다섯 개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도에 관한 질문이 각 소제목이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사용하여 공과를 전개할 수 있다. 교실이 조별 토론을 하기에 적절하다면 반원들을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구성된 조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각 조에게 이 장의 한 부분을 배정해 준다. 각 조가 배정된 부분을 읽고 토론하며 그와 관련된 개인 경험을 나누게 한다. 그리고 나서 반 전체로 그 다섯 부분을 토론하되, 반원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질문들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제3니파이 18:15; 교리와 성약 10:5 참조) 또한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앨마서 38:14 참조)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가족, 친구, 이웃, 농작물, 가축, 직장, 그 외 활동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적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앨마서 34:17~27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표현하고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드리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데살로니가전서 5:18 참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험작하고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로울 수 있게 해야 한다.

- 기도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해야 할 필요를 느낄 때마다 조용히, 또는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다. 때로는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쏟아낼 수 있는 곳에서 혼자 기도할 필요가 있다.(마태복음 6:6 참조) 또한 일상 활동을 하는 중에도 기도할 수 있다. 교회 모임과 집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일을 하는 도중에, 식사 준비를 할 때 등등,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수 있다. 낮이나 밤이나 홀로 있을 때에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속에 둘 수 있다.(앨마서 34:27 참조) 우리는 “항상 기도”(교리와 성약 10:5)할 수 있다.

때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화가 나거나 낙담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수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니파이후서 32:8~9 참조)

우리 각자는 적어도 매일 아침과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경전에는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엘마서 34:21 참조)

우리는 우리 가족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가족 기도를 하라는 명을 받는다.(제3니파이 18:21 참조)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가족 기도를 하도록 권고해 왔다.

우리에게는 또한 매 식사 전에 음식에 대해 감사드리고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우리는 모든 교회 모임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치며 주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한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디에 있든, 서 있거나 무릎을 꿇거나, 소리내어 하거나 조용히 하거나, 개인적으로든 회중 앞에서든 항상 신앙을 갖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모로나이서 10:4)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진실로 마음 속에 느끼는 것들을 말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간청하고 감사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무의미한 말들을 반복적으로 늘어놓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마태복음 6:7~8 참조) 항상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제3니파이 18:20 참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제3니파이 18:19 참조)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명백하게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항상 우리가 원할 때에만, 또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것도 아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진실한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때로는 부정적인 응답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구한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응답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따뜻하고 평안한 느낌을 받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9:8~9 참조) 때로는 “잠시 기다리라”는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가 드리는 기

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때, 주님께서 아시는 그 시점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된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응답하신다. 좋은 친구,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 교회 지도자, 선교사 등 이들 모두는 우리가 드린 기도에 응답이 되는 행동을 하도록 영감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어느 젊은 어머니의 아기가 집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험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갈 수 없었다.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웃에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젊은 어머니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러자 몇 분 후에 한 이웃이 찾아와서는 “이 집에 와서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그 이웃은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도록 도와 주었다.

종종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데 도움이 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항상 기도할 때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네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2:10)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는가?

보충 성구 및 기타 자료

- 야고보서 1:15(무엇에 대해 기도하는가)
- 데살로니가전서 5:17; 시편 55:17; 니파이후서 32:9(언제 기도하는가)
- 엘마서 34:26(어디에서 기도하는가)
- 제3니파이 19:6, 24(어떻게 기도하는가)
- 교리와 성약 88:63~65(기도가 응답되는 방법)
- 모로나이서 10:3~5; 엘마서 37:37(기도에 대한 약속)
- 야고보서 5:16(의로운 자가 드리는 기도의 힘)
- 경전 안내서, “기도”, 39~40쪽

하나님의 선지자

제 9 장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 선지자

- 선지자에게는 어떤 능력과 은사가 있는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늘이 닫혔기 때문에 인간은 세상의 위협에 홀로 맞서야 한다고 믿는다. 후기 성도들은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를 통해 교회와 교통하신다는 것을 안다. 전 세계 성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후기에 선지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찬송가, 6장)라는 찬송가를 부른다.

선지자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도록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이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선지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가르친다. 선지자는 진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며,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를 외친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님으로부터 계시와 지시를 받는다. 또한 세상이 경고받을 수 있도록 미래를 내다보고 다가올 사건들을 예언할 수도 있다.

선지자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 중에서 나올 수 있다. 그는 젊거나 나이 든 사람일 수도 있고, 고등 교육을 받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으며 농부이거나 변호사 또는 교사일 수도 있다. 고대 선지자들은 긴 걸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 현대 선지자들은 정장을 하고 서류가방을 가지고 다닌다. 그렇다면 참된 선지자는 무엇으로 구별할까? 참된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며 올바른 신권 권세를 통해 부름을 받는다.(신앙개조 제5조 참조)

후기 성도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로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선지자”라고 말할 때는 대신권 회장인 교회 회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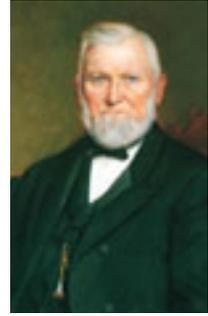
조셉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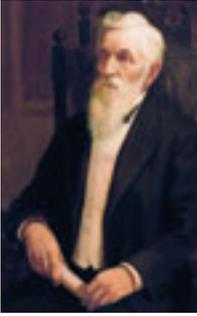
브리검 영



존 테일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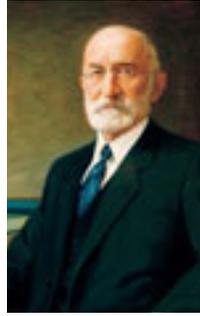
윌포드 우드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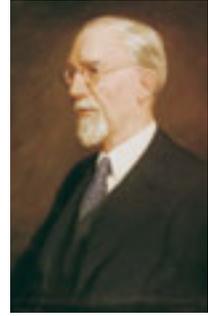
로렌조 스노우



조셉 에프 스미스



heber 제이 그랜트



조지 앨버트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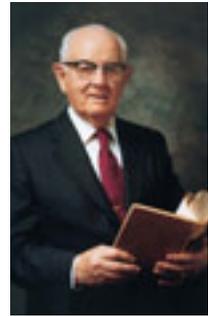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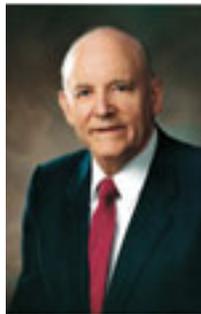
해롤드 비리



스펜서 더블류 김볼



에즈라 태프트 벤슨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문슨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인류를 인도할 선지자를 부르셨음

- 과거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아담의 시대 이래로 지상에는 언제나 선지자가 있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 구약 시대 선지자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로 속박되어 있던 백성 수천 명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다. 그는 구약 전서에 수록된 첫 다섯 권을 썼으며 십계명을 기록했다. 물몬경의 선지자 니파이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미대륙으로 여행했다. 위대한 지도자이자 개척자인 그는 물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침례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예비하도록 택함 받았다. 주님은 후기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이 교회를 회복하셨다. 조셉 스미스는 젊은 나이에 물몬경을 번역했다.

- 여러분은 선지자들의 생애와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오늘날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음

-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는 왜 필요한가?

오늘날 지상에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이다. 그에게는 교회를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는 “왕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신권 의식 집행을 포함하여 이 교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을 관리할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의미한다.(마태복음 16:19 참조) 택함 받은 선지자, 곧 교회 회장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 교회의 회원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 받을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권능과 이 신권의 열쇠를 부여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한 때에 단 한 사람뿐이니라.”(교리와 성약 132:7) 교회 회장과 같이 선지자이자 선견자이며 계시자인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들은 교회 회장을 보조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들을 실행해야 한다.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선지자가 교회를 잘못 인도하는 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님은 이 교회 회장으로 있는 저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프로그램에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

님의 생각도 아닙니다. 제가 그런 일을 시도한다면, 주님은 저를 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실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 [2004년], 199쪽)

- 살아 있는 선지자는 어떻게 교회에 영향을 미쳤는가?

우리는 주님의 선지자를 지지해야 함

- 선지자를 따르고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살았던 선지자들을 믿는 일이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살아 있는 선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손을 들어 교회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한다.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를 지지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성도들의 기도로 강화되어야 한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대회에서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 *Ensign* 또는 *리아호나*를 구독하며 그가 대회에서 전한 말씀과 그 밖의 메시지들을 읽을 수 있다.

선지자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완전히 따라야 한다. 영감 받은 권고 중에서 일부만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거나 어려운 것은 무시해 버리는 등 가르침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께서 택하신 선지자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따르라고 명하셨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걸으며, 그가 받는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그 [선지자]의 모든 말과 계명에 주의를 기울일지니,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일지니라.”(교리와 성약 21:4~5)

주님은 교회 회장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 교회 회장이 최근에 가르치거나 강조한 것은 무엇인가?

선지자에게 순종할 때 큰 축복이 따름

주님은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리하도다. 주 하나님 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21:6)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때 하늘에서 축복이 쏟아진다.

참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하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셔야]” 한다.(에베소서 2:20)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 선지자가 있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계시되는 축복을 받고 있다.

-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보충 성구

- 민수기 12:6(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
- 사무엘상 9:9(선지자는 선견자로 불렸음)
- 아모스 3:7(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그분의 비밀을 보이심)
- 모사이야서 8:16~18(선견자는 과거 일들과 다가올 일들을 알 수 있음)
- 누가복음 1:70(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심)
- 교리와 성약 45:10, 15(하나님은 고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말씀하심)
- 니파이전서 22:2(모든 일은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알려짐)
- 교리와 성약 68:3~5(주님의 종이 성신으로 감동되어 말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뜻과 생각과 음성이 됨)
- 교리와 성약 107:65~67, 91~92(교회 회장의 의무)
- 교리와 성약 43:1~7(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한은 선지자에게만 있음)

교사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 영을 느끼게 된다. 이 공과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교회 회장의 권고를 따랐을 때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살아 있는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전한다.



경전

제 10 장

오늘날 우리에게 경전이 주어짐

- 오늘날 우리가 경전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누리게 된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주님의 종이 성신의 감동을 받아 말하거나 기록할 때, 그 말씀은 경전이 된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태초부터 주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그분이 주신 계시와 그분의 자녀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내가 동에와 서에와, 북에와 남에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니파이후서 29:1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네 개의 책, 즉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이 네 책은 교회의 표준 경전이라고 부른다. 또한 우리는 살아 있는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 전하는 말씀도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담은 성스러운 기록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이 기록은 아담의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살았던 시대까지 여러 세기를 다룬다. 성경은 세계 역사 속 여러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이다.

교사들에게: 4대 표준 경전에 대한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분은 각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1에서 4까지 번호를 배정해 줄 수 있다. 1번이 배정된 사람들에게 본 장에서 성경에 관한 부분을 읽으라고 한다. 2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몰몬경, 3번은 교리와 성약, 4번은 값진 진주에 관한 부분을 읽으라고 한다. 그런 후 그들에게 배운 것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선지자들은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분이 장차 지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배울 수 있고, 당시에 주님의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물론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신앙개조 제8조)

주님은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성경의 일부 구절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셨다. 주님은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상실되거나 변경된 성경 구절에 대한 진리를 회복하도록 선지자 조셉에게 영감을 주셨다. 이와 같이 영감을 통해 정정된 부분을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이라고 부른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발췌문은 경전 안내서에서 읽을 수 있다.

몰몬경

몰몬경은 대략 주전 2천 년부터 주후 4백 년 사이에 미대륙에 살았던 몇몇 백성들에 관한 성스러운 기록이다. 이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담겨 있다.(교리와 성약 20:9; 42:12; 135:3 참조)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신 사실이 나와 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그는 몰몬경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몰몬경 소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은 몰몬경이 어떻게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는가를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몰몬경이 우리 종교의 종석이 되는 데에는 세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석이며, 우리 교리의 종석이고, 간증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종석입니다. 몰몬경은 권능을 갖고 명백하게 주님의 실재를 증거합니다.”

“[몰몬경은] 우리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몰몬경은 …… 우리 시대를 위해 쓰였습니다. …… [그] 안에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본보기를 봅니다. ……”

“몰몬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할 힘을 찾을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찾을 것입니다. 경전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몰몬경이 담고 있는 진리보다 더 참된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 ‘모든 후기 성도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몰몬경을 공부해야 합니다.’”(Conference Report, 1986년 10월, 4~7쪽; 또는 *Ensign*, 1986년 11월호, 5~7쪽; 매리온 지 롬니 인용, Conference Report, 1980년 4월, 90쪽; 또는 *Ensign*, 1980년 5월호, 67쪽)

교리와 성약

교리와 성약은 현대에 계시된 말씀을 모은 책이다. 교리와 성약 1편에서 주님은 지상에 사는 주민들이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이 책을 출판하게 했다고 밝히셨다.

“그런즉 주의 음성은 땅 끝까지 미치나니,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대비하라. 너희는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니라.”(교리와 성약 1:11~12)

이 책에는 이 마지막 날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관한 계시가 담겨 있다. 이 책 여러 편에는 교회 조직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으며, 신권 직책과 그 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76편, 88편과 같은 부분에는 수백 년 동안 세상이 잃어버렸던 영광스러운 진리가 담겨 있다. 29편, 93편 같은 부분은 성령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이 외에도 133편과 같은 몇몇 부분에는 앞으로 다가올 사건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책에 있는 그분의 계시를 연구하라고 명하셨다. “이 여러 계명을 상고하라. 이는 그것들이 참되고 신실하며, 그 안에 있는 예언들과 약속들이 모두 이루어질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37)

값진 진주

값진 진주에는 모세서, 아브라함서, 그리고 조셉 스미스의 몇 가지 영감 받은 기록들이 담겨 있다. 모세서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모세의 시현과 기록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모세서는 성경에서 빠진 교리와 가르침을 분명하게 해 주고 지구의 창조에 관한 더 많은 지식을 알려준다.

아브라함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애굽의 지하 묘지에서 나온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는 창조, 복음,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신권에 관한 귀중한 지식이 실려 있다.

조셉 스미스의 기록에는 그가 영감을 받아 번역한 성경의 일부와 *교회서*에서 발췌한 내용, 그리고 신앙개조가 실려 있다.

- 여러분에게 영감을 준 경전 이야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경전들의 가르침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

이 네 경전 이외에도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영감 받은 말씀은 우리에게 경전이 된다. 그들의 말씀은 대회, *리아호나* 또는 *Ensign*, 그리고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지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9조)

-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경전 연구

- 경전을 연구할 때 우리는 어떤 축복들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각자 매일 경전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자녀들과 나누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경전을 사랑하고 그 속에 담긴 진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께 표준 경전을 읽어야 한다.

이 세상의 악을 피하고자 한다면 경전에 있는 진리와 의로 우리 마음을 살찌워야 한다. 함께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서로 더욱더 친밀해질 것이다.

경전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때 성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의 참됨을 증거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미혹되지 않을 것이다.(조셉 스미스-마태 1:37 참조) 우리는 니파이가 다음과 같이 표현한 느낌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니파이후서 4:16)

- 우리는 매일 경전을 연구하라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 매일 경전을 연구할 시간과 장소를 계획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보충 성구

- 니파이전서 14:20~26(선지자는 기록하라는 명을 받음)
- 니파이전서 19:1~3, 6~7; 엘마서 37:1~8(경전의 중요한 가치)
- 니파이후서 33:10(경전은 그리스도를 증거함)
- 엘마서 29:8(주님은 경전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심)
- 엘마서 31:5; 힐라맨서 3:29~30(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함)
- 힐라맨서 15:7~8(경전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굳건하고 확고하도록 이끌어줌)
- 디모데후서 3:16~17; 니파이전서 19:21~24(경전이 주어진 이유와 방법)
- 베드로후서 1:20; 엘마서 13:20; 교리와 성약 10:62(경전은 교리의 참된 요점을 밝혀 줌)
- 교리와 성약 128:18; 신앙개조 제9조; 니파이전서 14:25~26(아직 주어지지 않은 경전)
- 니파이후서 29:3~10(유대인과 이방인이 받은 경전)



그리스도의 생애

제 11 장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분이 탄생하시기 오래 전부터 예언되었음

지상으로 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존한다. 그분은 하늘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원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사명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은 그분이 오실 것을 증거했다.(사도행전 10:43 참조) 그리스도 이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 우리 모두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평생 동안 충실하게 그분을 따라야 한다.

아담은 구주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배웠다.(모세서 6:51~52 참조) 에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실 것을 보았다.(모세서 7:55~56 참조) 노아와 모세도 그분을 증거했고(모세서 1:11; 8:23~24 참조) 구주께서 지상에 태어나시기 약 800년 전에는 이사야가 그분의 생애를 예언했다. 이사야는 구주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과 슬픔을 겪으시는 모습을 앞서 보고 이렇게 외쳤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 …… 같[도다]”(이사야 53:3~5, 7)

니파이도 장차 있을 구주의 탄생과 사명에 관한 시현을 보았다. 그는 한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으며, 천사가 이렇게 설명했다.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

교사들에게: 본 장에는 아마 여러분이 공과에서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실려 있을 것이다. 가르치기 위해 준비할 때 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부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영의 인도를 구한다.

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니파이전서 11:18) 그런 후 니파이는 그 처녀가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21)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124년 전, 또 다른 니파이인 선지자 베냐민 왕도 구주의 생애를 예견했다.

“볼지어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곧 모든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흠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악마,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리라.

“또 보라,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립,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피가 모든 땀 구멍에서 나옴이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것처럼 크리라.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 (모사이야서 3:5~8)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대 예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그분은 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물려받았는가?

구주의 탄생과 생애에 관한 기사는 신약전서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실려 있다. 이 기록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천사는 그녀가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물었다.(누가복음 1:34 참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누가복음 1:35) 하나님 아버지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필멸의 어머니와 불멸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독생자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신성한 권능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서는 필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 피로, 고통과 죽음을 겪으셔야 했다. 구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었다. 그분에게는 자기 생명을 버릴 권능과 사망 후에 다시 얻을 권능이 있었다.(요한복음 10:17~18 참조)

완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 구주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셨다. 그분은 다른 아이들처럼 마리아와 요셉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셨다. 그분은 진리를 사랑하고, 이에 순종하셨다. 누가는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누가복음 2:40; 또한 교리와 성약 93:12~14 참조)

열두 살이 되었을 즈음에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와 요셉은 일행 중에 어린 예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분을 찾으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사흘 후에 그들이 그를 성전에서 찾은즉, 박사들 중에 앉으셨으니, 그들이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에게 묻기도 하더라.”(요셉 스미스 역 성경, 누가복음 2:46)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누가복음 2:47)

예수님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그들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

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8~49)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했다.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느니라] ……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느니라].”(요한복음 8:28~29)

예수께서 삼십 세가 되셨을 때 그분은 침례받기 위해 요단강에 있던 침례 요한에게 가셨다. 요한은 그분이 자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께 침례 주기를 주저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다. 요한은 구주를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침례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그분의 아버지는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신이 비둘기같이 내렸다.(마태복음 3:13~17 참조)

침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곧바로 사십 주야를 금식 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탄이 그분을 유혹하러 왔다.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고, 그에게 물러가라고 명하셨습니다.(마태복음 4:1~11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4:1, 5~6장, 8~9장, 11장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였다.(히브리서 4:15; 베드로전서 2:21~22 참조)

- 구주의 생애에 관한 기사 중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신 그리스도

- 구주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예수님은 금식을 하고 사탄에 대항하신 후 공식적으로 성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러 지상에 오셨지만,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역시 그분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 중 하나였다. 구주는 두 가지 큰 계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마태복음 22:36~39 참조) 그분의 삶은 우리가 이 두 가지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다. 그들의 병을 고치셨고, 눈 먼 자들을 보게 하셨으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셨다. 한 번은 그분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날이 저물었고 사람들은 허기를 느꼈다. 그분은 무리를 돌려보내는 대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복하셔서 오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다.(마태복음 14:14~21 참조) 예수님은 우리가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외로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다.(마태복음 25:35~46 참조)

예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은 종종 마음속에 동정심이 가득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다. 어린 아이와 노인,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단순한 이들을 사랑하셨고, 죄 지은 자를 사랑하셨으며, 깊은 동정심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가르치셨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요한복음 14:6)

예수님은 그분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셨다. 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숨져 가시면서도 그분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병정들을 위해 아버지께 간구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구주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한복음 15:12)

-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유일하게 참된 교회를 조직하신 그리스도

- 구주께서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 사도들을 성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분의 복음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사도 열두 명을 택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 열두 사도들은 그분 교회에서 첫 번째로 부름 받은 지도자들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곁에서 직접 보았던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행할 권세를 받았다. 열두 사도들에게서 권세를 받은 사람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며 기타 다른 의식들을 할 수 있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악함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 그들을 죽일 때까지 그분의 사업을 쉬지 않았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

예수님께서 지상 성역을 마치실 무렵,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마지막 희생을 치를 준비를 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으셨다.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동산으로 가셨다. 산에 오르셨을 때, 곧이어 큰 슬픔이 엄습해 왔으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다. 후기의 사도인 올슨 에프 휘트니는 구주의 고통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는 구주께서 눈물 흘리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 광경에 너무도 감동된 나머지 …… 순수한 연민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온 마음이 그분께 다가섰습니다. 저는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으며,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Improvement Era*, 1926년 1월, 224~225쪽; 또한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16쪽 참조)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현대에 주신 계시에서 구주는 그분께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묘사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였다].”(교리와 성약 19:18) 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질병, 약함과 죄를 짊어지셨고, “육체를 따라” 고통을 겪으셨다.(앨마서 7:10~13 참조)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이 영육이 겪는 고통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만물 아래로도 내려갔고 …… 이는 그

교사들에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영을 불러온다.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본 장 마지막 두 부분을 조용히 읽어 보고 구주에 대해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그런 후 자기 생각을 나누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의 생각을 반원들과 나누도록 권유한다.

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함이니, 곧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교리와 성약 88:6)

그러나 그분께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다. 다음날, 예수님은 매를 맞고 모욕과 침 뱉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런 후 그 십자가에 달려 못박히셨다. 그분은 인간이 고안해 낸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한 가지로 고통을 겪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신 후에 그분은 괴로워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가복음 15:34) 예수님께서 가장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 형벌을 받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그분에게서 물러나셨다.(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60쪽 참조)

구주는 그분의 희생을 아버지께서 받아들이셨음을 아시고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누가복음 23:46)라고 외치셨다. 그분은 고개를 숙이고 자진하여 그분의 영을 내주셨다. 구주께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리고 격렬한 지진이 땅을 흔들었다.

몇몇 친구들이 구주의 시신을 무덤으로 가져갔으며, 그 시신은 삼 일이 지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 동안 구주의 영은 몸 밖으로 나가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다른 영들을 위해 선교 사업을 계획하셨다.(베드로전서 3:18~20;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삼 일째 되는 일요일에 그분은 육신으로 돌아와 다시 육신을 입으셨다. 그분은 최초로 죽음을 이긴 존재가 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요한복음 20:9)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곧 니파이 백성에게 나타나 미대륙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축복하셨다. 이 감동적인 기사는 제3니파이 11장부터 28장 사이에 실려 있다.

자신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준 구주의 희생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한복음 15:13~14) 그분은 기꺼이, 그리고 겸손하게 셋새마네의 슬픔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의 계획이 가져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축복들을 받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13~15, 21, 27)

• 구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보충 성구 및 기타 자료

- 니파이후서 25:12(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독생자)
- 모세서 6:57(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로 지명됨)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
- 마태복음 10:1~8; 누가복음 9:1~2(사도는 권능과 권세로 성임됨)
- 마태복음 26~28장; 마가복음 14~16장; 누가복음 22~24장; 요한복음 18~20장 (동산의 예수,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부활하심)
-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속죄

제 12 장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

- 속죄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76:41~42)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사망을 이기기 위해 하신 위대한 희생을 속죄라고 한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은즉 ……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멸망하리라.”(앨마서 34:9)

아담의 타락으로 이 지상에는 두 가지 사망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이다. 육체적 사망이란 영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며, 영적 사망이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분리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이 두 가지 사망이 극복되지 않았더라면,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났을 것이다. 즉, 우리 육신과 영은 영원히 분리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니파이후서 9:7~9 참조)

그러나 현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육체와 영적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놀랍고도 자비로운 계획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구주를 지상에 보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로 계획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와 육신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죄할 수 없었다.(앨마서 34:10~12 참조) 우리의 구주가 되실 분은 죄가 없고 사망을 이길 권능이 있는 분이여야 했다.

교사들에게: 간단한 도표와 그림은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원리와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칸짜리 도표를 만들어 첫 칸에는 *타락의 결과*라고 적고, 다른 칸에는 *속죄의 축복*이라고 적어 본다. 본 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사용하여 도표를 채운다.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구주로 택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사망을 이길 권능이 있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17~18)

또한 예수님은 지상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구주가 될 자격이 있으셨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치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었다.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통을 겪고 돌아가신 그리스도

-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신이 겻세마네 동산이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다고 상상해 본다.

구주는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겪고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 죄를 속죄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는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겻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우리 죄가 짓누르는 무게 때문에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는 고통을 받으셨다.(교리와 성약 19:18~19 참조)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간에게 알려진 가장 잔혹한 방법 중 하나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영육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이었다. 독생자를 보내어 다른 자녀를 위해 고통과 죽음을 겪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속죄와 부활로 모든 인류가 부활하게 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삼 일째 되던 날에 그분은 육신을 다시 입고 인간으로서 최초로 부활하셨다. 친구들이 그분을 찾으러 갔을 때, 무덤을 지키던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그분의 영은 다시 그분의 육신으로 들어갔으며 이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사망을 이기셨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이다.(고린도전서 15:21~22)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도 우리 육신과 재결합하여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 ……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엘마서 11:45)이다. 이러한 상태를 불멸이라고 한다. 지상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엘마서 11:44)를 막론하고 모두 부활할 것이다.

- 부활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속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 부분에 나온 비유가 속죄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본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들이겠는가?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겠지만, 속죄를 받아들이는 이들만이 영적인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다.(신앙개조 제3조 참조)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그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침례와 성신을 받으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한다.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며, 용서 받고,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준비를 갖춘다.

교사들에게: 실물 공과는 반원들과 가족 구성원이 원리와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망과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 실물 공과를 고려해 본다. 손에 장갑을 낀다. 장갑을 낀 손은 육신을 입은 사람의 영에 비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갑을 벗는다. 이것은 육체적 사망-영(손)과 육신(장갑)이 분리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나서 손에 장갑을 다시 낀다. 이것은 부활-영과 육신이 재결합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 그들이 ……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9:16~17)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맡으신 역할을 다하셨다. 그분의 속죄가 우리 삶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그분께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십이사도 평의회는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만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될 수 있는지를 다음 이야기로 설명했다.

“비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것을 몹시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 큰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큰 빛을 지는 것과 특히 그의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당장 갖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용증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그 돈을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만기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했고, 돈을 갚는 것에 대해 별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이제 갖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채권자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으며, 가끔 조금씩 빛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부채를 [완전히] 청산해야 할 날이 닥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그날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채는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습니다. 채권자는 그에게 부채를 모두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채권자가 자기 소유물을 모두 가져갈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을 감옥에 보낼 권리까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빛을 갚을 수가 없군요. 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채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약대로 당신의 재산을 차압하고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겠소. 당신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했소.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것이오. 당신이 이 차용증서에 서명했으니, 이제 그대로 이행해야겠소.’”

“그 말을 들은 채무자는 ‘지불 기한을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빚을 탕감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라고 애원했습니다. ‘제 소유물을 빼앗기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자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채권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비란 언제나 편파적인 것이러오. 그것은 당신에게만 좋은 게 아니겠소. 내가 당신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나는 빚을 못 받게 될 것이오. 내가 요구하는 것은 공의요. 당신은 공의를 인정하시오?’”

“‘차용 증서에 서명할 때만 해도 나는 공의를 인정했습니다.’라고 채무자는 말했습니다. 그때는 공의가 나를 보호해 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의가 내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자비 같은 것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언젠가 필요할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았지요. 공의가 우리 두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의가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계약대로 부채를 갚든가, 아니면 형벌을 받는 것이오.’라고 채권자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법이오. 당신이 그것에 동의했으니 그대로 이행해야 하오. 자비는 공의를 빼앗을 수 없소.’”

“한 사람은 공의를 주장했고, 다른 한 사람은 자비를 호소했습니다. 어느 한 쪽을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누구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다면 자비가 없게 될 것입니다.’라고 채무자는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그렇게 한다면 공의가 없게 될 것이잖소.’라고 맞섰습니다.”

“두 가지 법은 성립될 수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영원한 이념입니다.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의의 법을 완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자비를 충분히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채무자에게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가 친구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는 채무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채무자인 친구가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런 궁지에 빠진 친구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채권자에게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감옥에도 가지 않도록 당신이 내 친구를 계약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면 내가 그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채권자가 그 제의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중재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공의를 요구했지요. 그가 갚을 수 없으니, 내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정하게 받을 것이니 더 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권자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중재자는 채무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빚을 갚아 준다면 나를 당신의 채권자로 받아들여주소?’”

“채무자는 ‘네, 그리고 말고요.’ 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나를 감옥에서 구해 주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가 정하는 조건대로 나에게 빚을 갚아야 하오.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할 것이오. 내가 방법을 가르쳐 주겠소.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오.’”

“이렇게 하여 채권자는 빚을 다 받았습시다. 그는 공의롭게 대우받았습니다. 계약은 전혀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졌습니다. 두 가지 법칙이 모두 성립된 것입니다.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공의도 제 몫을 다 주장하게 되었고, 자비도 충족되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7년 4월, 79~80쪽; 또는 *Ensign*, 1977년 5월 호, 54~55쪽)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진 영적인 빛이다. 우리의 구주이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겪음으로써 우리의 빛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그분께서 정하신 조건, 즉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지어다.”(제3니파이 9:21~22)

• 속죄의 은사에 감사를 보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

보충 성구

- 앨마서 34:9~16(속죄의 필요성, 하나님의 희생)
- 니파이후서 9:7~12(속죄는 육체적 및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함)
- 로마서 5:12~17(한 사람은 사망을, 한 사람은 생명을 가져왔음)
- 할라만서 14:15~18(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신 목적)
- 신앙개조 제3조(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음)
- 베드로전서 1:18~20(예수님은 예임되었음)
- 마태복음 16:21(예수님의 희생은 필요했음)
- 누가복음 22:39~46(예수님이 동산에서 겪으신 고통)
- 요한1서 1:7(우리를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게 하신 예수님)
- 니파이후서 9:21~22(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을 겪으신 구주)
- 모사이야서 16:6~8(부활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함)
- 앨마서 11:40~45; 몰몬서 9:12~14(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임)
- 이사야 1:18(우리의 죄가 눈같이 희어질 것임)
- 고린도전서 15:40~44; 앨마서 40:23(부활에 대한 설명)

신권

제 13 장

신권이란 무엇인가?

신권은 하나님의 영원한 권능이며 권세이다. 하나님은 신권을 통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신다. 이 권능으로 우주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한다. 하나님은 이 권능을 통해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그분의 일과 영광을 성취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신권 권능을 합당한 남성 교회 회원들에게 위임하신다. 그들은 이 신권을 사용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의식을 집행하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권한을 받을 수 있다.

- 하나님께서 합당한 남성과 소년들에게 그분의 신권을 소유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신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침례, 확인, 성찬 집행, 성전 결혼과 같은 복음의 성스러운 의식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신권 권세가 있어야 한다. 만일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 했더라도 그 의식은 주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마태복음 7:21~23; 신앙개조 제5조 참조) 이러한 중요한 의식은 지상에서 신권을 소유한 자들이 행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본 장은 소제목 다섯 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제목은 신권에 관한 질문이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공과의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 교실이 조별 토론을 하기에 적절하다면 반원들을 두 명에서 네 명으로 나누어 조를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각 조에게 이 장의 한 부분을 배정해 준다.(반원이 많은 경우, 하나 이상의 조에 같은 부분을 배정해 줄 수 있다.) 각 조에 다음과 같은 임무를 준다. (1) 자기 조가 맡은 부분을 읽고 토론한다. (2) 소제목을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성구를 찾는다. (3) 그 부분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그런 후 반원들에게 그 경험들 중 몇 가지를 전체 반원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감리하고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교회 일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신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그분은 사도들을 택하고 성임하여 그분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마가복음 3:13~15; 요한복음 15:16 참조)

지상에 신권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정하신 지상의 신권 대표, 즉 선지자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다. 교회 회장인 선지자는 모든 교회 회원과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대변자로 봉사한다.

- 의식을 집행할 때 올바른 권세를 갖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인간은 어떻게 신권을 받는가?

주님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아들들에게 그분의 신권을 주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셨다.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 권세 있는 자에 의한 안수로”(신앙개조 제5조) 신권을 받는다.

모세 시대와 같이 오래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같은 방법으로 신권을 받았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브리서 5:4) 아론은 자신의 신권 지도자인 모세에게서 신권을 받았다.(출애굽기 28:1 참조) 신권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성임할 수 있으며, 그들은 그 성임의 열쇠를 소유한 이들이 승인할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본 교재 제14장 참조)

인간은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사고 팔 수 없고, 또한 그 권세를 스스로 취할 수도 없다. 신약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교회를 감리하던 시대 사람인 시몬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시몬은 개종하여 침례를 받고 교회에 속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능수능란한 마술사였던 그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몬에게는 신권이 없었으며, 그 자신도 그 사실을 알았다.

시몬은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사도들과 교회의 다른 신권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도자들이 신권을 사용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그 권능을 갖고 싶어했다. 그는 돈을 주고 신권을 사겠다고 제의했다.(사도행전 8:9~19 참조) 그러나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이다.”(사도행전 8:20)

- “이 [신권의]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신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신권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삶을 축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신권 소유자는 사랑과 친절로 감리해야 하며, 자기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향한 순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신권 권능이 의의 원칙이 아니 고서는 통제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121:36 참조) 신권을 부나 명 성, 기타 이기적인 목적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다.”(교리와 성약 121:37)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교리와 성약 121:41) 신권을 행사할 때 그 사람은 자기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무수히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침례를 주고 확인을 하며 성찬을 집행하는 의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서 위임을 받아야만 그러한 의식 들을 베풀 수 있다. 신권 소유자는 병자를 축복하거나, 자기 가족들에게 특별한 필요 사항이 있을 때 그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신권 축복을 줄 수 있다. 또한 다른 가족들이 부탁하면 그들에게도 이러한 의식과 축복을 줄 수 있다.

지부 회장, 감독, 정원회 회장,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과 같은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신권 권세를 사용하여 교회를 감리한다. 교회에서 역원이나 교사 직분에서 봉사하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신권 지도자가 하는 지시와 성신의 인도에 따라 일한다.

신권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목적으로 신권을 사용하는 의로운 신권 소유자 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네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무궁토록 네게로 흘러오리라.”(교리와 성약 121:45~46)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신권을 의롭게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그런 사람은] 아름다운 생활을 해 나가고 분별력이 예리해져 옳고 그름을 신속하게 판단하며 부드럽고 동정심 가득한 심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영은 의를 지키기에 강하고 용감하여 신권이 결코 그치지 않는 행복의 근원, 즉 영생을 솟게 하는 생수의 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03년], 116쪽)

- 여러분은 신권을 통해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보충 성구

- 교리와 성약 84편; 107편(교리와 성약 84:33~40에 나와 있는 신권의 맹세와 성약을 포함한 신권에 관한 계시)
- 교리와 성약 20:38~67(신권의 의무)



신권 조직

제 14 장

오늘날 지상에는 신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신권으로 관리된다. 하나님의 사업과 항상 관련되어 있는 신권은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어져 오나니, 시작하는 날도 없고 끝나는 해도 없다.”(교리와 성약 84:17) 신권은 오늘날 이 지상에 존재한다. 젊은 사람이든 연로한 사람이든 침례를 받고 이 교회로 들어오는 이는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신권에 성임된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일할 권세를 받고 지상에서 그분의 일을 한다.

두 가지 종류의 신권

-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은 어떻게 그와 같은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신권은 두 가지, 즉 멜기세덱 신권과 아론 신권으로 나뉜다.(교리와 성약 107:1 참조) “전자를 멜기세덱 신권이라 부르는 이유는 멜기세덱이 것처럼 위대한 대제사였음이라.”

“그의 시대 이전에는 이를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좇는 성 신권*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지존자의 이름을 존중하며 경외하는 뜻에서 그의 이름을 너무 자주 반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 곧 옛 시대의 교회 회원은 멜기세덱을 좇는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이라 일컬었느니라.”(교리와 성약 107:2~4)

소신권은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다. 이 신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부여된 것이었기 때문에 아론 신권이라고 불린다. 아론 신권을 소유한 이들

교사들에게: 시작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본문 내용을 찾아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해 보도록 돕는다.

예게는 성찬과 침례 등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권세가 있다.(교리와 성약 20:46; 107:13~14, 20 참조)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이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지시할 권능과 권세가 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을 집행한다.(교리와 성약 84:19~22; 107:8 참조) 그들은 성전에서 집행되는 일을 담당하며 와드, 지부, 스테이크, 선교부를 감리한다. 주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곧 교회 회장은 멜기세덱 신권을 감리하는 감리 대제사이다.(교리와 성약 107:65~67 참조)

신권의 열쇠

- 신권과 신권의 열쇠는 어떻게 다른가? 어느 신권 지도자들이 열쇠를 받는가?

신권 직분에 성임되는 것과 신권 열쇠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일반적으로 신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하도록 인간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모든 신권 직분에 성임된 사람은 위임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 아래 수행되는 모든 행위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질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일을 지시하는 권능이 신권의 열쇠를 구성합니다. 한 시대에 오직 한 사람, 곧 선지자, 교회 회장만이 충분한 가운데 열쇠를 지니게 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 권능 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그 특정한 일에 관한 열쇠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회장, 스테이크 회장, 와드 감독, 선교부 회장, 정원회 회장은 각각 특정 조직 또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일에 관한 열쇠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신권은 이러한 지명에 따라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장로 정원회 회장이 그 정원회 회원보다 더 큰 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 정원회에서 일어나는 공식적인 일을 지시하는 권세, 다시 말하면 그 사업의 그 부분에 대한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41쪽)

- 신권 열쇠는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는가?

아론 신권의 직분과 의무

- 아론 신권 소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를 하는가?

아론 신권을 받는 사람은 아론 신권의 직분들 중 하나에 성임된다. 아론 신권의 직분에는 집사, 교사, 제사, 감독이 있다. 각 직분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 각 정원회는 정원회 회장이 감리하는데, 그는 정원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가르치고 임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어떤 사람이 이 신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지난 후에 교회에 들어오거나 활동화되기도 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아론 신권의 한 직분에 성임되고 그들이 계속 합당할 때 곧 다른 직분에 성임될 수 있다.

집사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은 합당한 청년은 12세가 될 때 집사 직분에 성임될 수 있다. 집사는 대개 교회 회원들에게 성찬을 전달하고, 교회 건물과 부지를 정돈하고, 신권 지도자들의 전달자로 일하며, 금식 현금을 모으는 일과 같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다.

교사

합당한 청년은 14세 또는 그 이상이 되면 교사로 성임될 수 있다. 교사는 집사 직분에 따르는 모든 의무와 권리, 권능에 더하여 또 다른 임무를 맡는다. 아론 신권의 교사는 교회 회원들이 계명에 따라 생활하도록 도와야 한다.(교리와 성약 20:53~59 참조) 이 책임을 완수하도록 그들은 대개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된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회원들에게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도록 격려한다. 교사는 경전에 실린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라는 명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42:12 참조) 또한 성찬식을 위해 빵과 물을 준비한다.

제사

합당한 청년은 16세 또는 그 이상이 되면 제사로 성임될 수 있다. 제사는 집사와 교사가 맡은 모든 의무와 권리, 권능에 더하여 몇 가지 의무가 추가된다.(교리

와 성약 20:46~51 참조) 제사는 침례를 베풀고, 성찬을 집행하며, 다른 제사와 교사, 집사를 성임할 수 있다. 제사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그 모임을 인도할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감독

감독은 와드의 아론 신권을 감리하도록 성임되고 성별된다. 감독은 제사 정원회 회장이 된다.(교리와 성약 107:87~88 참조) 감독은 아론 신권 직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때 재정 및 기록을 관리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보살피도록 지시하는 등 주로 현세적인 일들을 한다.(교리와 성약 107:68 참조)

또한 그는 모든 와드 회원들을 감리할 수 있도록 대제사로 성임된다.(교리와 성약 107:71~73; 68:15 참조) 감독은 이스라엘의 판사(교리와 성약 107:74 참조)이며, 성전 추천서와 신권 성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위해 회원들과 접견한다. 분별의 은사를 갖는 것은 감독의 권리이다.

-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하는 봉사를 통해 어떻게 축복받았는가?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과 의무

-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봉사하는가?

멜기세덱 신권의 직분에는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가 있다.

장로

장로는 가르치고, 해설하며, 권면하고, 침례를 베풀며, 교회를 돌보기 위해 부름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20:42 참조) 모든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장로이다. 그들은 안수로써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권세가 있으며(교리와 성약 20:43 참조), 성신의 인도를 받는 대로 교회 모임을 사회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20:45; 46:2 참조) 장로는 병자(교리와 성약 42:44 참조)와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으며(교리와 성약 20:70 참조), 대제사가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그 모임을 감리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107:11)

대제사

대제사에게는 교회 직무를 수행하고 영적인 일들을 집행할 권세가 있다.(교리와 성약 107:10, 12 참조) 또한 그보다 낮은 직분들에서 이행하는 일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68:19 참조)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 고등 평의원, 감독, 기타 교회 지도자들은 대제사로 성임된다.

축복사

축복사는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기 위해 십이사도 평의회 승인을 받은 총관리 역원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성임한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통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름이 무엇인지 다소 이해할 수 있다. 이 축복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축복사는 또한 대제사로 성임된다.(교리와 성약 107:39~56 참조)

칠십인

칠십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며,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지시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조정하는 일을 돕는다.(교리와 성약 107:25, 34, 38, 93~97 참조)

사도

사도는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사도는 세상 도처에서 교회 제반사를 관리한다. 멜기세덱 신권의 사도 직분에 성임된 사람은 보통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성별된다. 각 사도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 왕국의 모든 열쇠를 받지만, 모든 열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선임 사도인 교회 회장이 한다. 다른 사도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행한다.

- 여러분은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하는 봉사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아론 신권 정원회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을 정원회로 조직하라고 지시하셨다. 정원회란 동일한 신권 직분을 소유한 형제들의 조직체이다.

아론 신권에는 세 가지 정원회가 있다.

1. 집사 정원회: 집사 12명으로 구성된다.(교리와 성약 107:85 참조) 집사 정원회 회장단은 이 정원회 회원들 가운데서 감독이 지명한다.
2. 교사 정원회: 교사 24명으로 구성된다.(교리와 성약 107:86 참조) 교사 정원회 회장단은 이 정원회 회원들 가운데서 감독이 지명한다.
3. 제사 정원회: 제사 48명으로 구성된다.(교리와 성약 107:87~88 참조) 이 정원회를 감리하는 일은 이 정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와드 감독이 한다. 감독은 대제사이므로 대제사 정원회에도 속한다.

각 정원회 정원이 초과될 때마다 그 정원회는 분리될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교회 전체 차원에서 제일회장단은 십이사도 정원회와 같은 정원회를 구성한다. 칠십인들도 또한 정원회로 조직된다.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지역의 교회 차원인 와드 및 지부와 스테이크 및 지방부에서 다음과 같은 정원회로 조직된다.

장로 정원회

장로 정원회는 “상주 성역자를 위하여 제정되어 있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여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그들은 나의 교회의 상주 성역자가 되도록 성임[된다.]”(교리와 성약 124:137) 그들은 대부분 자신이 거주하는 곳 가까이 있는 일을 맡아 행한다. 이 정원회는 장로 96명으로 구성되며, 정원회 회장단이 감리한다. 정원이 초과되면 이 정원회는 분리될 수 있다.

대제사 정원회

이 정원회는 축복사와 감독을 포함하여 스테이크 경계 내에 거주하는 모든 대제사로 구성된다. 스테이크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정원회 회장단이 된다. 각 와드 대제사들은 한 사람을 지도자로 두는 그룹으로 조직된다.

신권 정원회의 중요성

- 신권 정원회는 어떻게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신권에 성임되는 남자 또는 소년은 자동으로 신권 정원회 일원이 된다. 그때부터 평생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따라 신권 정원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보이드 케이 팩키, “What Every Elder Should Know—and Every Sister as Well: A Primer on Principles of Priesthood Government”, *Ensign*, 1993년 2월호, 9쪽 참조)

신권 정원회가 올바르게 역할을 다한다면, 정원회 회원들은 격려와 축복을 받고, 우정을 나누며, 지도자를 통해 복음을 배울 것이다. 신권 정원회 회원이 교사, 정원회 회장, 감독, 고등 평의원 또는 스테이크 회장과 같은 교회 부름에서 해임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정원회 회원 자격에는 변동이 없다. 신권 정원회 회원 자격은 성스러운 특권으로 여겨져야 한다.

신권 보조 조직

- 신권 보조 조직은 어떻게 개인과 가족을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교회의 모든 조직은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그들이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와드 상호부조회, 청년, 청남, 초등회, 주일학교 회장단은 감독단이 하는 지시에 따라 일한다. 이 조직들을 신권 보조 조직이라고 부른다.

- 신권 정원회와 보조 조직이 잘 운용되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충 성구

- 엘마서 13:1~19(인간이 신권에 성임된 방법)
- 마태복음 16:19; 교리와 성약 68:12(사도에게 주어진 신권 열쇠와 권능; 그들이 땅에서 인봉한 것은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임)
- 교리와 성약 20:38~67(장로, 제사, 교사, 집사의 의무)
- 교리와 성약 84편; 107편(신권에 관한 계시)
- 고린도전서 12:14~31(신권 직분은 모두 중요함)

주님의 성약의 백성

제 15 장

성약의 본질

• 성약이란 무엇인가? 후기 성도들이 성약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초부터 주님께서서는 지상에 있는 그분의 자녀와 성약을 맺으셨다. 주님과 성약(또는 약속)을 맺을 때 백성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또한 성약을 맺을 때 지상에서 주님의 일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주님과 성약을 맺는 백성, 주님께서 성약을 맺으시는 사람들을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라고 한다. 이 교회 회원들은 주님의 성약의 백성에 속한다.

복음 안에서 성약이란 하나님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한 무리 사람들 사이에 맺는 성스러운 계약, 혹은 서로 맺는 약속이다. 하나님은 성약을 맺으실 때,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분은 성약 조건을 정하시고 그 조건을 선지자에게 계시하신다. 우리가 그 성약 조건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약속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반면, 순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어떤 경우에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 가입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 가지 성약을 맺는다.(본 교재 제20장 참조)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구주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그분과 성약 하며, 그분은 “회개하고 내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8:22)라고 약속하신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에도 주님과 성약을 맺는다.(본 교재 제23장 참조)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약속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받는다.(교리와 성약 20:77~79 참조) 성전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성스러운 성약들을 맺는데, 우리가 그 성약에 충실하게 순종할 경우 승영을 약속 받는다.(교리와 성약 132편 참조; 또한 본 교재 제47장 참조)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특정한 사람들 또는 집단과 특별한 성약을 맺으셨다. 그분은 아담, 에녹, 노아, 이스라엘의 자녀, 그리고 리하이와 특별한 성약을 맺으셨다.(모세서 6:31~36, 52; 창세기 9:9~17; 출애굽기 19:5~6; 니파이후서 1장 참조) 주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이 교회 회원들과 오늘날 지상에 있는 모든 국가를 축복하시리라는 특별한 성약을 주셨다.

-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성약과 그 성약을 지킬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으신 성약

- 아브라함의 성약이란 무엇인가?

구약의 선지자 아브라함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었다.(본 장에 있는 그림 참조) 그는 우상을 섬기던 부친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켰다. 아브라함이 의로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성약을 주셨다.

주님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 또 그 후손들 모두 복음과 신권의 축복, 승영에 필요한 모든 의식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셨다. 그 후손들은 신권 권능을 가지고 온 나라에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들을 통해 지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 축복 받게 될 것이다.(아브라함서 2:11 참조) 하나님은 또한 의로운 모든 세대의 아브라함 자손과 성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창세기 17:4~8 참조)

- 아브라함의 성약에 있는 계명과 약속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 질문이 각기 다른 상황, 이를테면 가정, 직장, 지역사회, 또는 선교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각해 본다.)

이 교회 회원들은 성약의 백성임

- 오늘날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받은 축복과 책임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만 성약의 백성으로 여기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네 이름으로 불리울 것이요, 네 자손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일어나 너를 그들의 조상으로 찬양하리라.”(아브라함서 2:10) 따라서 두 부류가 아브라함의 성약에 포함된다. (1)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의로운 후손 (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여 아브라함의 계보에 입양된 사람들(니파이후서 30:2 참조).

이 교회에서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으신 성약에 속하게 된다.(갈라디아서 3:26~29 참조) 우리가 [성약에] 순종한다면 그 성약에 [약속된] 축복을 상속받고 성신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성약에 순종하는] 합당한 남성은 신권을 소유할 권리가 있으며, 가족들은 그 신권으로 축복을 받는다. 또한 우리는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축복과 함께 중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그의 후손을 통해 온 지상에 전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전임 선교사 프로그램과 회원 선교 사업을 통해 이 책임을 완수한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기회는 오직 주님의 교회와 그분의 성약의 백성에게만 주어진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82:10)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우리가 맺은 성약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무효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4 참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엄한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내리지 않도록 …… 죄를 삼가라. 무릇 많이 주어진 자에게는 많이 요구되나니, 더 큰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교리와 성약 82:2~3)

교사들에게: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그들에게 시간을 준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답변을 부탁한다.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가? 우리가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축복들을 주시는가?

복음의 충만함은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이라고 불린다. 이것에는 침례를 받을 때, 성찬을 취할 때, 성전에서, 또한 기타 다른 때에 맺은 성약이 포함된다. 이 성약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으며 절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영원한 성약이라고 부르신다. 그분은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그 밖의 선지자들에게 동일한 성약을 주셨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이 성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이 지상에서 거두어진 후 회복될 때마다 이 성약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새로운 성약이라고 부르신다.(예레미야 31:31~34; 에스겔 37:26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며, 성신을 받고, 엔다우먼트를 받으며, 성전에서 결혼 성약을 맺고,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132:20~24 참조; 또한 본 교재 제47장 참조)

그 약속은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위대하다. 그분께서 주시는 계명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하늘과 땅이 주는 축복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공유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 면전에서 살며 그분의 사랑, 자비, 권능, 위대함, 지식, 지혜, 영광, 통치권에 참여할 수 있다.

-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옷차림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보충 성구 및 기타 자료

- 베드로전서 2:9~10(택하신 족속)
- 교리와 성약 54:4~6(성약을 지킬 때와 깨뜨릴 때 오는 결과)
- 교리와 성약 132:7(올바른 권세로 맺어진 성약)

- 교리와 성약 133:57~60(성약의 목적)
- 교리와 성약 35:24(성약에 순종할 때 받는 약속)
- 히브리서 8:6(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 경전 안내서, “성약”, 140~141쪽

초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6 장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몇 가지 특징

“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신앙개조 제6조)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일컬어졌고(제3니파이 27:8 참조), 그 교회 회원들은 성도라고 불렀다.(에베소서 2:19~20 참조)

계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직접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다. 또한 그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다.(히브리서 1:1~2 참조)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교회를 세울 “반석”은 계시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6:16~18 참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 그 말씀대로 주님은 하늘에서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성신을 보내어 보혜사와 계시자가 되게 하셨다.(누가복음 12:12; 요한복음 14:26 참조) 예수님은 시현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고(사도행전 9:3~6 참조)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고 계시하셨다.(사도행전 10장 참조) 요한에게 계시하신 수많은 영광스러운 진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신약전서에는

교사들에게: 계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등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내는 여섯 가지 특징이 사체(이탈릭체)로 본 장에 나온다. 각 가족 구성원 또는 반원에게 각 제목을 연구해 보도록 권유해 본다.(연구할 과제를 배정할 때 반원들이 많다면 일부에게 동일한 주제를 줄 수 있으며 가족과 소규모 반에서는 몇몇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을 연구해 보도록 배정할 수도 있다.) 연구해 볼 시간을 가진 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권유한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분의 뜻을 나타내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신권이 없이는 복음 의식을 집행하거나 원리를 가르칠 수 없다. 이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며(히브리서 5:4~6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도들을 성임하고, 그들에게 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주셨다.(누가복음 9:1~2; 마가복음 3:14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요한복음 15:16)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에 질서가 있도록 십이사도들에게 가장 큰 책임과 권세를 주셨다. 베드로를 선임 사도로 임명하여 그에게 땅과 하늘에서 축복을 인봉하는 열쇠를 주셨으며(마태복음 16:19 참조),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여 그들이 수행할 특정한 의무를 주셨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그와 같은 임명과 성임은 계속되었다. 신권 권세를 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권에 성임했다. 예수님은 이 성임이 승인되었다는 것을 성신을 통해 알려주셨다.(사도행전 1:24 참조)

교회 조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려깊게 만들어진 단위 조직이었다.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신]” 건물에 비유되었다.(에베소서 2:20)

예수님은 다른 신권 지도자들을 지명하여 사도들의 성역을 돕게 하셨는데 칠십인이라고 불리는 역원들을 둘씩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누가복음 10:1 참조) 그밖에 다른 교회 역원에는 복음 전하는 자(축복사), 목사(감리 지도자), 대제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가 있었다.(본 교재 제14장 참조) 이 역원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회 회원들에게 가르침과 영감을 주기 위해 모두 필요한 이들이었다. 이 역원들은 회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에베소서 4:13) 되도록 도왔다.

성경에 신권이나 교회 조직, 행정에 관한 모든 지식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여 주기에 충분한 기록이 보존되

어 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다.(마태복음 28:19~20 참조) 그들이 한 도시에만 머물며 새로운 개종자들을 관리하는 일은 불가능했다. 그 때문에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부름을 받아 성임되었고, 사도들은 그들을 감리했다. 사도들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지부를 방문하고 서한도 보냈다. 신약전서에는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가 지역 신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한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록에는 그들이 주는 권고와 가르침이 실려 있다.

신약전서에는 이 교회 조직이 어떤 방법으로 지속되는지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유다가 사망하자 사도들은 열한 명만 남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직후, 사도들 열한 명은 유다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 함께 모였다. 그들은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맛디아를 새로운 사도로 택했다.(사도행전 1:23~26 참조) 예수님은 십이사도들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본보기를 보여 주셨다. 그분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있었던 그 조직이 그대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듯했다.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사도들은 두 가지 기본 원리,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가르쳤다. 새로운 개종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속주로 믿고 죄를 회개한 후에 두 가지 의식, 즉 침수로써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를 받았다.(사도행전 19:1~6 참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죽은 자를 위해 집행되는 의식

예수님은 지상에 있던 사후 세계에 있던 간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 그분은 사망한 뒤에 부활하시기 전까지 죽은 영들을 방문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선교 사업을 계획하셨다. 주님은 의로운 사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사망한 사람들의 모든 영에게 복음을 가르칠 권능을 주셨다. 이것으로 영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얻게 되었다.(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그 이후, 살아 있는 교회 회원들은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했다.(고린도전서 15:29 참조) 침례 및 확인과 같은 의식은 지상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영적인 은사

충실한 교회 회원들은 모두 영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러한 은사는 그들 각자에게 있는 능력과 임무, 필요 사항에 따라 받는 것이다. 그 중에는 병 고치는 권능과 병 고침을 받는 권능을 포함하여 신앙, 예언, 시현의 은사가 있었다.(영의 은사는 제2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영적인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 언제나 존재한다.(고린도전서 12:4~11; 모로나이서 10:8~18; 교리와 성약 46:8~29 참조) 예수님은 이러한 표적, 또는 영적인 은사가 믿는 이들에게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마가복음 16:17~18 참조) 그분의 많은 제자들은 기적을 베풀거나 예언했으며, 또는 성신의 권능으로 시현을 보았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이와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이 필요한가?

미대륙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 백성을 방문하여 그들 가운데 교회를 조직하셨다. 그분은 그곳에서 삼 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셨으며, 그 후에도 그들을 방문하셨다.(제3니파이 11~28장 참조) 그런 다음 그들을 떠나 승천하셨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미대륙 백성들은 200년 동안 의롭게 살았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중에 가장 행복한 백성이었다.(제4니파이 1:16 참조)

참된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남

- 배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어느 시대에나 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파괴하려고 힘써 왔다. 이러한 일은 그때까지 아직 살아 있던 사도들이 조직된 지 얼마 안 되어 성장해 가던 교회를 감독하던 시절에도 일어났다. 일부 회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진리 대신 고대 이교도나 유대교 개념들을 가르쳤다. 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모반을 했다. 게다가 교회 외부에서도 박해가 가해졌다. 교회 회원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고문당하고 살해되었다. 사도들은 한 사람씩 살해되거나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사악함과 배도 때문에 사도의 권세와 신권 열쇠도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조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혼란이 일어났다. 교회 교리에 점점 더 많은 오류가 생겨났고, 곧이어 교회가 완

전혀 붕괴되었다. 더 이상 지상에 참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대를 대배도라고 일컫는다.

이윽고 이교도 신앙이 기독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했고, 로마 황제는 이 거짓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였다.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조직하신 교회와 크게 달랐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거나 실체적이지 않다고 가르쳤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인생의 목적도 이해하지 못했다. 또한 신권과 계시가 지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식들이 변경되었다.

로마 황제는 자기를 위해 교회 지도자들을 선택했으며, 참된 그리스도 교회에서 신권 지도자들에게 부여되었던 칭호를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도 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진 사도나 다른 신권 지도자들은 없었으며, 영적인 은사도 없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상태를 미리 보고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이사야 24:5)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상에는 인간의 교회만이 있었다. 심지어 교회 이름도 변경되었다. 배도는 미대륙에서도 일어났다.(제4니파이 참조)

회복이 예언됨

- 구약전서와 신약전서에는 회복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나와 있는가?

배도를 미리 내다보신 하나님은 복음을 회복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20~21)

계시자 요한도 복음이 회복될 시기를 미리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 회복은 왜 필요했는가?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어 여러분이 받게 된 축복들을 생각해 본다.

보충 성구

- 에베소서 2:19(회원들은 성도라고 불렸음)
- 고린도전서 12:12~31(교회가 몸에 비유됨)
- 누가복음 10:1; 사도행전 14:23; 디도서 1:7; 디모데전서 2:7(교회 역원들이 알려짐)
- 요한복음 8:26~29(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심)
- 누가복음 9:1; 야고보서 1:17; 5:14~15(영적인 은사)
- 모사이야서 27:13(범법한 결과 배도가 일어남)
- 베드로후서 2:1; 마태복음 24:9~12; 요한복음 16:1~3; 아모스 8:11; 데살로니가 후서 2:3~4(배도가 예언됨)
- 다니엘 2:44~45; 마태복음 24:14; 사도행전 3:19~21; 미가 4:1; 이사야 2:2~4(회복이 예언됨)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7 장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상에서 거두어짐

- 구주께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곧 지상에서 거두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지상에 살아 계셨을 때 그분의 교회, 곧 유일하게 참된 교회를 세우셨다. 그분은 복음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복음 의식들을 권세로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다. 교회 조직을 통해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구주께서 승천하신 후 인간은 그분과 그분의 사도들이 확립한 의식과 교리를 변경했다. 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참된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인간은 각자 다른 교회를 조직하여 자신의 교회가 참되다고 주장하였고, 서로 상반되는 교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종교 문제로 많은 혼란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러한 배도 상태를 미리 내다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아모스 8:11~12)

- 아모스 8:11~12에서 말하는 기근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분의 참된 교회를 회복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 복음이 회복되는 준비를 하기 위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구주께서는 후기에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이사야 29:14)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영적인 암흑 속에서 살았다. 주후 1,700년경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 사람들은 이제 지상에는 계시와 참된 권세가 없으며 그리스도께서 조직하신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될 날이 이르렀다.

- 어떤 점에서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것은 “기이한 일”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계시

- 첫번째 시현을 보았을 때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웠는가?

1820년 봄에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날 때가 온 것이다. 어린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모든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인지 알고 싶었다. 그는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가 겸손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 것인지를 기도로 여쭙었다. 바로 그 아침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구주께서는 조셉에게 참된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다. 또한 그 당시 교회들이 따르는 신조가 “그가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말씀하셨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또한 7~18, 20절 참조)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시 하늘에서 계시가 오기 시작했다. 주님은 새로운 선지자를 택하셨고, 그때 이후로 하늘은 닫히지 않았다. 계시는 지금까지도 그분이 택하신 각 선지자를 통해 지속되고 있다.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회복되는 일에 기여한 사람이다.

- 첫번째 시현이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가 회복됨

-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이 회복되는 일은 왜 필요했는가?

복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다시 신권을 주셨다. 1829년, 침례 요한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부여했다.(교리와 성약 13편; 27:8 참조) 고대 교회 회장단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하나님 왕국의 열쇠들을 주었으며(교리와 성약 27:12~13 참조), 이후에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온 사자들이 더 많은 신권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다.(교리와 성약 110:11~16 참조) 회복을 통해 신권이 다시 지상에 주어졌다. 오늘날 이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은 침례와 같은 의식을 집행하고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을 인도할 권세를 갖는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조직되기 위해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1830년 4월 6일, 구주께서는 지상에 그분의 교회를 다시 조직하도록 지시하셨다.(교리와 성약 20:1 참조) 그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라고 일컬어진다.(교리와 성약 115:4 참조) 고대에도 그러했듯이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주님은 이 교회가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이며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교리와 성약 1:30)라고 말씀하셨다.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이자 이 교회의 “첫 장로”로 지지되었다.(교리와 성약 20:2~4 참조) 그 후에 제일회장단이 조직되었으며, 조셉은 회장으로 지지되었다. 이 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에는 뼈대밖에 세워지지 않았지만, 계속 성장하여 조직이 발전되었다.

이 교회 조직은 고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직분들로 구성되었다. 그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칠십인, 복음 전하는 자(축복사), 목사(감리 역원), 대제사, 장로, 감독, 제사, 교사, 집사가 포함된다.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는 이와 동일한 역원들이 있다.(신앙개조 제6조 참조)

선지자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지시에 따라 교회를 인도하며 교회 회장이 된다. 그는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을 인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교리와 성약 107:65, 91 참조) 회장에게는 보좌 두 명이 있어 그를 돕는다. 예수 그리

교사들에게: 간증을 하는 것은 영을 불러온다. 공과를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이 회복에 대해 간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인 십이사도는 세상 각 지역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 일을 조정한다. 이 외에 감리 감독단과 칠십인 정원회를 포함하여 특별한 임무를 받은 교회 본부 역원들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이 주는 지시에 따라 봉사한다.

신권 직분에는 사도, 칠십인, 축복사, 대제사, 감독, 장로, 제사, 교사, 집사가 있다. 이 직분들은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다.

이 교회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했다. 따라서 주님은 교회 내에 더 많은 조직 단위를 계시하셨다. 교회가 한 지역에서 완전히 조직 되면 스테이크라고 불리는 지역 단위 조직이 된다. 각 스테이크는 스테이크 회장과 두 보좌가 감리한다. 스테이크에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업을 돕는 고등 평의원 열두 명이 있으며, 스테이크 회장의 지시에 따라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가 스테이크 내에 조직된다.(본 교재 제14장 참조) 스테이크는 와드라고 불리는 더 작은 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감독과 두 보좌가 각 와드를 감리한다.

교회가 발전하고 있는 세계 각 지역에는 스테이크와 같은 조직인 지방부가 있다. 지방부는 지부라고 불리는 더 작은 단위 조직으로 나누는데, 지부는 와드와 같은 성격의 조직이다.

중요한 진리가 회복됨

- 교회 회복과 함께 다시 알려진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원리와 의식을 가르치고 행한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수로써의 침례,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이다.(신앙개조 제 4조 참조)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이 귀중한 진리들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에게 돌아왔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에는 분명하고 귀중한 복음 진리가 담겨 있다. 이후에도 많은 것이 계시되었으며 그것들은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경전으로 받아들여졌다.(본 교재 제10장 참조)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 중요한 진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로 된 완전한 몸을 갖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러하시다. 성신은 영으로 존재하는 인격체이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전세에서 살았다.
3. 신권은 복음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4. 우리는 아담의 범법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5. 어린아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8세)가 될 때까지는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
6. 하늘에는 세 가지 영광의 왕국이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사람들은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소망을 마음에 품었는지에 따라 보상 받을 것이다.
7. 신권의 인봉 권능으로 가족 관계가 영원할 수 있다.
8.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의식과 성약이 필요하며, 이것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

• 이러한 진리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임

•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1830년에 회복된 이래로 회원이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현재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국가에 이 교회 회원들이 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나라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조셉 스미스-마태 1:31) 이 교회가 지상에서 또다시 거두어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교회가 가진 사명은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수천 년 전에 주님께서서는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 영원히 설 것이라.”(다니엘 2:44)라고 말씀하셨다.

-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의 사업을 돕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사도행전 3:19~21; 요한계시록 14:6; 다니엘 2:44~45; 이사야 2:2~4; 니파이후서 3:6~15(회복이 예언됨)
- 교리와 성약 110편; 128:19~21; 133:36~39, 57~58(복음의 회복)
- 에베소서 2:20(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 교리와 성약 20:38~67(교회 역원들의 의무)
- 마태복음 24:14(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제 18 장

신앙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이다. 이것은 영적인 은사이며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선언했다.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오지 아니함이니라.”(모사이야서 3:12)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는]” 것이다.(엢마서 32:21; 또한 히브리서 11:1 참조)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활동의 동기가 된다.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공부하고 배우려 하겠는가.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과연 매일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농부가 추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씨앗을 뿌리겠는가. 우리는 매일 결과를 확인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히브리서 11:3 참조)

경전에는 신앙을 통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가 많다.

노아는 신앙으로 방주를 지어 가족을 홍수에서 구했다.(히브리서 11:7 참조) 모세는 홍해 물을 갈랐고(히브리서 11:29 참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다.(열왕기상 18:17~40 참조) 니파이는 기근을 일으켰으며(힐라만서 11:3~5 참

교사들에게: 본 장은 소제목 네 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소제목은 신앙에 대한 질문이다. 여러분은 이 질문들을 공과와 길잡이로 사용할 수 있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된 조별 토론을 하기에 적절하다면 반원들을 두 명에서 네 명으로 구성된 조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각 조에 이 장의 소제목 부분들을 서로 나누어 맡으라고 한다. 그런 후 각 반원에게 자신이 맡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권유한다. (1) 읽는다. (2) 소제목 질문에 답이 될 성구를 찾는다. (3) 그 부분과 관련된 경험을 생각해 본다. (4)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다른 조와 나눈다.



조), 또한 그 기근을 끝내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했다.(힐라맨서 11:9~17 참조) 바다가 잠잠해지고, 시현이 열리며,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 모든 일은 신앙의 힘으로 일어났다.

경전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신앙이란 선행을 하도록 우리 영혼 내부에서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강한 신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누구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온다.

- 여러분이 하는 일상 활동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일 중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신앙은 어떻게 여러분이 행하도록 이끄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여 그분께서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그분께 순종하는 제자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사도행전 4:12; 또한 모사이야서 3:17 참조) 사람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야곱은 가르쳤다.(니파이후서 9:23) 구주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삶에서 완전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신앙으로 유혹을 극복할 힘을 얻을 수 있다.(앨마서 37:33 참조)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을 갖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없다. 그분들을 믿는 신앙을 가질 때, 그분들이 보내신 성신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위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교회 부름을 받고 수행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의 가족 관계와 직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소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태복음 17:20)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기술들을 익히고 발전시키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다. 목공예와 직조, 그림 그리기, 요리, 도예, 또는 악기 연주와 같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그 기술을 공부하고 연습하며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향상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고 싶다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지자 엘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씨앗에 비유했다.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이제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했다.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이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

“이제 보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키워 주지 않겠느냐?”(엘마서 32:27~29)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바람을 가짐으로써 신앙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품은 소망과 바람, 그리고 필요 사항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신앙을 키울 수 있다.(엘마서 34:17~26 참조) 그러나 구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경전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라.”(야고보서 2:17)고 나와 있다.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한 남자는 자신이 하는 행위에서 신앙을 나타내 보였다.

이 남자는 경전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글을 읽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읽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 달라고 기도했다. 얼마 후, 한 교사가 그의 마을로 왔으며, 그는 그 교사에게 도움을 구했다. 그는 알파벳을 배웠다. 발음을 공부하고 글자를 조합하여 단어를 만드는 것도 배웠다. 곧 그는 간단한 단어를 읽게 되었고, 연습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주님께 자신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교사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 이 사람은 신앙과 겸손과 지식이 성장하여 나중에 교회에서 지부 회장으로 봉사할 정도가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신앙과 행위는 겹쳐져야 합니다. 주님께 지식을 달라고 간구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구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현명한 일입니까!”(*Faith Precedes the Miracle* [1972년], 205쪽)

신앙에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신앙으로 씨앗을 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이 피는 기적을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 오해하여 그 과정을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김볼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강한 체력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들며 설명을 계속했다.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서 번영하기를 바라고, 금식과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주님의 다른 계명도 지키지 않으면서 제때에 비가 내리고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142쪽 참조)*

우리의 신앙을 키우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이다. 교회 모임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한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그러하도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 우리의 신앙과 행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신앙에는 어떤 축복들이 따르는가?

신앙의 은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며, 천사가 나타나고, 다른 영의 은사가 주어지며, 기도가 응답되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모로나이서 7:25~26, 36~37 참조)

“신앙은 ……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은사, 지혜, 지식, 기적, 병 고침, 방언, 방언의 통역 등을 수반합니다. 신앙이 지상에 나타나면 이 모든 것도 나타나고, 신앙이 지상에서 사라지면 이 모든 것도 사라집니다. 이것들은 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아는 것은 곧 영생입니다.”
(*Lectures on Faith* [1985년], 83쪽)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더욱 강해진 경전 속 인물들에는 누가 있는가? 여러분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보충 성구

- 히브리서 11장; 앨마서 32장(신앙의 본질)
- 출애굽기 14:19~22(홍해 물을 가름)
- 창세기 6~8장(노아와 홍수)
- 마태복음 8:5~33(병이 치유됨, 폭풍이 잠잠해짐, 신앙의 기적)
- 마가복음 5:25~34(신앙으로 치유됨)
- 로마서 10:17(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움)

회개

제 19 장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함

- 죄란 무엇인가? 죄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진다. 아담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언제나 회개가 필요했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을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모세서 6:57)

우리는 성장하고 진보하기 위해 지상에 왔다. 이것은 일생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짓는다.(로마서 3:23 참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한다. 때로는 무지해서, 때로는 나약해서, 또 때로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우리는 죄를 짓는다. 성경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으며]”(전도서 7:20)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요한1서 1:8)이라고 나와 있다.

죄란 무엇인가?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야고보서 4:17) 요한은 “모든 불의”(요한1서 5:17), “불법을 행하[는]”(요한1서 3:4) 것이라는 말로 죄를 묘사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모세서 6:57)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완전한 삶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



회개하여 죄에서 자유로워짐

•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 마련된 방법이다. 죄는 우리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더디게 만들고,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회개할 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고통이 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를 땀처럼 몸 밖으로 나오게 하는 ……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

“…… 이 세상에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짐을 지심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셨을 때, 그분이 지셔야 했던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954~1956년], 1:130~131)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큰 용기와 힘을 내야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려야 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계명에 따라 살고자 하는 불굴의 노력이 수반된다.

회개의 원리

• 회개의 원리란 무엇인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회개에는 왕도가 없으며, 용서에 특권이라는 길은 없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키가 크건 작건, 왕자건 거지건, 왕이건 평민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과정을 따라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38쪽)

교사들에게: 철판을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과 함께 회개의 원리를 토론할 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 원리들을 철판이나 큰 종이에 쓰도록 부탁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해야 함

회개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개가 불가능하다.

엘마는 선교사 부름에 불성실하고 중대한 죄를 지은 자신의 아들 코리애틀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내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 지극히 작은 점이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엘마서 42:29~30) 경전에는 우리의 죄악을 더 이상 정당화하지 말라는 충고가 담겨 있다.(누가복음 16:15~16 참조)

우리 삶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자신과 주님 앞에 숨길 수는 없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애통해야 함

죄를 인정하는 것에 더하여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애통해야 한다. 우리의 죄가 무서운 것이라고 느껴야 하며,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경전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37)

- 고린도후서 7:9~10 및 몰몬서 2:10~14를 공부한다. 단순히 후회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점에서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죄를 버려야 함

진정으로 죄를 애통해 한다면 그 죄를 버려야 한다. 어떤 것을 흠쳤다면 더 이상 흠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며, 거짓말을 했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간음을 범했다면 그것을 중지해야 한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교리와 성약 58:43)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함

죄를 고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명하셨다. 죄를 지은 사람이 고백한다면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

다. “나 주가 죄를 용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니라.”(교리와 성약 61:2)

우리는 주님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우리의 위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죄인 간음, 간통, 동성애,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학대, 불법 마약 판매나 복용과 같은 죄 등은 신권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 덜 중대한 죄는 우리 자신과 주님 사이에만 관계된다. 이러한 죄는 개인적으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다.

보상해야 함

회개하는 과정 중 하나는 보상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 사람은 훔친 것을 돌려주어야 하며, 거짓말을 했을 때에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죄를 언급하지 않으실 것이다.(에스겔 33:15~16 참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함

회개에서 지극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 마음에서 증오와 괴로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는다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제3니파이 13:14~15 참조)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는 자는 주 앞에서 정죄 받음이니, 더 큰 죄가 그에게 머물러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64:9)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

우리는 완전한 회개를 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교리와 성약 1:32 참조) 십일조를 바치지 않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또는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완전하게 회개한 것이 아니다. 교회 신권 지도자들을 지지하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하다면 회개하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회개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첫째, 사람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르렀으면 그 다음에는 발전된 현재 자기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완전한 용서를 받기 위해 그것이 필요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43쪽)

- 회개는 나열되어 있는 단순한 단계나 기계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가르침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회개는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 회개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회개를 할 때에야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또한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엘마는 많은 죄를 저질렀던 과거를 회개한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이야기했다.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음이라.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 나의 기쁨같이 것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엘마서 36:12~14, 17~21)

- 회개와 용서는 어떻게 엘마에게 기쁨을 가져왔는가?

회개를 미루는 것의 위험

- 우리가 회개를 미룬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는가?

선지자들은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엘마서 34:32)라고 선언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매일 회개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했던 언행을 돌아보고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매일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는 매일 조금씩 완전함에 가까워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얻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엘마가 느꼈던 것과 같이 감미롭고 훌륭할 것이다.

보충 성구

- 마태복음 9:10~13; 누가복음 13:3; 에스겔 18:30(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
- 엘마서 7:21(부정한 것은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없음)
- 고린도후서 7:9~10(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 모사이야서 4:10~12(회개의 단계)
- 이사야 1:18; 모사이야서 26:28~32(회개는 용서를 가져옴)
- 고리와 성약 58:42(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
- 니파이후서 9:23(회개는 구원에 필수적임)
- 니파이후서 2:21(육체로 있는 동안의 회개)
- 고리와 성약 19:15~20(주님은 우리가 그분처럼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고 명하셨음)



침례

제 20 장

침례 받으라는 계명

- 왜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배우고 순종해야 하는 일정한 복음 원리와 의식이 있다. 복음 원리란 참된 신앙 또는 가르침이며, 의식은 의례 또는 예식을 말한다. 복음 원리 중 첫째되는 두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회개이다. 침례는 복음의 첫째 되는 의식이다. 주님께서 그분의 사도들에게 주신 가르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우리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 받아야 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회개하며,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는다.

경전에서 우리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마가복음 1:4)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사도행전 2:38) 개종한 바울에게 아나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 ……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사도행전 22:16)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우리는 침례 받아야 함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37)

교사들에게: 시작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본문 내용을 직접 찾으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게 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읽은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다.

성신의 은사를 받기 전에 침례를 받아야 함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내게로 돌이켜 …… 네 모든 범법[죄]을 회개하고 ……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으면, 너는 성신의 은사를 받게 되리니.”(모세서 6:52)

순종을 증거하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함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침례를 받으셨다.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마태복음 3:15) 위해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 …… 아버지께 증거[하라.]”(니파이후서 31:12~13)

우리는 해의 왕국에 가기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함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제3니파이 11:33~34) 침례는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길에 있는 관문이다.(니파이후서 31:17~18 참조)

침례의 정확한 방법

• 우리는 어떻게 침례 받아야 하는가?

침례의 정확한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합당한 신권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 “침례를 받으러 나온 남자 또는 여자와 함께 물 속에 내려가 …… 그 남자 또는 여자를 물 속에 잠근 다음 물 밖으로 다시 나와야”(교리와 성약 20:73~74) 한다고 계시해 주셨다. 침례 의식은 반드시 침수하여 집행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물 속에 잠기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망과 매장, 부활을 상징한다고 가르쳤다.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로마서 6:3~5)

합당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침수하여 침례를 주는 것만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침례의 방법이다.

- 침례를 베푸는 권세는 왜 중요한가?
- 침수로써의 침례는 구주께서 매장되시고 부활하신 것과 어떤 점이 같은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에 침례를 받음

-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가?

8세가 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모두 침례를 받아야 한다. 몇몇 교회는 어린 아이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구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마태복음 19:14)

선지자 몰몬은 어린 아이에게는 죄를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침례가 필요하지 않다.(모로나이서 8:9~22 참조)

그 외 모든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침례 의식을 받고 침례 의식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

- 여러분은 유아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 주겠는가?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 성약을 맺음

경전에서 침례에 관해 가르치는 구절을 여러 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한 성구를 보면, 선지자 엘마는 신앙과 회개가 침례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가르쳤다. 그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성약을 맺는다고 가르쳤다. 그 성약에서 우리

는 일정한 것들을 행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답으로 우리를 축복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엘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를 소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기꺼이 서로를 돕고 위로해야 한다.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를 행하고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엘마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라, 여기에 물문의 물이 있으니 ……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모사이야서 18:8, 10) 그러자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치며 그것이 바로 그들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엘마는 물문의 물에서 침례를 베풀었다.(모사이야서 18:7~17 참조)

엘마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주님과 다음과 같은 성약을 맺는다고 가르쳤다.

1.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2. 서로의 짐을 나눈다.
3.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4.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은 우리가 침례를 받고 침례 성약을 지킨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사도행전 2:38; 교리와 성약 49:13 참조)
2.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더욱 풍성히 부어주신다.(모사이야서 18:10 참조)
3. 매일 성신의 인도와 도움을 받게 해 주신다.(사도행전 2:38; 교리와 성약 20:77 참조)
4. 첫째 부활에 나아오게 해 주신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5. 영생을 주신다.(모사이야서 18:9 참조)

- 여러분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새로운 시작, 침례

우리는 침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3:3~5 참조) 하나님께서는 이 원리를 아담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다.

“물과 피와 내가 만든 영으로써 너희가 세상에 태어나, 그리하여 흠에서 생명이 된 만큼, 참으로 그와 같이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니.”(모세서 6:59)

사도 바울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로마서 6:4) 침례 받을 때 우리가 얻는 가장 위대한 축복 중 하나는 영원한 목표를 향해 우리의 길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여러분의 침례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는가?

보충 성구

- 니파이후서 31:4~7(침례의 목적과 필요성)
- 제3니파이 11:21~27; 교리와 성약 20:72~74(침례를 베푸는 방법)
- 사도행전 2:38~39(죄 사함을 받기 위해 침례를 받음)
- 모로나이서 8:8~12; 교리와 성약 20:71~72(어린 아이에게는 침례가 필요하지 않음, 회개하는 모든 이에게 침례가 필요함)
- 엘마서 7:14~16(침례는 씻음을 받고 영생의 성약으로 들어가는 것임)



성신의 은사

제 21 장

성신

제7장에서 우리는 성신이 신회의 한 구성원임을 배웠다. 그분은 “영의 인격체” (교리와 성약 130:22)이시며, 살과 뼈로 된 몸을 갖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은 동시에 모든 곳에 미칠 수 있다. 성신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를 정결하게, 즉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성신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더 이상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신다.

성신과 성신의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이다. 본 장에서 우리는 성신의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이 위대한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것이다.

성신의 은사

- 성신과 성신의 은사는 어떻게 다른가?

성신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며, 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은 사람들이 성신으로부터 지속적인 인도와 영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특권이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초대 사도들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신의 은사를 누린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은사의 모든 충만함, 권능, 위대함, 그리고 영광을 믿는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97~98 쪽 참조)

교사들에게: 여러분은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1) 이 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충 성구들을 읽고, 우리가 필멸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동안 성신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토론한다. (2) 성신의 은사를 받아서 생활 속에서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이야기한다. (3) 부모가 자녀에게 성신의 은사를 이해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신은 어떻게 우리와 교통하는지에 대해 토론한다.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일시적으로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는 있다.(교리와 성약 130:23 참조) 그러나 그 사람이 침례와 안수례를 통한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인도는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성신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됨을 알게 된 기록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고넬로는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성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만일 고넬료가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성신이 그를 떠났을 것이라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97쪽 참조)

오늘날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몰몬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모로나이서 10:4~5 참조) 그러나 그 최초의 간증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그들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처럼 지속적으로 확신을 갖지는 못한다.

성신의 은사를 받음

- 성신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안수례를 통해 이 교회 회원으로 확인되고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신앙을 가진 자를 너희는 안수함으로써 나의 교회 안에서 확인할지니, 그리하면 나는 그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리라.”(교리와 성약 33:15)

승인을 받은 교회의 모든 합당한 장로는 다른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장로들이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신으로부터 영감과 인도를 받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각자 “성신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충실하며 이 하늘의 사자에게 도움을 구할 때에만 성신이 우리에게 온다는 의미이다.

성신의 도움을 받기에 합당하려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늘 깨끗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함

성신은 보통 우리와 조용히 교통한다. 성신의 영향력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불린다.(열왕기상 19:9~12; 힐라맨서 5:30; 교리와 성약 85:6 참조)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성신은 여러분이 느끼는 음성으로 말하며 이것은 느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 우리가 영의 속삭임을 ‘듣는다’고 말할 때, 대체로 사람들은 영적인 느낌을 ‘저는 …… 느낌을 받았어요.’라는 말로 묘사합니다.” 패커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 영의 음성은 조용히 말하며,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거나, 여러분에게 주의와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94년 10월, 77쪽; 또는 *Ensign*, 1994년 11월호, 60쪽)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 중 하나

-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이다. 성신의 은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의 교회가 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신은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니파이후서 32:5 참조) 성신은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우리는 영의 은사를 누릴 수 있다.(본 교재 제22장 참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이 위대한 은사는 또한 우리 마음에 화평을 가져다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고린도전서 2:9~12 참조)

- 성신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인 이유는 무엇인가?

보충 성구

- 고린도전서 3:16~17; 교리와 성약 130:22~23(성신은 충실한 자와 함께 거함)
- 사도행전 19:1~7(고대에 성신의 은사가 부여됨)

- 모로나이서 8:25~26(성신을 받는 방법)
- 모로나이서 10:5(성신은 진리를 증거함)
- 모사이야서 5:2(성신은 마음을 변화시킴)
- 엘마서 5:54(성신은 성결케 함)

영의 은사

제 22 장

영의 은사

-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각자 침례를 받은 후에 안수례로 성신의 은사를 받는다. 우리가 충실하다면 성신의 영향력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성신을 통해 영의 은사라고 불리는 영적인 능력을 축복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충실한 이들은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느니라.”(교리와 성약 46:26) 이 은사는 우리가 복음 진리를 알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은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현명하게 사용하기 위해 우리는 그 은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은사에 대응하여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조품을 어떻게 구분해 낼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경전에는 여러 가지 영의 은사에 대해 언급되어 있는데, 이 은사들은 지상에 참된 교회가 존재할 때마다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졌다.(마가복음 16:16~18 참조) 영의 은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방언의 은사(교리와 성약 46:24)

때때로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에 주님께서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축복해 주시기도 하신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본 장에 있는 사진 참조)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했던 아론조 에이 핑클리 장로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했지만 네덜란드 말을 아주 조금밖에 이해하고 말하지 못했다. 그가 이전에

교사들에게: 각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 장에 나와 있는 영적인 은사를 살펴보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은사 두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그들에게 각자 선택한 은사에 관한 해당 단락과 경전 구절을 공부하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공과를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공부할 시간을 준 후에 배운 것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방문했던 어느 가정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한 여성이 문을 열고 그에게 네덜란드 말로 매우 화를 내며 말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그는 그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힝클리 장로는 그녀에게 네덜란드 말로 간증하고 싶은 강한 소망을 느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네덜란드 말이 아주 분명하게 흘러 나왔다. 그러나 돌아와서 선교부 회장에게 자신이 네덜란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했지만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충실한 회원들은 방언의 은사를 축복받았다.(조셉 필딩 스미스, *Answers to Gospel Questions*, 조셉 필딩 스미스 이세 편, 제5권 [1957~1966년], 2:32~33)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교리와 성약 46:25)

이 은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주어진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뉴질랜드 성도들에게 통역자 없이 말씀하고 싶은 큰 소망을 품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영어로 말씀했다. 맥케이 회장은 약 40 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이 짓는 표정과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고, 그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Answers to Gospel Questions*, 2:30~31 참조)

번역하는 은사(교리와 성약 5:4)

만일 우리가 교회 지도자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번역하라는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자신의 실제 능력을 초월하여 번역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은사를 받기 위해 의롭게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또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여 그 번역이 옳은 것임을 알게 하신다.(교리와 성약 9:8~9 참조)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할 때 번역하는 은사가 있었다. 이 은사는 그가 영의 지시를 따를 때에만 주어졌다.

지혜의 은사(교리와 성약 46:17)

우리 중에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복음 원리를 생활에서 실천할 때 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야고보서 1:5~7)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라,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에게 펼쳐지리니.”(교리와 성약 6:7)

지식의 은사(교리와 성약 46:18)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모든 존재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다.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에 대한 지식은 성신께서 계시해 주신다.(교리와 성약 121:26 참조) 이 율법에 대해 무지하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교리와 성약 131:6 참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느 사람이 이 생에서 자신의 부지런함과 순종을 통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예지를 얻는다면, 장차 올 세상에서 그 만큼의 유익을 얻으리라.”(교리와 성약 130:19) 주님은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사업에 대해 많이 배우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하늘과 땅, 전에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있게 될 일, 국내와 외국에 있는 일에 관하여 배우기를 바라신다.(교리와 성약 88:78~79 참조) 그러나 자기 혼자서만 연구하여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신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배우고는 있더라도 절대 진리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디모데후서 3:7 참조) 우리가 성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식을 얻을 때, 그분의 영은 우리 생각과 마음에 말씀하신다.(교리와 성약 6:15, 22~24; 8:2; 9:7~9 참조)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은사(모로나이서 10:9~10)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진리를 설명하고 간증하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 이 은사는 우리가 공과반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되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사용된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가르칠 때에도 이 은사가 도움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은사(교리와 성약 46:13)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 부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받은 은사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역시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성령의 속삭임을 통해 간증을 얻을 수 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신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46:13 참조) 계시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에 간증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03년], 166쪽)

다른 사람의 간증을 믿는 은사(교리와 성약 46:14)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참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신앙으로 구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것이 참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에 평강을 말씀해 주실 것이다.(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심지어 선지자까지도 그가 실제로 계시를 받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니파이는 부친이 꾸었던 꿈을 자신도 보고 느낄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이 참된지 알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니파이전서 10:17~19 참조)

예언의 은사(교리와 성약 46:22)

과거, 현재, 또는 미래에 관하여 참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선지자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린도전서 14:39 참조) 우리는 우리가 받은 부름과 자신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지만,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계시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 자신이 감리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계시를 받는 것은 하늘의 질서에 어긋난다. 진실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지 않는 어떠한 계시도 받지 않을 것이다.

병 고침의 은사(교리와 성약 46:19~20)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 모두는 병에 걸렸을 때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을 행

사할 수 있다.(교리와 성약 42:48 참조) 신권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이 주어질 수 있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교리와 성약 46:21)

주님은 여러 차례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분의 백성을 축복하셨다. 유타 개척자들이 첫 농작물을 심었을 때,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농사를 거의 그르치게 되었다. 개척자들은 주님께 농작물을 지켜 달라고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갈매기 떼를 보내어 메뚜기를 잡아먹게 하셨다. 도움이 필요할 때 신앙으로 구하면,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경우,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마태복음 17:20; 교리와 성약 24:13~14 참조)

신앙의 은사(모로나이서 10:11)

야렛의 형제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 신앙을 통해 다른 은사들을 받았다. 그의 위대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이더서 3:9~15 참조) 신앙 없이는 어떠한 은사도 받을 수 없다. 모로나이는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시리니.”(몰몬서 9:21) 우리는 신앙을 키우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찾아내어 그것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부족하여 이러한 영의 은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모로나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없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방언으로 말할도 없고, 방언을 통변함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한 자요, 읽었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몰몬서 9:7~8)

-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은사를 발전시킬 수 있음

- 우리는 어떻게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구[할]”(교리와 성약 46:8)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두가 다 모든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많은 은사가 있고 또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짐이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주어지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주어지나니,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교리와 성약 46:11~12)

우리는 은사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와 금식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은사를 구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46:8 참조) 때때로 축복사의 축복은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은사를 받기 위해 순종하고 충실해야 하며, 그런 후에 그 은사를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부족한 신앙을 위해 어떤 것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지나니.”(교리와 성약 46:9)

- 여러분을 강화시켜 주거나 주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데 도움이 될 영적인 은사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사를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는가?

영의 은사를 모방하는 사탄

- 우리는 참된 영의 은사와 사탄의 모방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사탄은 방언, 예언, 시현, 병 고침의 은사와 다른 기적들을 모방할 수 있다. 바로의 궁전에서 모세는 사탄이 만든 모조품들과 겨루어야 했다.(출애굽기 7:8~22 참조) 사탄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병 고치는 자,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를 믿기를 바란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실질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분별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다. 악마는 빛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다.(니파이후서 9:9 참조)

사탄은 우리가 진리에 대한 판단력을 잃게 하여 참된 영의 은사를 구하지 못하게 한다. 무당, 점성가, 점술사, 마술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할 지라도 사탄의 영감을 받는 존재들이다. 그들의 행위는 주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이사야 47:12~14; 신명기 18:9~10 참조) 우리는 사탄의 능력과 결합된 모든 것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영의 은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은사를 성스럽게 여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일들을 자랑하지 말며, 세상 앞에서 그 일들을 말하지 말라. 이는 이 일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너희에게 주어짐이니라.”(교리와 성약 84:73) 우리는 영적인 은사가 성스러운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6:10 참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대신 우리가 “받는 어떠한 축복에 대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교리와 성약 46:32)

보충 성구

- 제3니파이 29:6~7(은사를 부인하는 자들의 운명)
- 모로나이서 10:7~19(신앙에 따른 은사)
- 제3니파이 26:17; 27:20; 교리와 성약 84:64(침례 받을 때 주어지는 은사)
- 교린도전서 12장(고대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있었던 영의 은사)
- 교리와 성약 46:9~26(오늘날 교회에 있는 영의 은사)

성찬

제 23 장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심

- 성찬 상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에 따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은 자주 모여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셨다.

성찬은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기억하도록 돕는 거룩한 신권 의식이다.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우리는 빵과 물을 취하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분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이다. 성찬을 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스러운 성약을 새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바로 전에 그분의 사도들을 한 다락방으로 불러모으셨다. 그분은 이제 곧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임을 아셨고,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분은 그들이 항상 자신을 기억하여 강하고 충실하기를 바라셨다.

이에 그분은 자신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분은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6:22) 그 다음에 주님께서서는 포도주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사도들에게 건네며 그것을 마시라고 하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내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하여 흘린 …… 내 피를 기억하는 것이니라.”(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6:24; 또한 마태복음 26:26~28; 마가복음 14:22~24; 누가복음 22:15~20 참조)

구주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미대륙을 방문하셔서 니파이인들에게 동일한 의식을 가르치셨다.(제3니파이 18:1~11; 20:1~9 참조) 후기에 교회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은 또다시 그분의 백성에게 그분을 기억하는 성찬을 취하라고 명하시며 이



Simon Dewey

렇게 말씀하셨다. “교회는 주 예수를 기념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일 필요가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20:75)

성찬은 어떻게 집행되는가?

경전에는 성찬을 집행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교회 회원들은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취한다.(교리와 성약 20:75 참조) 성찬은 이에 필요한 신권 권세를 소유한 사람이 집행하는데, 제사 또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떡을 떼어 무릎을 꿇고 그것을 축복한다.(교리와 성약 20:76 참조) 그런 후 집사 또는 다른 신권 소유자가 성찬 떡을 회원들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나서 제사 또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물을 축복하면, 그것 역시 회원들에게 전달된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에는 제사들에게 포도주를 주셨지만, 후기에 주신 계사에서 그분은 우리가 성찬 중에 그분을 기억한다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27:2~3 참조) 오늘날 후기 성도들은 포도주 대신에 물을 마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개의 성찬 기도문을 계시해 주셨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우리가 무엇을 약속하며, 또한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떡을 축복하는 기도문이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떡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옵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7)

다음은 물을 축복하는 기도문이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

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교리와 성약 20:79)

성찬 의식은 매우 간결하고 경건하게 집행된다.

- 성찬 기도문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각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성찬을 취하며 성약을 새롭게 함

-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어떤 성약을 새롭게 하는가? 우리가 그 성약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우리는 매번 성찬을 취할 때마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한다. 성약은 주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에 맺는 성스러운 약속이다. 우리가 맺는 성약은 성찬 기도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 성약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꺼이 그분과 그분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가 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인다. 우리는 그분과 이웃에게 봉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겠다고 성약한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느낌과 행동은 그분과 그분의 사명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받은 것이며(교리와 성약 20:37; 모사이야서 18:6~10 참조), 성찬을 취하면서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취하는 방법을 보여주셨으며(제3니파이 18:1~12 참조),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서 그 방법을 따를 때 우리 죄를 사함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조셉 스미스 역 성경, 마태복음 26:24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약을 지킨다면 그분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식과 신앙, 능력, 의로움을 갖게 될 것이다.

- 우리는 주중에도 이러한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

- 성찬을 취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성찬을 취할 때 구주의 속죄를 기억하기 위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성찬을 취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어느 누구도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성찬을 취하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함을 의미한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누가 범법하였거든 그가 화해를 이루기 전에는 그로 취하지 못하게 하라.”(고리와 성약 46:4) 주님께서서는 열두 명의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제3니파이 18:28~29)

성찬식 동안 우리는 마음속에서 모든 세상적인 생각을 떨쳐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구주의 속죄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더욱더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해야 한다.

성찬을 취하기 전에 우리가 완전해질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있어야 한다. 성찬을 취하는 태도는 성찬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순결한 마음으로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다.

- 여러분은 왜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가?

보충 성구

- 고린도전서 11:27~29(합당하게 성찬을 취함)
- 요한복음 4:5~14(예수님은 생수이심)
- 요한복음 6:30~35(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심)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잘 준비되어 경건하게 성찬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안식일

제 24 장

안식일의 의미

- 안식일이란 무엇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애굽기 20:8; 또한 교리와 성약 68:29 참조)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쉬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휴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성약의 표징이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창세기 2:2~3) 이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안식일은 매년 7일째가 되는 날이며 우리가 일상의 노동에서 휴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다.

안식일의 목적

- 안식일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안식일의 목적을 설명한다면 뭐라고 말하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가르치셨다.(마가복음 2:27 참조) 안식일의 목적은 일주일 중 일정한 날을 정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것이다. 단지 일을 쉬는 날인 것만은 아니다. 이날은 예배를 드리며 경건하게 하루를 보내는 성스러운 날이며, 일상의 활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면서 자유롭게 영적인 일을 숙고하는 날이다. 이날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우리 영혼을 영적인 것들로 채워야 한다.

- 매주 안식일을 위해 준비할 때 안식일의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안식일의 역사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성별하셨다.(창세기 2:2~3 참조) 그 이후로 성스러운 일곱째 날의 전통은 지상에 사는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지켜져 왔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새롭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출애굽기 20:8)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성약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징이었다.(출애굽기 31:12~13, 16; 이사야 56:1~8; 예레미야 17:19~27 참조)

그러나 일부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관하여 불필요한 많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식일에 사람이 어느 거리만큼만 길을 걸을 수 있는지, 어떤 종류의 매듭을 맺을 수 있는지 등을 정했다. 어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제정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니파이인들 또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지켰다.(에이름서 1:5 참조)

현대에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68:29 참조)

주님의 날

-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은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부터는 일요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로 성스럽게 지켜왔다.(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참조) 그때부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켰다. 두 경우 모두 옛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쉬며 예배드리는 날이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요일, 즉 주님의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계명을 직접 말씀해 주셨다.(교리와 성약 59:12 참조)

-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 예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은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시며 그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1831년,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에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치며,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다.(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에게 일상의 일을 쉬라고 요구하신다. 이 말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까지도] ……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애굽기 20:10) 우리의 선지자들은 안식일에 물건 사기, 사냥, 낚시, 운동 경기 관람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해 왔다.

그러나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은 우리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다.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한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킴볼 [2006년], 170쪽 참조)

우리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선지자 이사야는 쾌락을 피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권고했다.(이사야 58:13)

우리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의로운 일들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경전과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을 읽으며 병자, 연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방문한다. 영을 고양시키는 음악을 듣고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가족 역사 기록과 개

교사들에게: 여러분은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시간을 주어 여러분이 던진 질문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도울 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답변을 부탁한다.

인 역사를 준비한다. 가족과 함께 신앙을 발전시키는 이야기, 간증, 영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선교사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한다. 가정에서 자녀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안식일에 기타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지 결정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 볼 수 있다. 이것은 나에게 영감을 주며 나를 고양시키는 일인가? 이것은 주님께 경의를 나타내 보이는 활동인가? 이것은 내 생각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가?

우리는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요구 받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이것을 피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일을 하면서도] 최대한 예배하는 영이 마음속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한다.

-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부모나 조부모라면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울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안식일을 지킬 때 받는 축복

-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어떤 축복들을 받는가?

안식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큰 축복들을 받을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킨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땅의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공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맛을 위하여 또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영혼을 활기 있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9:16~19)

보충 성구

- 출애굽기 31:16~17(안식일은 주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맺는 영원한 언약임)
- 모사이야서 13:16~19; 18:23; 출애굽기 35:1~3; 레위기 26:2~4, 6, 12(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킴)
- 누가복음 6:1~11(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음)
- 누가복음 13:11~17; 요한복음 5:1~18(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범)



금식

제 25 장

올바르게 금식하는 방법

- 우리는 금식이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담 시대 이래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금식을 해왔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해 우리는 금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누가복음 4:1~4 참조) 후기에 받은 계시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도 그분의 백성이 자주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88:76 참조)

금식이란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한다. 이따금씩 하는 금식은 우리 몸에 이롭고 우리 정신이 더욱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이 된다.

구주께서는 목적이 있는 금식은 음식과 물을 취하지 않고 견디는 것 이상을 뜻한다고 가르치셨다. 또한 금식할 때 우리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집중시켜야 한다.

우리는 금식할 때 기도해야 함

기도는 금식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기도와 금식은 경전 곳곳에서 함께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진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금식해야 하며, 기도로 금식을 시작하고 마쳐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금식해야 함

금식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약점이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때때로 가족이 병이 들어 축복이 필요한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도움이나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할 수 있다.(모사이야서

교사들에게: 여러분은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을 두 명 내지 네 명으로 나누어 조를 편성하고 금식이 즐거운 경험이 되게 하는 방법을 조별로 토론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후 다 함께 칠판이나 큰 종이에 각자가 내놓은 견해들을 열거해 본다.

27:22~23 참조) 물문경의 선지자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금식을 통해 사물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엘마서 5:46)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금식할 수 있다. 금식은 슬픔과 상심에 빠져 있을 때 위안을 주며(엘마서 28:4~6 참조), 겸손해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한다.(힐라맨서 3:35 참조)

우리는 금식하는 목적을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여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 하려 함이라”(마태복음 6:16~18)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금식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을 알려서는 안 된다.

- 금식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우리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금식일

후기 성도들은 매달 특정 일요일을 금식일로 정하여 지킨다. 이날 우리는 두 끼를 연속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토요일 저녁에 식사를 했다면 일요일 저녁 식사 때까지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다.

신체 여건상 금식을 할 수 있는 모든 회원은 금식을 해야 한다. 자녀가 침례를 받은 후에는 금식을 하도록 권해야 하지만,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 금식일은 우리가 금식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특별한 날이다. 이날은 우리 죄를 용서받고 결점을 극복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교회 회원들은 금식 주 일요일에 함께 모여 성찬을 취한다. 그들은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면서 서로를 강화한다.

- 여러분은 금식 간증 모임에서 간증을 나누었을 때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금식 헌금

- 우리는 왜 금식 헌금을 바치는가?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매달 금식을 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하셨다. 이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올바른 신권 권세를 통해 두 끼에 해당하는 돈을 바치는 것이다. 이때 우리는 가능한 한 후하게 바쳐야 한다. 금식 헌금으로 우리는 가난한 형제 자매를 돕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된다.

금식할 때 축복을 받음

- 올바르게 금식할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금식하여 궁핍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기록했다. 우리는 금식하며 이웃을 도울 때 평화를 얻고 더욱 건강해지며 영적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약속을 받는다. 이사야는 우리가 금식할 때 다음과 같은 축복이 온다고 말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이사야 58:8~9)

금식은 우리 삶을 향상시키고 큰 힘을 준다. 금식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해주기 때문에 다른 복음 원리들에 따라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식은 자제를 가르침

금식은 내적인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올바르게 금식할 때 식욕과 걱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제력이 있음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좀 더 강해진다. 우리가 자녀에게 금식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은 앞으로 삶에서 겪을 큰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게 될 것이다.

금식은 영적인 힘을 줍

현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 우리의 신앙이 발전한다. 그 신앙으로 우리는 더 큰 영적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물몬경의 선지자) 엘마는 기적으로 개종한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몇 년 후에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이 신앙을 강화하고 영적인 힘을 크게 발전시킨 것을 알고는 무척 기뻐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엘마서 17:3) 되었기 때문이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14년 동안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그들의 말에 힘을 더해 주었다. 이로써 그들은 선교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엘마서 17:4 참조)

구주는 올바르게 금식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태복음 6:18)

- 금식은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저항하고, 계시를 받고, 의롭게 행동하도록 영적인 힘을 키워 줄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누가복음 2:37; 엘마서 45:1(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함)
- 이사야 58:3~11(올바른 금식)
- 모사이야서 27:19, 23(병자를 위한 금식)
- 제3니파이 27:1~3; 출애굽기 34:27~28(계시와 간증을 위한 금식)
- 엘마서 6:6; 17:9(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금식)
- 사도행전 13:2~3(교회 역원을 선택하기 위한 금식)
- 모사이야서 4:26(궁핍한 사람을 도울 때 죄 사함이 유지됨)

희생

제 26 장

희생의 의미

희생은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우리의 시간, 지상에서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힘 등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복음 6:33)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희생을 치른다.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는지에 대해 시험을 받는다.

-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희생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고대에 지켜졌던 희생의 율법

- 고대에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지켜던 희생의 율법은 왜 중요했는가?

아담과 이브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백성들은 희생의 율법을 지켰다. 그들은 양 떼의 첫 새끼를 희생으로 바치라는 명을 받았었다. 이때 사용되는 짐승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했다. 이 의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으로서 그분 스스로를 직접 바치실 것이었다.(모세서 5:5~8 참조)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르침 받았던 대로 이 지상에 오셔서 몸소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분의 희생 덕분에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육체적인 사망에서 구원받을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본 교재 제12장 참조)

교사들에게: 각 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각 장 어느 부분을 다루어야 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으로 피를 흘리는 희생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한 외적인 희생은 이제 성찬 의식으로 대체되었다. 성찬 의식은 우리에게 구주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을 상기시키기 위해 주어졌다. 우리는 자주 성찬을 취해야 한다. 떡과 물의 상징은 구주의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상기시켜 준다.(본 교재 제23장 참조)

- 속죄를 위대한 최후의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전히 희생해야 함

-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희생의 율법을 지키는가?

피 흘림의 희생은 끝났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다른 종류의 제물을 요구하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 너희의 번제를 폐할지니 ……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제3니파이 9:19~20)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깊이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주님께 희생해야 함

- 왜 사람들은 기꺼이 희생하려 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기록했다.(로마서 12:1 참조)

살아 있는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시온을 세우려 힘쓰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바쳐야 한다.(니파이전서 13:37 참조)

한 젊은 부자 관리는 구주께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몹시 근심했다. 큰 부자

인 그는 자신이 소유한 부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누가복음 18:18~23 참조; 또한 본 장에 있는 그림 참조)

그 젊은 관리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시험을 받았을 때 자신의 세상적인 재물을 기꺼이 희생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바쳤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마태복음 4:19~20)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일상 활동들을 주님께 희생으로 바칠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희생과 번제가 요구되었던 시대에 지상에 살았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그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으므로, 그 명은 아브라함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물을 드릴 장소인 모리아 산을 향해 먼 길을 떠났다. 그 여행은 3일 동안 계속되었다. 아브라함의 심경과 번민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라. 그는 아들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다. 모리아 산에 도착하자 이삭은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제단을 쌓을 장소로 올라갔다. 이삭이 말했다. “내 아버지여 ……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놓았다. 그리고는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혔다.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 그 순간, 주님의 사자가 그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브라함아 ……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세기 22:1~14 참조)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하려 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어떤 희생의 모범을 보았는가? 조상의 삶과 이 교회의 초기 회원들의 삶에서,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희생의 모범을 보았는가? 이러한 모범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됨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만 하나님 면전에서 살 수 있을 만큼 합당해질 수 있다. 희생을 통해서만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이전에 살았던 많은 이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들이 누리는 풍성한 보상을 받으려면 우리도 기꺼이 그와 같이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의 면전에서 살기에 합당해지려면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

주님의 백성은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큰 희생을 치렀다. 어떤 이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고 조롱을 당했고, 새롭게 개종한 몇몇 사람들은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야만 했다. 평생 동안 친구였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도 했다. 어떤 회원들은 직장을 잃었으며, 또 어떤 회원들은 목숨까지 잃었다. 그러나 우리의 희생을 아시는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 복음 19:29)

복음에 대한 간증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께 더 큰 희생을 드릴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진정한 희생에 주목해 보자.

독일에 사는 한 교회 회원은 신권 권세를 소유한 누군가가 와서 그의 십일조를 받아갈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십일조를 모아 두었다.

한 상호부조회 방문 교사는 30년 동안 자신이 맡은 임무를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봉사했다.

남아프리카에 사는 한 무리의 성도들은 주님의 선지자를 직접 보고 말씀을 듣기 위해 3일 동안 차를 타고 여행한 뒤, 자리를 잡지 못해 선 채로 말씀을 들었다.

멕시코의 한 지역 대회에서 교회 회원들은 대회가 계속되는 며칠 동안 바닥에서 잠을 자고 금식했다. 그들은 대회장까지 가는 데 돈을 다 써 버려서 음식과 잠자리를 구할 돈이 없었다.

한 가족은 성전 건축 기금을 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고, 이를 위해 차를 팔아 돈을 마련했다.

또 다른 가족은 성전에 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많은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생활 형편이 무척 어려운 가운데서도 십일조와 헌금을 낸다.

한 형제는 일요일에 일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직장을 잃었다.

한 지부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들이 집회소를 짓는 일을 돕는 동안 기꺼이 시간을 내어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좋은 취업 기회나 교육, 또는 운동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이들의 실례는 더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능, 힘과 돈, 그리고 목숨까지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희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교리와 성약 97:8 참조)

• 기꺼이 희생하는 것은 왜 하나님 면전에서 살기 위한 준비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충 성구

- 누가복음 12:16~34(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음)
- 누가복음 9:57~62(왕국에 적합한 희생)
- 교리와 성약 64:23; 97:12(오늘은 희생의 날임)
- 교리와 성약 98:13~15(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임)
- 앨마서 24장(주님께 맹세한 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 목숨을 희생한 암몬 백성)

일과 개인의 책임

제 27 장

일은 영원한 원리임

- 여러분은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경험을 해 보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범과 가르침으로 보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 위해 일하셨다. 그분은 바다를 한 곳으로 모으고 물이 드러나게 하였고, 땅에 풀과 목초와 나무가 자라게 하셨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바다나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을 만드셨다. 그런 후 그분은 아담과 이브를 지상에 두어 지구를 돌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창세기 1:1~28 참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17)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요한복음 9:4)

우리는 일하라는 명을 받았음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일은 지상에서 생활하는 방법이 되어 왔다.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 아담과 이브는 들에서 일을 하여 그들과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모세서 5:1 참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다.(출애굽기 20:9)

교사들에게: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공과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그들이 공과에 참여하는 방법은 의자를 놓거나, 개회 또는 폐회 기도를 하고, 칠판에 기록하며, 소리 내어 경전을 읽고, 질문에 답하며, 간증을 나누고, 공과를 요약해 보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교회가 회복된 초창기에 주님은 후기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시온의 주민을 크게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게으른 자들이 있고.”(교리와 성약 68:31)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 회원은 일을 그들의 생활 원칙으로 재인식해야 합니다.”(히버 제이 그랜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115쪽)

가족의 책임

-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은 어떤 책임을 맡았는가?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인가?

부모는 가족의 신체적, 영적, 정서적 복지를 위해 함께 일한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이 책임을 맡아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디모데전서 5:8)

부부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구해야 하며, 개인의 책임을 정할 때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 매일 복음 원리를 가르치고 사랑과 질서가 충만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과 옷을 마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자녀는 가족 안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한다. 자녀들에게 능력에 맞는 일을 지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잘 해낸다면 칭찬을 해 주어야 한다. 일에 대한 훌륭한 태도와 습관, 기술은 가정에서 성공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다.

때때로 사람들은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다. 만성적인 질병, 배우자를 잃음, 또는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더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가족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들이 신앙으로 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우리는 즐겁게 일할 수 있음

-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이 단조롭고 고될 뿐이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이 즐거움을 주는 삶의 한 부분이 된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에 기본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 장시간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일을 즐겁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가장 행복한 이들은 어떤 것이든 즐겁게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일을 분담하면 무거운 짐도 훨씬 가벼워진다.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다음 이야기는 한 남자가 어떻게 일상의 노동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준다. 한 여행자가 채석장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일하는 세 사람을 보았다. 그는 각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각자가 한 대답에서 그 동일한 일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가 드러난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돌을 자르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하루에 금화 세 닢을 벌고 있죠.”라고 말했다. 세 번째 사람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니파이인 선지자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모사이야서 2:17)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우리 자신이나 가족에게 사용할 필수품을 마련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를 돕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일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태를 꾸짖으심

주님은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게으른 자는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고치지 않는 한, 교회 안에서 자리를 갖지 못할지니라.”(교리와 성약 75:29) 그분은 또한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게으르지 말라. 이는 게으른 자는 일꾼의 밥을 먹지도 말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2:42)

교회 초창기부터 선지자들은 후기 성도들에게 독립하고 자립하며 나태를 피하라고 가르쳐 왔다. 참된 후기 성도라면 자신을 부양할 책임을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한, 자신과 가족들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할 것이다.

일할 능력이 있는 모든 교회 회원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친척들을 돌보는 책임을 받아들여야 한다.

- 나태는 개인과 가족과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일과 오락과 휴식

- 삶에서 일과 오락, 휴식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일과 오락과 휴식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속담이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다. 이는 그 일을 멈추고 휴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을 하지 않고서 휴식과 오락을 갖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쉬는 것은 즐겁고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에 휴식하라는 명을 받았다.(출애굽기 20:10; 교리와 성약 59:9~12 참조) 옛새 동안 일한 뒤 하루를 휴식하면 이후에 이어지는 날들을 살아갈 활력을 얻는다. 주님께서는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에게 “땅의 충만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59:16~20; 또한 본 교재 제24장 참조)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 동안 우리는 일을 하는 것 외에도 재능을 발전시키고 취미나 오락, 심신을 상쾌하게 해 주는 다른 활동들을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일과 오락과 휴식 간에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가 이 같은 균형을 유지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일의 축복

- 정직하게 일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계시하셨다. “네가 ……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창세기 3:19) 이것은 현세적인 율법이면서 동시에 아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기도 했다. 영적인 일과 정신적인 일, 육체적인 일은

사실상 구분이 없다. 우리 각자가 성장하고 성품을 발전시키며, 게으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수많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일할 수 있는 특권은 은사이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축복이고, 일을 사랑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Pathways to Happiness* [1957년], 381쪽)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충만한 기쁨을 갖기 위해 필요한 열쇠이다. 우리가 의롭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생활할 것이며, 그곳에서도 할 일을 받을 것이다. 그분과 같이 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일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이다.(모세서 1:39)

보충 성구

- 모세서 4:23~25(아담은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 평생 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
- 교리와 성약 56:16~17(하나님께서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탐욕과 시기, 태만을 경고하심)
- 교리와 성약 58:26~29(인간은 훌륭한 대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함)
- 마태복음 25:14~30(달란트의 비유)
- 에베소서 4:28(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일을 하라)
- 데살로니가전서 4:11~12(자신의 손으로 일하라)
- 니파이후서 5:17(니파이는 백성들에게 일을 하고, 근면하라고 가르쳤음)

봉사

제 28 장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가

• 사람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봉사했던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누가복음 22:27)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봉사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구주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도록 기회와 인도를 주시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서 자라난다. 사랑은 감정 이상의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을 돕고 싶어진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벌어들이는 수입이나 나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기꺼이 봉사해야 한다. 사람들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사람만이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부자들만 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와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둔 어느 어머니는 주님께 자기 아들을 그분의 왕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0:26~27)

봉사를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음식이나 다른 물건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금식 헌금을 후하게 내어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새로 온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 줄 수 있고, 연로한 분들을 위해 정원을 손질하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아 줄 수 있다. 진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거나 슬퍼하는 이를 위로할 수 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봉사를 할 수 있으며, 대단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마을로 이사온 어느 미망인은 이사하고 얼마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찾아왔던 두 어린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두 어린이는 점심 바구니와 쪽지를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심부름 시킬 사람이 필요하면 우리를 불러 주세요.” 그 미망인은 그 작은 친절에 기뻐했으며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러나 때때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하기도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봉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셨다.

- 여러분의 가족이나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깊이 생각해 본다.

왜 구주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시는가

-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의 사업은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하는 봉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82쪽)

우리는 모두 일생 동안 계속 다른 사람들의 도움에 의존하여 살아간다. 우리가 유아였을 때에는 부모님이 우리를 먹여 주고, 입혀 주고, 돌보아 주셨다. 이러한 보살핌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성장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났을 때 간호가 필요하고, 재정 위기를 맞았을 때 돈이 필요하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서로 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다. 물몬경 시대에 위대한 왕이었던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밝히면서 이 원리를 가르쳤다. 그는 백성들에게서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평생 그들에게 봉사했다. 베냐민 왕은 영감 받은 설교에서 자신이 봉사를 사랑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 아니라.] ……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일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모사이야서 2:17~18)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준비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봉사하며 축복을 받음

-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중요한 축복들을 얻는다.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키우고 덜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 자신의 문제는 덜 심각하게 느껴진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함께 살 자들은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25:34~40 참조)

이타적인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폴이라는 한 후기 성도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는 사고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괴로워하며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겼겠지만, 폴은 그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장사를 배워 집을 살 만큼 많은 돈을 벌었으며, 그 돈으로 아내와 함께 버림받은 많은 고아들을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다. 고아들 중 몇몇은 신체적 장애가 심했고 폴은 20년 후에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고아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 보답으로 그는 큰 사랑을 받았으며, 불구가 된 자신의 다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지기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86쪽*)

봉사할 기회

우리 중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봉사하고 그 외 사람은 피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라고 명하셨다. 봉사할 기회는 많이 있다.(모사이야서 4:15~19 참조)

우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를 먹이고 입힐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놀아 주며 함께 일함으로써 봉사해야 한다. 자녀는 집안일을 돕고 형제와 자매를 도움으로써 봉사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봉사하고 돕는다. 그들은 자녀 돌보는 일을 서로 도울 수 있으며, 개인적인 관심사와 추구하는 바를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를 선교사로 보내는 희생을 할 수 있다. 오빠는 어둠을 무서워하는 여동생에게 위안을 주거나 책 읽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우리의 선지자들은 가족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라고 말씀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모사이야서 4:14~15 참조)

이웃과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도 봉사할 기회는 많이 있다. 이웃이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병이 든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를 돌보아 주거나 집안 일을 도와 줄 수 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놀림을 받는 아이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그 아이를 친절하게 대하도록 다른 아이들에게 권유할 수 있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잘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재능과 능력을 축복해 주신다.

우리는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갖는다. 교회가 조직된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서로 도움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 교회 회원들은 선교 사업을 하고, 지도자로서 임무를 받아들이며, 회원들을 방문하고, 공과를 가르치며, 그 외에 다른 교회 일들을 하면서 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는 직업적인 성직자가 없으므로 일반 회원들이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 우리는 어떻게 교회와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많은 기회를 만들고 우리 가족에게 봉사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가?

봉사에 대한 완전한 모범 예수 그리스도

- 구주께서 봉사의 모범을 보이신 경전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구주께서는 봉사에 대해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 위해 지상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설명하셨다.(마태복음 20:28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지상에 계셨을 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 죄인, 멸시 받는 이들을 위해 봉사하셨다. 들으려 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배고픈 무리를 먹이셨으며, 병든 이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셨다.

그분은 이 지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구주이시지만 겸손하게 많은 봉사를 행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물이 담긴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요한복음 13:4~10 참조; 또한 본 장에 있는 그림 참조) 그 당시에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존경의 표시였으며, 보통 하인이 그 일을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고 봉사하는 모범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같이 행하셨다. 사랑의 영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 우리는 봉사에 대한 구주의 모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모사이야서 2장(봉사에 대한 베냐민 왕의 설교)
- 교리와 성약 81:5(도움, 일으켜 세움, 강건하게 함)
- 골로새서 3:23~24(주님께 봉사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
- 엘마서 17~18장(암몬이 왕에게 봉사함)
- 갈라디아서 5:13(사랑으로 서로 봉사함)

교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성신의 영향력을 불러온다.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칠 때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간증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는 방법들을 자주 찾아본다.

주님의 건강의 율법

제 29 장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임

우리가 지상으로 올 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몸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몸이 필요하다. 우리의 몸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신다.(고린도전서 3:16~17; 6:19~20 참조) 우리의 몸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의 몸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잘 돌보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가 건강할 때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신다. 몸과 마음이 깨끗할 때에야 우리는 성신과 함께 할 수 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몸을 현명하지 못하게 다루거나 해로운 것들을 취하는 유혹에 직면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건강에 어떤 것이 이롭고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건강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지식들은 교리와 성약 89편에 나와 있다. 이 계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불린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 우리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게 된다.

우리는 특정한 것들을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받았음

- 주님께서서는 계명을 통해 어떤 것을 취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포도주와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를 의미하는 독한 음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독한 음료가 종종 가정에 학대, 빈곤, 질병과 재난을 초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부정직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순결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한다. 그것을 마시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다. (“Message of the First Presidency”, *Improvement Era*, 1942년 11월호, 686쪽 참조) 음주를 하는 임산부는 태아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마다 음주 때문에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주님께서서는 또한 우리에게 “담배는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9:8) 담배는 우리의 몸과 영에 해롭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이든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담배가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며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왔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뜨거운 음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89:9)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이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커피와 차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해로운 물질이 들어 있는 모든 음료를 피해야 한다.

우리는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약을 사용하지는 안 된다. 어떤 마약은 술과 담배(이것들도 또한 마약임) 보다도 훨씬 더 해롭다. 마약을 오용하는 사람들은 도움을 구하고,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며, 감독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해질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모든 것들을 피해야 한다. 습관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는 안 되며, 과식을 피해야 한다. 지혜의 말씀에서 무엇을 피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지침이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현세적인 율법이다. 또한 위대한 영적인 율법이기도 하다.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 강해진다. 우리의 몸이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게 된다.

- 지혜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사들에게: 공과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복돋우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주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물질들에 대해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토론할 때, 여러분은 한 사람에게 칠판 또는 큰 종이에 대답을 기록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그들이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을 토론할 때에도 기록을 부탁할 수 있다.

우리는 특정한 것들이 우리 몸에 이롭다는 가르침을 받았음

- 지혜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롭다고 말씀하신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일, 채소, 약초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새와 짐승의 고기 또한 음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리는 고기를 조금씩 먹어야 한다.(교리와 성약 49:18; 89:12 참조) 생선도 우리가 먹기에 이로운 음식이다.

곡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밀은 특히 우리에게 유익하다.

-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일과 휴식과 운동은 중요함

- 일과 휴식과 운동은 주님의 건강의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리와 성약 89편 이외에도 경전에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볼 수 있다. “게으르기를 그치라. 부정하기를 그치라. ……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또한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도 읽을 수 있다.(출애굽기 20:9)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는 권고를 해주셨다.(교리와 성약 10:4 참조)

현대의 한 선지자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는 이렇게 권고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적당히 잠을 자는 것은 육체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은 정신과 영을 강화시켜 줍니다.”(토마스 에스 몬슨, Conference Report, 1990년 10월, 60쪽; 또는 *Ensign*, 1990년 11월호, 46쪽)

주님의 건강의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이에게 약속된 축복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몸을 돌보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건강의 율법을 주셨다. 경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내가 …… 아

무 현세적인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계명들은 영적인 까닭이니라.”(교리와 성약 29:35) 이 말은 우리의 육체에 관한 계명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임을 뜻한다.

주님의 건강의 율법을 지키고 다른 계명들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육체적으로 우리는 건강을 약속 받았는데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89:20) 이것도 커다란 축복이지만,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라.]”라고 약속하셨다.(교리와 성약 89:19) 우리는 성신의 계시를 통해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 영의 도구입니다. 지혜의 말씀이라는 놀라운 계시에는 우리 몸을 불순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불순한 것들은 영적인 교통과 관계가 있는 섬세한 육체적인 감각들을 무디게 하며, 심지어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열쇠입니다.”(Conference Report, 1989년 10월, 16쪽; 또는 *Ensign*, 1989년 11월호, 14쪽)

주님께서는 또한 멸하는 천사가 우리를 지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과 제가 생명과 건강, 신체와 정신에 활력을 바라다면, 이스라엘 자녀들 시대에 그랬던 것과 같이 멸하는 천사가 우리 곁을 지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혜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시며, 축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191~192쪽)

-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혜의 말씀의 영원한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사사기 13:13~14; 잠언 20:1; 이사야 5:11~12; 다니엘 1장(독한 음료를 피함)
- 교리와 성약 59:16~20(지상의 것들은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임)

- 잠언 23:20~21(술 취함, 폭식, 게으름에 대한 경고)
- 교리와 성약 136:24(술 취하기를 그침)

자애

제 30 장

자애란 무엇인가?

- 여러분은 자애를 어떻게 정의하겠는가?

구주의 생애는 모든 사람을 향한 그분의 순수한 사랑을 반영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셨다. 자애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순수한 사랑을 말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우리는 경전에서 자애가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디모데전서 1:5 참조)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동정심을 보일 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순수한 사랑을 갖게 된다.

모든 틱목 중에 가장 위대한 자애

선지자 몰몬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딤이요.”(모로나이서 7:46~47;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니파이후서 26:30; 모로나이서 7:44~45, 48 참조)

구주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한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어떻게 베푸는지를 보여 주셨다. 그분은 이웃의 영적 및 육체적 필요 사항이 우리 자신의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모범을 보이시며 가르쳐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12~13)

모로나이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다고] ……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

“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내가 아오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습나이다.”(이더서 12:33~34)

구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모범과 가르침을 따른다면 자애를 지닐 수 있다. 구주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

• 왜 자애는 모든 덕목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인가?

자애는 병들고 고통 받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포함함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의 친구이거나 아니거나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누가복음 10:30~37; 또한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1916년], 434~438쪽 참조) 이 비유에서 구주는 다른 도시로 여행하던 한 남자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옷과 돈을 빼앗고 그를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는 그를 버려 두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 그를 보았지만 지나쳐 갔다. 성전에서 일하는 한 사람도 걸어오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따라 오다가 그를 보고는 동정심을 느꼈다.(본 장에 있는 그림 참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처를 싸매 주고 당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 달라고 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이에게 음식을,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우리가 병든 이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할 때 그것은 주님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마태복음 25:34~46 참조)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하려고 해서 안 된다.(모사이야서 4:16~24 참조) 우리가 우리 가족의 필요 사항을 먼저 돌 보았다면, 그 후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는 의인과 불의한 이들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마태복음 5:44~45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재물 이상의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봅시다.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나? 궁핍한 사람 도왔나?’(찬송가, 182장) 이 얼마나 멋진 행복의 공식입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감사함으로 가득차게 했다는 만족감과 내적 평화를 가져오는 참으로 놀라운 처방전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는 실로 무궁무진하지만, 그것은 또한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기쁘게 해 줄 마음들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는 친절한 말들이 있습니다. 베풀 선물들이 있고 행할 행위들이 있습니다. 구원할 영혼들이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2001년 10월, 72쪽; 또는 *Ensign*, 2001년 11월호, 60쪽)

-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분은 그 부상당한 사람을 지나친 이들에 대해 어떻게 평하겠는가?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 어떻게 평하겠는가? 우리는 이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자애

- 우리는 죄와 결점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그들에 대해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자애가 없는 것이다.(요한1서 3:16~17 참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애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선한 감정으로 가득찬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인내하고 친절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이기적이거나 무례하지 않아야 한다. 자애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한 악을 기억하거나 기뻐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 보다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함께 나눈다. 자애가 있을 때 우리는 충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보고 친절하게 대한다. 경전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가르친다.(고린도전서 13:4~8 참조)

구주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고 해야 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이셨다. 그분은 악을 경멸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다. 어린이와 노인, 가난하고 궁핍한 이를 가엾게 여기셨다. 것처럼 큰 사랑을 지니셨기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실 수 있었

다.(누가복음 23:34 참조)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8:33~35 참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태복음 5:44, 46)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해아리시는 그 마음을 배워야 한다.

자애의 덕목을 키움

• 우리는 어떻게 더욱 자애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자애로워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연구해야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둘째, 마음이 냉담해질 때 우리는 더 큰 자애를 갖도록 기도한다. 물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자애]으로 충만하게 [되지어다.]”(모로나이서 7:48)

셋째,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신에게 있는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마태복음 22:39 참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고 신뢰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복음 원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한 후에는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는 구주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심오하고, 위안이 되는 확신을 느낄 때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넷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에 대해 인내할 수 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멸망 당하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을 우리 어깨 위

교사들에게: 소제목 “자애의 덕목을 키움” 부분에서 첫 네 단락은 각각 우리가 더욱 자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가르쳐 준다. 조별 토론을 하기에 적절하다면 반원 또는 가족들을 네 명으로 구성된 조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본다. 각 조에 속한 각 구성원들에게 네 단락 중 한 단락을 배정해 준다. 각자 자신이 맡은 단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도록 권유한다. 주변 사람들, 또는 경전에 나오는 인물의 삶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자애로워진 예를 생각해 보라고 말한다. 그런 후 그 예들을 조원들끼리 서로 나누라고 말한다.

에 메고 그들이 지은 죄를 우리 뒤로 던져 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29쪽)

우리는 물론경에서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는지를 알고 싶어했던 젊은 이노스에 관해 읽을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보다 하시니라.”(이노스서 1:4~5)

주님께서는 이노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은 이노스는 더 이상 자신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대신에 친구와 동포인 니파이인들의 복리에 마음이 쓰였다. 그래서 이노스는 그들을 위해 온 영혼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구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주어진 계명에 충실하다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노스의 사랑은 더욱 커졌고, 그는 이제 니파이인들의 적이었던 레이맨인들을 위해 오랫동안 여러 차례 분투하며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허락하셨으며, 그는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의 영혼을 구하는 데 여생을 바쳤다.(이노스서 1:6~26 참조)

이노스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은사를 받도록 돕고자 기꺼이 자신의 여생을 바쳤다. 이노스는 참으로 자애로워졌으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왕국에 마련하신 거처를 상속받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한다.

보충 성구

- 골로새서 3:12~14(자애는 온전하게 매는 띠)
- 엘마서 34:28~29(우리가 자애롭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임)
- 고린도전서 12:29~13:3(자애의 정의)
- 교리와 성약 121:45~46(모든 사람을 향하여 자애가 가득하게 함)

정직

제 31 장

정직은 구원의 원리임

-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정직하다면 그 사회는 어떠할까?

신앙개조 제13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우리는 정직[을] …… 믿는다.” 물문경에는 다음과 같은 어느 백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앨마서 27:27) 이 백성은 그들의 정직함 때문에 이웃과 하나님에게서 주목을 받았다. 정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부정직하도록 유혹을 받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완전한 정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생각과 사상과 사고에서, 사적인 모임, 거래, 세금과 관련한 신고, 모든 생활 행동 규범에서 …… 정직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293쪽)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정직하시며 공의로우시다.(앨마서 7:20 참조)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우리도 모든 것에 정직해야 한다. 야렛의 형제는 다음과 같이 증거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사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 이니이다.”(이터서 3:12) 이와 반대로 악마는 거짓말쟁이다. 사실, 그는 거짓의 아버지이다.(니파이후서 9:9 참조) “속이고 거짓말하고 기만하며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악마의 노예가 된다.”(마크 이 피터슨, Conference Report, 1971년 10월, 65 쪽; 또는 *Ensign*, 1971년 12월호, 73쪽)



정직한 사람들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며 말과 행위에서 정직하다. 그들은 거짓 말하거나 흠치거나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하는 것은 부정직한 것임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고의로 속이는 것이다.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은 거짓말의 한 형태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6)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에도 이것을 가르치셨다.(마태복음 19:18 참조) 거짓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몸짓이나 표정, 침묵, 진실의 일부분만 말하여 고의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에게 진실이 아닌 무언가를 믿게 할 때,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주님은 그러한 부정직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는 자신이 한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괜찮다고 믿게 하려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거짓말도 조금하고 ……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니파이후서 28:8)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스스로 합리화하라고 부추긴다. 정직한 사람들은 사탄의 유혹을 인식할 것이며, 진실을 모두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지라도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도둑질은 부정직한 행위임

예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마태복음 19:18)라고 가르치셨다. 도둑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갖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상점 또는 지역 사회가 소유한 물건을 허가 없이 취하는 것이 도둑질이다. 고용주의 상품이나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도둑질이다. 음악, 영화, 그림, 또는 문서 등을 판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복사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며 도둑질의 한 형태이다. 받아야 할 거스를 돈이나 상품보다 더 많이 받는 것 역시 부정직한 행위이며,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은 도둑질이다.

교사들에게: 본 장에는 부정직의 형태를 설명하는 세 가지 부분, 즉 거짓말, 도둑질, 속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은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을 세 개 조로 나누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조에 이 세 가지 부분 중 하나를 배정해 준다. 조원들에게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을 조용히 읽어보고 거기에서 설명하는 부정직의 형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런 후 각 부분을 반 전체 또는 가족이 함께 토론한다. 제시된 각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속이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임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지불하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을 때 우리는 속이는 것이다. 어떤 고용인은 정해진 근무시간 동안 충실히 일하지 않고도 보수를 모두 받음으로써 속인다. 어떤 고용주는 종업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게 지불하여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한다. 사탄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이를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니파이후서 28:8)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정직한 한 형태이다. 질이 낮은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것도 속이는 행위이다.

우리는 부정직을 변명하지 말아야 함

- 부정직을 변명할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은 부정직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변명을 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에 대해 자신이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든가, 돌려줄 생각이 있다든가, 또는 소유주보다 자신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변명을 한다.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또는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는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부정 행위를 한다.

이와 같은 변명과 또 다른 여러 변명들은 부정직을 범하는 구실이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으신다. 변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불의하게 된다.

우리는 완전하게 정직해질 수 있음

- 완전하게 정직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전히 정직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직한 면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회개해야 한다.

완전하게 정직하면 타락할 수 없다. 우리는 돈이나 친구, 목숨을 희생할지라도 모든 신뢰나 의무, 계약 또는 성약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부끄럼 없이 대할 수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권고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엄밀하게 점검하여 자신의 삶이 펼쳐진

책과 같이 보일 수 있게 합시다. 그러면 그는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Gospel Doctrine*, 제5판 [1939년], 252쪽)

- 우리의 정직이나 부정직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보충 성구

- 교리와 성약 50:17(오직 진리의 영으로 말함)
- 교리와 성약 76:103~106(거짓말하는 자의 운명)
- 교리와 성약 42:27(이웃에게 악담하지 말라는 계명)
- 출애굽기 20:15~16(도적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 교리와 성약 42:20, 84~85; 59:6(도적질을 금함)
- 교리와 성약 3:2(하나님은 정직하심)
- 교리와 성약 10:25~28(사탄은 속이는 자임)



십일조와 헌물

제 32 장

십일조와 헌물을 바침

- 십일조와 헌물을 기꺼이 바치는 것은 어떻게 모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살기 위해 모든 면에서 준비를 갖추도록 계명들을 받았다. 그분은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는 방법을 알려 주셨는데, 기꺼이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것을 바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함

- 정직한 십일조란 무엇인가?

고대에 아브라함과 야곱은 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치라는 계명에 순종했다.(히브리서 7:1~10; 창세기 14:19~20; 28:20~22 참조)

현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도했다. “오 주여, 당신께서 십일조로 당신 백성의 재산 중 얼마만큼을 요구하시는지를 당신의 종에게 보이소서.”(교리와 성약 119편, 서문)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다. “이것은 나의 백성의 십일조의 시작이 되리라.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19:3~4) 제일회장단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이 우리의 수입을 말한다고 설명했다.(제일회장단 서한, 1970년 3월 19일자 참조)

교사들에게: 시작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론을 시작하고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에게 본문 내용을 찾아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한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이 읽은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고 토론하며 삶에 적용해 보도록 돕는다.

십일조를 바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충실함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자녀들에게 이 율법의 가치를 가르친다. 그들은 우리가 보이는 모범을 따라 자신이 받은 어떤 돈에 대해서든 십일조를 바치고자 할 것이다.

- 십일조는 어떤 면에서 재정 원리이기보다 신앙의 원리인가?
- 부모는 자녀에게 십일조를 내고 그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기꺼이 바쳐야 함

- 십일조를 낼 때 우리가 갖는 태도는 왜 중요한가?

기꺼이 바치는 것은 중요하다.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십일조를 바치는 사람은 축복의 일부를 훔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흔쾌하게 바칠 줄 알아야만 축복을 받을 것이다.”(스티븐 엘 리차즈, *The Law of Tithing*[소책자, 1983년], 8쪽)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바치느냐가 무엇을 바치느냐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

- “즐겨 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십일조와 기타 헌물

- 교회는 십일조 기금과 기타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주님께 바친다.

십일조

교회는 십일조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1. 성전과 집회소, 그 외에 필요한 건물을 짓고 유지하며 운영한다.
2. 스테이크, 와드, 기타 교회 단위 조직에 필요한 운영 기금을 제공한다.(이러한 단위 조직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사교 활동을 이끄는 등 교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한다.)
3. 선교사 프로그램을 돕는다.

4. 교회 학교, 세미나리, 종교 교육원에서 젊은이들을 교육한다.
5. 공과 자료들을 인쇄하고 배부한다.
6.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돕는다.

기타 헌물

금식 헌금. 교회 회원들은 매달 두 끼에 해당하는 음식과 물을 연속하여 취하지 않고 견디면서 금식을 한다. 그들은 적어도 두 끼를 먹는 데 사용하는 돈을 헌금한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헌금할 수 있다. 이것은 금식 헌금이라고 불리며, 감독은 이 헌금을 사용하여 궁핍한 이들에게 음식과 거처할 곳, 의복과 치료비를 제공한다.(본 교재 제25장 참조)

금식일에는 회원들이 금식 간증 모임이라고 부르는 모임에 참석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눈다.

기타 헌금. 교회 회원들은 선교 사업, 영구 교육 기금, 성전 건축, 인도주의 지원 등과 같은 기타 교회 사업을 위해 헌금할 수 있다.

봉사. 회원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간, 기술, 물품을 기부할 수 있다.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는 특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역 사회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전 세계에 있는 궁핍한 회원들과 비회원들을 돕는다.

십일조와 헌물을 바칠 때 축복을 받음

주님께서는 우리가 십일조와 헌물을 충실하게 바칠 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후기의 계시에는 십일조를 바치는 이들을 위한 또 다른 축복이 언급되어 있다. “진실로 오늘은 희생의 날이요, 나의 백성의 십일조를 위한 날이라. 무릇 십일조를 바치는 자는 그가 오는 때에 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64:23)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모두 약속 받았다. 우리가 기꺼이 바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일상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실 것이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필리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만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하며 궁핍한 가운데서도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바친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고대에 하셨던 약속을 지키실 것이며, 그들은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거주할 집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상시키고 돕기 위해 지상에 존재하는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Inspirational Thoughts”, *Ensign*, 1997년 8월호, 7쪽)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간증, 그리고 복음대로 생활하는 권능 안에서” 발전하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123~124쪽)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큰 축복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행복감을 느낀다.

-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또는 친구들은 십일조와 기타 헌물을 바침으로써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가?

보충 성구

- 교리와 성약 119:1~4(십일조의 법)
- 창세기 14:18~20; 엘마서 13:13~16(아브라함은 십일조를 바쳤음)

선교 사업

제 33 장

주님의 교회는 선교사의 교회임

- 선교 사업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 중 일부인가?

주님께서서는 아담에게 복음의 계획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이같이 복음은 태초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나니.”(모세서 5:58) 이후에 아담의 의로운 후손들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다. “그들은 …… 도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기를 외쳤고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쳤더라.”(모세서 6:23)

모든 선지자들은 선교사였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시대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았다. 신권이 지상에 존재할 때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영원한 복음 원리들을 전파할 선교사들이 필요하셨다.

주님의 교회는 항상 선교사의 교회였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사도와 칠십인을 성임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권세와 책임을 주셨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전파했다.(마태복음 10:5~6 참조)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위대한 선교사였다. 교회로 개종한 이후부터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여생을 보냈다.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에 그는 여러 차례 채찍과 돌에 맞고 투옥되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사도행전 23:10~12; 26장 참조)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선교 사업은 다시 시작되었다. 오늘날 사도와 칠십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살피는 주요 책임을 맡는다.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

교사들에게: 복음 원리에 대한 경험을 나누면 영을 불러올 수 있다. 여러분은 미리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 몇 명에게 부탁하여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을 나누도록 준비하게 할 수 있다.



다.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 나의 복음을 선포하[라.] …… 어느 곳에서나 모든 백성에게 …… 증거하[라.]”(교리와 성약 66:5, 7) 1830년 6월, 선지자의 동생인 새뮤얼 해리슨 스미스는 교회를 위해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 이후로 백만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졌다. 그들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거한다. 선교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침례를 베풀며,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받았다.(마태복음 28:19~20 참조) 후기 성도 선교사들은 자신이 마련한 경비로 세상 곳곳에 나가 복음 메시지를 전파한다.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임

•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어떤 방법들을 준비하셨는가?

후기의 계시를 통해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전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으시고는 절대 우리에게 명하지 않으신다.(니파이전서 3:7 참조) 주님께서는 한때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던 나라들에서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셨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신앙을 행사한다면 선교 사업을 위해 아직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다.

주님은 또한 “이 세상이 전혀 몰랐던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 위대한 사람들에게 발명품을 만들도록 영감을 주[신다.]”(러셀 엠 넬슨, “Computerized Scriptures Now Available”, *Ensign*, 1988년 4월호, 73쪽)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 컴퓨터,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은 복음 메시지를 수백만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발명품들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주님의 계명을 성취해야 한다.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이 곳에서부터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만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58:64)

- 복음을 나누는 데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어떤 실례를 보았는가?

선교 사업은 중요함

-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주요 관심 사업입니다.”(에즈라 태프트 벤슨, Conference Report, 1974년 4월, 151쪽; 또는 *Ensign*, 1974년 5월호, 104쪽)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기회를 주기 위해 선교 사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

지상에 있는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며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교리와 성약 123:12) 우리는 선교 사업을 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마지막으로 나의 포도원에서 일하라—마지막으로 땅의 주민에게 외치라.”(교리와 성약 43:28)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구주의 재림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34:6 참조)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함

- 어떻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위해 자신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모든 교회 회원은 선교사이다.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고 성별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말과 행위로 복음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고를 받은 각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이웃에게 경고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교리와 성약 88:81) 한 선지자는 우리 이웃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사랑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262쪽) 그들은 우리와 우정을 나누고 친분을 쌓는 경험을 해 보아야 한다.

모사이아의 아들들은 복음을 가르치라는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교회로 개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으로 가득했고, 자신들의 적인 레이맨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했다. “이는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멀

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음이라.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 하며 전율하게 하였더라.”(모사이야서 28:3)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 그와 같은 사랑과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자 할 것이다.

복음을 나누는 방법은 많다.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1. 복음 진리대로 생활함으로써 경험하는 기쁨을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마태복음 5:16 참조)
2. 사람들을 다정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풀 때 타고난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3. 비회원 친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
4. 복음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는 친구들을 우리 가정에 초대하여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할 수 있다. 비회원 친구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를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자녀에게 복음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그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다. 또한 부모들도 노년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다.
6. 십일조를 내고 선교사 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러한 헌금은 선교 사업을 진척시키는 데 사용된다.
7. 가족에게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선교사들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 와드, 지부, 또는 일반 선교사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8. 복음이 가져오는 모든 축복을 조상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역사 조사와 성전 사업을 할 수 있다.
9. 비회원들을 가정의 밤, 교회 사교 활동, 대회, 집회 등과 같은 활동에 초대할 수 있다.

10. 우리는 교회 잡지를 나눠줄 수 있다. 또한 교회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 LDS.org 및 Mormon.org에 실려 있는 여러 가지 기사를 이용하여 복음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로 인도를 구할 때 훌륭한 선교사가 되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분은 주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이다.

- 여러분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떻게 복음을 나눌지를 결정한다. 특정 날짜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목표를 세우는 것을 고려해 본다.

선교 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선교사들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장로들에게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증거한 증언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교리와 성약 62:3) 그분은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사함 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4; 31:5; 84:61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데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교리와 성약 18:15~16)

- 여러분은 언제 선교 사업의 기쁨을 경험했는가?

보충 성구

- 교리와 성약 1:17~23(조셉 스미스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음)

-
- 교리와 성약 24:12(주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심)
 - 교리와 성약 38:41(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복음을 나눔)
 - 교리와 성약 34:4~6; 사도행전 5:42(복음이 전파될 것임)
 - 교리와 성약 60:1~2(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경고하심)
 - 교리와 성약 75:2~5(복음을 전하는 충실한 이들은 영생을 축복받을 것임)
 - 교리와 성약 88:81~82(경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웃에게 경고해야 함)
 - 마태복음 24:14(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전파될 것임)
 - 아브라함서 2:9~11(모든 나라에 복음과 신권이 주어질 것임)
-



우리의 재능을 발전시킴

제 34 장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받았다. 우리는 그러한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본 교재 제2장 참조)

선지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대변인으로서 도움을 줄 동생 아론이 필요했다.(출애굽기 4:14~16 참조) 우리 중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있고, 아론과 같은 훌륭한 웅변가도 있다. 또한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있으며,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손재주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인내, 쾌활함,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능력 등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능 덕분에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

우리는 재능을 사용하고 발전시켜야 함

- 우리는 어떻게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자신이 받은 재능을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재능이 별로 없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능력을 축복받았다는 생각을 한다. 때때로 실수나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두려워하여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재능을 숨겨서는 안 되며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훌륭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마태복음 5:16 참조)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 첫째, 우리의 재능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평가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재능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반원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있다. 반원들의 이름을 익힌다. 새로운 반원들이 참석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준다.

둘째,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재능을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자신을 신뢰해야 한다.

넷째,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한다. 강의를 듣거나 친구에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이를 익힐 수 있다.

다섯째, 우리는 재능을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어떤 재능이든 그것을 발전시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재능은 반드시 숙달될 것이다.

여섯째, 우리는 재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재능은 사용할 때 발전한다.(마태복음 25:29 참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한다면 이러한 모든 단계는 더욱 쉬워진다. 주님은 우리가 재능을 발전시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약점이 있더라도 우리는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음

• 우리에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타락한 필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각자 약점을 갖고 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연약함과 타락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다.(이더서 12:27, 37 참조) 베토벤은 들을 수 없게 된 후에 최대의 걸작을 작곡했고, 에녹은 말이 느린 것을 극복하고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었다.(모세서 6:26~47 참조)

몇몇 위대한 운동 선수들은 자신의 재능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기에 앞서 신체 장애를 극복해야 했다. 셸리 만은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셸리는 다섯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 부모는 매일 그녀를 수영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이 물에 떠서 팔을 다시 사용하도록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팔을 물 밖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자 셸리는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목표는 수영장을 가로질러 헤엄쳐 가는 것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수영장 길이만큼, 그 다음은 여러 차례 왕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셸리는 꾸준히 노력하며 매일매일 끈기 있게 수영을 했고, 마침내 수영에서 가장 어려운 종목 중 하나인 접영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마빈 제이 애쉬튼, Conference Report, 1975년 4월, 127쪽; 또는 *Ensign*, 1975년 5월호, 86쪽)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많은 약점들을 극복하여 재능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일을 꾸준히 계속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이는 그 일의 본질이 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35쪽)

우리가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은 몇 가지 재능을 받았으며, 각자 그 재능을 사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Gospel Doctrine*, 제5판 [1939년], 370쪽) 재능은 일종의 청지기 직분(하나님의 왕국에서 맡은 책임)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청지기 직분을 잘 수행하면 더 큰 책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청지기 직분은 우리에게서 결국 거두어지게 될 것이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경전에는 또한 우리가 한 행위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다.(마태복음 16:27 참조) 재능을 발전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선행을 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가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할 때 기뻐하신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분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얻는 축복 중에는 지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봉사할 때 얻는 기쁨과 사랑도 있다. 우리는 또한 자제심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합당해지는데 필요하다.

- 재능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탁월한 재능을 갖게 된 사람들의 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인이나 경전 또는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들을 고려해 본다.)

보충 성구

- 야고보서 1:17(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 교리와 성약 46:8~11; 디모데전서 4:14(은사를 구하고 발전시킴)
- 고린도후서 12:9(약한 것이 강하게 됨)
- 요한계시록 20:13; 니파이전서 15:33; 교리와 성약 19:3(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음)
- 히브리서 13:21(선행을 보임)

순종

제 35 장

우리는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함

•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한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36~40)

이 성구에서 우리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셨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요한복음 14:21)

우리는 각자 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형벌을 두려워해서인가? 선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기 때문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봉사하고 싶어서인가?

계명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것보다는 형벌이 두려워서라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아낌없이 축복하실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주는 …… 끝

교사들에게: 반원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질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충분한 시간을 준 후에 답변을 부탁한다.

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교리와 성약 76:5) 순종은 또한 우리가 발전하고 좀 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명을 받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마지못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상을 잃게 된다.(교리와 성약 58:26~29 참조)

-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는 소망을 키울 수 있을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음

-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목적을 항상 이해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과 승영을 준비한다. 때때로 우리는 특정한 계명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고도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를 증거해 보이는 것이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다. 어느 날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서 왜 제물을 바치느냐고 그에게 물었을 때, 아담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모세서 5:5~6 및 본 장에 있는 그림 참조)

그러자 천사는 아담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장차 오실 구주에 대해 말해 주었다. 성신이 아담에게 임하였으며, 아담은 마지막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상의 모든 주민에 관하여 예언했다.(모세서 5:7~10; 교리와 성약 107:56 참조) 아담이 이러한 지식과 큰 축복을 받은 것은 그가 순종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실 것임

우리는 몰몬경에서 니파이와 그의 형들이 주님으로부터 매우 어려운 임무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니파이전서 3:1~6 참조) 니파이의 형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명하셨다며 불평했다. 그러나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압니다.”(니파이전서 3:7)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니파이가 한 그 말을 기억해야 한다.

-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순종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셨던 때는 언제였는가?

순종하기에 너무 작거나 큰 계명은 없음

때때로 우리는 어떤 계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경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아만은 무서운 병에 걸려 선지자 엘리사에게 치유를 부탁하기 위해 시리아에서 이스라엘까지 여행하였다. 나아만은 그의 나라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으므로, 엘리사가 직접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대신에 종을 보냈을 때 매우 노하였다. 나아만은 요단 강에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전갈을 받고 더욱 노하였다. “다메섹 강 [은] ……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라고 말하고 격노하여 떠났다. 그러나 나아만의 종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러자 현명한 나아만은 하찮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그는 요단 강에서 몸을 씻고 병을 고쳤다.(열왕기하 5:1~14 참조)

때때로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니파이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도 니파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 순종하도록 방편을 마련하시지 않고는 어떠한 계명도 주시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창세기 22:1~13; 또한 본 교재 제26장 참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그가 어떻게 아들을 그런 식으로 잃을 수 있겠는가? 이 계명은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행해야 한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 이런 규칙을 세웠다. 주님께서 명하시면 행한다.”(주님께서 명하시면 행한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160쪽) 이것은 우리의 규칙이 될 수 있다.

- 여러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계명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적이 있는가? 그것은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순종하셨음

-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아버지께 순종하신 어떠한 예를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위대한 본보기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6:38) 그분은 온 생애를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바치셨지만 그 일이 그분에게 항상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유혹을 받으셨다.(히브리서 4:15 참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9)

예수님은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셨다.

- 구주의 모범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

-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늘 왕국은 율법으로 다스려진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에는 그 축복이 근거하는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교리와 성약 130:20~21; 132:5 참조)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고 근면하면 지식과 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130:18~19 참조)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예레미야 7:23~24 참조) 반면에 불순종은 실망을 주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내가 누구이기에, 주가 이르노라, 약속을 하고서 이루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명령하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매, 나는 취소하며,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교리와 성약 58:31~33)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은 그분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연 그가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로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모사이야서 2:24)

순종하는 이들은 영생을 얻음

주님은 이렇게 권고하셨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주님은 의와 진리 가운데서 끝까지 순종하는 이들이 받을 다른 축복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대저 이같이 주께서 이르시나니—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는 모든 비밀, 참으로 옛날부터 나의 왕국의 감추어진 모든 비밀을 드러낼 것이요, 장차 임할 여러 시대 동안 나의 왕국에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선하고 기쁜 뜻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하도다. 영원한 기이함까지도 그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임할 일들, 곧 많은 세대의 일들을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리라.

“이에 그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그들의 이해력은 하늘에 닿으리니 ……

“이는 나의 영으로써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76:5~10)

- “끝까지 견[디다]”는 구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 평판이 좋지 않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 원리에 충실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아브라함서 3:25(우리는 순종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지상에 왔음)
- 사무엘상 15:22(순종이 제사보다 나음)

- 전도서 12:13; 요한복음 14:15; 로마서 6:16; 교리와 성약 78:7; 132:36; 신명기 4:1~40(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
- 니파이후서 31:7(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셨음)
- 잠언 3:1~4; 6:20~22; 7:1~3; 에베소서 6:1~3; 골로새서 3:20(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
- 교리와 성약 21:4~6(선지자에게 순종함)
- 요한복음 8:29~32; 모사이야서 2:22, 41; 교리와 성약 82:10; 니파이전서 2:20(순종에 따른 축복)
- 교리와 성약 58:21~22; 98:4~6; 134:5~7(국가의 법률에 순종함)
- 이사야 60:12; 교리와 성약 1:14; 93:39; 132:6, 39(불순종의 결과)
- 니파이후서 31:16; 교리와 성약 53:7; 마태복음 24:13; 누가복음 9:62(끝까지 견답)

가족은 영원할 수 있음

제 36 장

가족의 중요성

-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족 구성원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결혼하게 하신 후, 그들에게 자녀를 가지라고 명하셨다.(창세기 1:28 참조) 그분은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그분의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역자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영의 자녀가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을 경험하기를 바라신다. 남녀가 자녀를 이 지상으로 데려올 때,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계획을 수행하시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모든 자녀를 기쁘게 가정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시간을 내어 자녀와 즐겁게 보내고, 함께 놀아 주며,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진심으로 …… 영생을 준비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Blueprint for Family Living”, *Improvement Era*, 1963년 4월호, 252쪽) 우리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자제심과 희생, 충실함과 일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봉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교사들에게: 본 장과 가족에 관한 다음 두 장을 가르칠 때, 이상적인 가정 환경을 가지지 못한 반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관해 가르칠 책임이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어야 하며,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잠언 22:6 참조)

- 가정이 영생을 준비하는 데 최적의 장소인 이유는 무엇인가?
- 교회 청소년들이 가족과 결혼 성약의 성스러움을 이해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영원한 가족

가족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서 결혼해야 한다. 성전 밖에서 하는 결혼은 반려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 끝이 난다. 성전에서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로 집행되는 결혼은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이다.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우리 가족은 남편과 아내, 자녀로서 영원히 결합될 것이며,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된다.

사랑이 깃든 가족 관계

-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더 훌륭하게 화합할 수 있을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사려 깊고 친절해야 한다.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칠 것이다. 몰몬경에서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 버려 두지도 아니하리니 ……

“오히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모사이야서 4:14~15)

우리는 가족으로서 격려하고 진심으로 칭찬하며 자신감을 갖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각 자녀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며 사랑과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와 가문을 명예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부모는 아들과 딸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형제 자매는 서로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행복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공적인 가정을 만드는 방법

- 여러분은 가족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가정이 되도록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해롤드 비 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하게 될 주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000년], 134쪽)

사탄은 가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그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가족을 파괴하려고 힘쓴다. 그는 우리의 가족이 서로 멀어지게 될 일들을 하도록 유혹할 것이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훌륭한 가족을 갖고 싶어한다. 다음 제언들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한다.(제3니파이 18:21 참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기도한다.
2. 매주 가정의 밤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3. 가족이 함께 정기적으로 경전을 공부한다.
4. 가족이 함께 일을 계획하고, 소풍을 가고, 의사를 결정한다.
5. 친절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관대해지는 법을 배운다.(모로나이서 7:45~48 참조)
6. 교회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한다.(교리와 성약 59:9~10 참조)

7.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에 나와 있는 주님의 권고를 따른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
8. 가족 역사를 작성하고, 성전 사업을 함께 하며, 성전에서 인봉 의식을 받는다.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교회는 가족이 영원한 축복과 승영을 얻도록 돕기 위해 존재한다.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들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강화하고 가족으로서 영원히 살도록 돕기 위해 계획되었다.

- 가족들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가족 기도, 가족 경전 공부, 가족 평의회, 가족 식사 시간, 가정의 밤 등의 노력들이 중요하다는 어떤 증거를 목격했는가?

보충 성구 및 기타 자료

- 모세서 2:27~28(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심)
- 창세기 2:24(남자는 아내와 결합함)
- 교리와 성약 49:15~16(하나님께서서 결혼을 제정하심)
- 에베소서 6:4(자녀를 의로움으로 가르침)
- 교리와 성약 132:15~21(영원한 결혼)
- 교리와 성약 88:119~126(성공적인 가족을 위한 가르침)
- 교리와 성약 93:40~50(주님께서서 부모에게 자녀를 빛과 진리로 양육하도록 명하심)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LDS.org 및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의무 완수 [물품번호 36550 320], 44쪽; 신앙에 충실함: 복음 참고서 [물품번호 36863 320], 5~6쪽 등의 교회 출판물에서 찾을 수 있음)



가족의 책임

제 37 장

부모의 책임

- 남편과 아내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서 어떤 책임을 공유하는가?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가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가 각각 어떻게 행동하고 서로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가족 안에서 남편이고 아내이며 자녀인 우리들은 가족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 해낸다면 우리는 영원히 결합될 것이다.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그들은 함께 일하며 가족에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책임들은 남편과 아내가 분담해서 맡아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주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죄가 부모의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교리와 성약 68:25, 28 참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말과 행위로 사랑과 존중을 보여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고, 단호하면서도 친절해야 한다.

교사들에게: 제36장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가정 환경을 가지지 못한 회원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배려한다. 편부모도 주님의 인도와 가족 구성원 및 교회의 도움으로 그들의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부모는 자녀가 진리를 배운 후에라도 때때로 그릇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계속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하며,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몰몬경에서 아버지의 기도가 어떻게 패역한 아들을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엘마 이세는 의로운 아버지 엘마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교회를 멸하려고 하였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신앙으로 기도했다. 엘마 이세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신의 악한 행실을 회개했으며,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모사이야서 27:8~32 참조)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그 가정에 경건하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모는 또한 자녀에게 행복한 경험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남편과 아내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서 어떻게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가? 편부 또는 누구에게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책임

-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에 관해 어떤 좋은 예를 보았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교회 회원인 합당한 아버지는 신권을 소유할 기회를 갖게 되며, 그의 가족의 신권 지도자가 된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강압과 학대가 아닌 겸손과 친절로 인도해야 한다. 경전에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과 온유, 사랑과 친절로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121:41~44; 에베소서 6:4 참조)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신권의 축복을 나눈다.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형제는 병자 축복과 특별한 신권 축복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나눌 수 있고, 감리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유아 축복, 침례, 확인, 신권 성임을 할 수 있다. 그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가족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하며, 매일 두 차례 가족 기도를 함께 하고 가정의 밤을 해야 한다.

아버지는 각 자녀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며 자녀에게 정확한 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제와 관심사에 관해 함께 이야기하고, 애정 어린 권고를 해야 한다. 물론경에 몇 가지 훌륭한 본보기가 나와 있다.(니파이후서 1:14~3:25; 앨마서 36~42장 참조)

가족의 물질적인 필요 사항을 마련하는 것도 아버지의 의무이다. 그는 가족에게 필요한 음식과 집, 의복, 교육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자기 능력만으로는 모든 것을 부양할 수 없더라도 가족을 돌볼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다.

어머니의 책임

- 여러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에 관해 어떤 좋은 예를 보았는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가장 고귀한 부름이라고 말씀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03년], 156쪽 참조)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세상으로 데려오는 일에서 그분과 동역자가 되는 성스러운 부름이다. 자녀를 낳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라면 어머니가 가족을 돌본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자신의 자녀를 갖지는 못하지만 다른 이들의 자녀를 돌보려고 하는 여성들을 칭송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는 자녀를 낳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길러 온 여성과, 자신의 자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자녀의 어머니가 되어 온 많은 여성들을 총칭하는 것이다.”(*Mothers* [1977년], 8쪽)

후기 성도 선지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리야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주변 세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 놀아주고 함께 일하며, 어떻게 하면 가정이 즐거운 곳이 될 수 있는지를 가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어머니가 온화하고 애정이 깊다면 자녀가 자신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물론경에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위대하게 자라난 2,000명의 젊은이들이 묘사되어 있다.(앨마서 53:16~23 참조) 그들은 선지자 힐라맨의 지휘를 받으며 전장에 나가서 적들과 싸웠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정직하고, 용감하며,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 어머니들은 또한 의심하지 않는다

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다.(엘마서 56:47 참조) 그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살아 남았다. 그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엘마서 56:48) 간증이 있는 모든 어머니는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의 책임

- 자녀는 부모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어떻게 돕는가?

자녀는 부모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 책임을 공유한다. 계명에 순종하고 다른 가족들과 협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자녀가 서로 다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모사이야서 4:14 참조)

주님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애굽기 20:12)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뜻이다. 또한 순종한다는 뜻이다. 경전은 자녀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에베소서 6:1)라고 가르친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자녀가 가정과 뜰에서 일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했다. 집을 깨끗이 하고 잘 정돈하도록 그들에게 임무를 정해 주어야 한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120쪽 참조)

-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그들을 공경하고 존경하도록 무엇을 했는가?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축복을 가져옴

- 각 가족 구성원은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랑이 깃든 행복한 가족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 각 가족 구성원은 자신이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책임을 주셨다. 경전은 우리가 신중하고, 쾌활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노래하거나 일할 때 우리는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골로새서 3장 참조)

- 가정을 행복한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전통과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보충 성구 및 기타 자료

- 잠언 22:6(자녀를 훈육함)
- 에베소서 6:1~3(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
- 교리와 성약 68:25~28; 에베소서 6:4(부모의 책임)
-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LDS.org 및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물품번호 36550 320], 44쪽; 신앙에 충실함 [물품번호 36863 320], 5~6쪽 등의 교회 출판물에서 찾을 수 있음)
- 가족 지도서(물품번호 31180 320)



영원한 결혼

제 38 장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임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을 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자가 아니니, 결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49:15) 태초부터 결혼은 복음의 율법이었다. 결혼은 단지 현세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세상에 사망이 있기 전에 결혼했으며,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셨다. 그들은 영원한 결혼을 했다. 아담과 이브는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가르쳤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이 들어 오게 되었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행할 권세가 지상에서 거두어졌다. 그러나 이제 복음이 회복되면서 영원한 결혼이 지상에 회복되었다.

• 남녀 간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영원한 결혼은 승영에 반드시 필요함

• 결혼에 대한 주님의 교리는 무엇이며, 그것은 세상의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

많은 세상 사람들은 결혼이 단지 사회 관습이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겠다는 합법적인 계약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후기 성도에게 결혼은 그 이상을 의미한다. 우리의 승영은 다른 원리와 의식, 즉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과 함께 결혼에 달려 있다. 우리는 결혼이 남녀 간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성스러운 관계라고 믿는다. 이 성스러운 관계는 현세와 영원에서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결혼의 율법을 주셨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의미함]에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것을 얻을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1:1~3)

영원한 결혼은 성전에서 올바른 권세로 집행되어야 함

- 왜 결혼은 성전에서 올바른 권세로 집행되어야만 영원해질 수 있는가?

영원한 결혼은 인봉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이 집행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일 어느 남자가 ……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맞이하고 …… 기쁨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아 …… 인봉되면 …… 만일 [그들이 주님의] 성약에 거하[면] ……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으리라.]”(교리와 성약 132:19)

영원한 결혼은 올바른 신권 권세로 집행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치러야 한다. 성전은 이러한 거룩한 의식이 집행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성전에서 후기 성도 부부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스러운 제단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성약을 맺고, 현세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로서 선포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하고 이 성스러운 의식을 행할 권세를 받은 사람이 집행한다. 그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행하고 그 부부에게 승영의 축복을 약속한다. 그는 부부에게 그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가르친다. 그리고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받게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만일 우리가 성전에서 신권이 아닌 다른 권세로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은 단지 현세만을 위한 결혼이 된다. 죽음 이후에 그 부부는 서로, 또는 자녀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영원한 결혼은 내세에서도 우리 가족이 지속될 수 있게 한다.

영원한 결혼의 유익

-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받는 영원한 결혼의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교사들에게: 기혼이든 미혼이든 모든 교회 회원은 영원한 결혼의 교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혼을 하지 않은 성인들의 감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현세에서 성약에 충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가족을 가질 기회를 포함하여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가르친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순간이 아닌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결혼의 축복을 현세에서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축복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안다. 사망은 우리를 서로에게서 단지 일시적으로만 갈라놓을 수 있다. 우리 스스로 불순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없다. 이 지식은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게 한다.
2. 우리는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안다. 이 지식은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자녀를 가르치고 훈련하도록 한다. 또한 그들에게 더 큰 인내와 사랑을 보이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다.
3.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식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우리의 결혼생활에 영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하나님의 해의 왕국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서 살 수 있다.
 2. 하나님과 같이 승영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영원한 관점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결혼을 준비해야 함

- 우리는 청소년들이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결혼은 즉각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멀리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혼은 직접 관련된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특히 그들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내려가며 여러 세대 동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생과 영원을 위한 동반자를 선택할 때, 모든 결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신중하게 계획하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금식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193쪽)

영원한 결혼은 모든 후기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일반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된다. 영원한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과 기도가 필요하다. 의롭게 생활하는 교회 회원들만이 성전에 들어가도록 허락된다.(교리와 성약 97:15~17 참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결심하여 그날 성전에 들어가서 결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먼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일 년 동안 교회 회원으로서 합당하고 활동적이어야 한다. 남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해야 한다. 지부 회장 또는 감독이 우리와 접견을 하여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성전 추천서를 줄 것이다. 우리가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는 우리에게 조언을 하고 성전에 가기에 합당해지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으면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 또는 선교부 회장과 접견을 해야 한다. 성전 추천서를 위한 접견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한 신앙과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회복된 복음에 대한 확고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까?
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십니까? 그분만이 지상에서 모든 신권의 열쇠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3.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십니까?
4. 완전한 십일조를 내십니까?
5.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니까?
6. 이웃과 정직한 거래를 하십니까?
7.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고, 성찬식과 신권 모임에 참석하며, 복음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성전 추천서를 요청할 때 여러분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성스러운 특권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중대한 행위이며,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전에서 맺은 모든 성약에 순종하려고 진심으로 노력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되고 충실하면 승영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성전 결혼은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길이다.

- 우리는 젊은이들이 성전에서 결혼할 목표를 세우도록 격려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젊은이들이 성전 결혼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보충 성구

- 창세기 1:26~28(우리는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함)
- 창세기 2:21~24(최초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셨음)
- 마태복음 19:3~8(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 교리와 성약 132편(결혼 율법의 영원성)
- 교리와 성약 42:22~26(결혼 서약은 지켜져야 함)
- 야곱서 3:5~7(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실해야 함)



순결의 법

제 39 장

부모에게 전하는 유의 사항

본 장에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녀가 성 관계와 생식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부분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다. 교회 지도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식(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에 관하여 가르칠 책임이 있다고 말해 왔다. 부모는 또한 그들에게 본 장에 설명되어 있는 순결의 법을 가르쳐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아직 어릴 때부터 그들의 몸에 대하여 올바른 태도를 갖도록 가르칠 수 있다. 자녀에게 솔직하면서도 경건하게 몸의 각 부분과 기능에 관하여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불필요하게 당황하지 않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고 싶어하며, 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러한 모든 질문에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저 없이 분명하게 대답해 준다면 자녀는 궁금한 점을 계속해서 부모에게 질문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질문에 자녀를 당황하게 하거나, 거부하거나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어쩌면 잘못된 개념과 부적절한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해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며, 필요하지도 않다. 부모는 자녀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 대답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질문에 답하면서 그들의 몸과 다른 사람들의 몸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가르쳐야 하며,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그릇된 개념과 저속한 언어를 고쳐 주어야 한다.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그들과 함께 생식에 관하여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자녀들은 이러한 능력이 훌륭한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주님은 우리가 이 능력을 그분이 주신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어린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순결하고 무죄한 상태로 지상에 온다. 부모가 기도하며 인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실 것이다.

생식 능력

- 왜 부모는 자녀에게 생식과 순결에 관하여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서는 각 생물에게 그 종류대로 생육하라고 명하셨다.(창세기 1:22 참조) 생식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였으며, 그것으로 모든 종류의 생물이 지상에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었다.

그 후에 그분은 아담과 이브를 지상에 두셨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영의 자녀였기 때문에 다른 창조물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에덴 동산에서 그분은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셨고,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다.(창세기 1:28 참조)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본능보다는 도덕적인 율법에 따라 다스려져야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의 자녀가 가족들 사이에서 태어나 적절한 보살핌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셨다. 아담과 이브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의 자녀에게 육신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음을 선언한다.”(*리 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녀 간의 결혼생활 안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 계명을 순결의 법이라고 부른다.

순결의 법

- 순결의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와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누구도 결혼 이전에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며, 결혼 후에도 배우자 사이에서만 성적인 관계가 허용된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이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했다. 구주께서는 후기에 이 계명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2:24 참조)

우리는 순결의 법이 성적인 관계 이상의 것을 내포한다는 것을 배웠다. 제일회 장단은 젊은이들에게 기타 성적인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결혼한 경우에만 표현해야 할 강력한 감정들을 유발하는 어떠한 일도 결혼하기 전에는 하지 마십시오. 옷을 입은 채로나 입지 않은 채로 정열적인 입맞춤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다른 사람의 은밀하고 성스러운 부분을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체에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2001년], 27쪽)

다른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성에 행위도 중대한 죄이다. 후기의 선지자들은 동성에 행위가 가진 위험성 및 그러한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교회가 우려하는 바들을 말해 왔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먼저, 우리는 남녀 간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혼이 주님의 집에서 행사되는 영원한 신권 권능을 통하여 영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른바 게이나 레즈비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묻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력하고도 통제하기 어려운 어떤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성향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다른 모든 회원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결의 법과 교회의 도덕 표준을 어긴다면,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강화하며, 그들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부도덕한 행위에 빠지거나 소위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상황을 고수하고 지지하며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저 침묵만 지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결혼의 매우 중대하고 성스러운 기초와 결혼의 목적, 즉 가족을 양육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8년 10월, 91쪽; 또는 *Ensign*, 1998년 11월 호, 71쪽)

사탄은 우리가 순결의 법을 어기기를 바람

-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탄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하도록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수법 하나는 우리가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그는 교활하고 설득력이 있으며 우리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기를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갔다. 우리는 사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탄은 단정함에 대한 표준을 공격한다. 그는 인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드러내어 과시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부도덕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몸을 내보이지 않기를 바라신다.

사탄은 우리에게 단정치 못한 옷차림을 하도록 부추길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거나 부적절한 생각을 하도록 조장한다. 그는 부도덕한 행위를 연상시키는 사진과 영화, 이야기, 농담, 음악, 춤 등으로 유혹한다. 순결의 법은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순수할 것을 요구한다. 선지자 엘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엘마서 12:14)이라고 가르쳤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태복음 5:27~28)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유혹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러운 내용이 가득한 외설물이 엄청난 파도처럼 지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약입니다. 그것을 보거나 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자존심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에 대한 분별력을 유린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사악한 생각의, 더 나아가서는 사악한 행동의 시궁창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외설물을 멀리 하십시오. 더러운 질병을 피하듯 하십시오.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고결한 생각과 행동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악하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쉽게 돌변할 수 있는 신성한 충동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심으셨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단 둘이서만 하는 데이트를 하지 마십시오.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면, 그러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년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Conference Report, 1997년 10월, 71~72쪽; 또는 *Ensign*, 1997년 11월호, 51쪽)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우리가 외롭고 혼란스럽거나 우울해하는 때를 알고 있다. 그는 이처럼 연약한 때를 틈타서 우리가 순결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경전에는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에게서 큰 신뢰를 받았던 요셉이라는 의로운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관리할 권리를 주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욕망을 품고 자신과 간음하도록 그를 유혹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다.(창세기 39:1~18 참조)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엘마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할 것을 강조했다.(엘마서 13:28)

- 단정함과 순결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부모는 어떻게 자녀가 단정한 옷차림과 정숙한 언행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외설물이 확산되고 그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임

선지자 엘마는 순결의 법을 어긴 한 아들 때문에 슬픔을 겪었다. 엘마는 아들 코리엔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이,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엘마서 39:5)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살인 다음으로 심각한 죄이다.

남자와 여자가 순결의 법을 어기고 자녀를 임신한다면, 그들은 낙태라는 또 다른 가증한 죄를 범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낙태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교회 지도자들은 근친상간이나 강간 때문에 임신되었을 경우, 유능한 의사가 산모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중하다고 판단했을 때, 또는 태아가 심한 결함이 있어서 출생을 해도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고 유능한 의사가 진단했을 때처럼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낙태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낙태가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진지한 기도를 통해 확인을 받은 후에만 낙태를 고려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 밖에서 자녀를 임신하면, 그 두 사람이 결혼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권유해야 합니다. 연령이나 다른 사정 때문에 훌륭한 결혼생활을 영위해 나갈 가능성이 없을 경우, 그 아기가 성전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 부모에게 인봉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후기 성도 가족 서비스부(LDS Family Services)를 통해 입양시킬 것을 미혼 부모에게 권고해야 합니다.”(제일회장단 서한, 2002년 6월 26일자 및 2002년 7월 19일자)

교사들에게: 단정함과 순결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도움을 받으려면,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물품번호 36550 320)를 참조할 수 있다. 이 소책자는 배부 센터와 LDS.org에서 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집회소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순결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율법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영향을 주는 교회 회원들은 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이들은 용서받을 수 있음

순결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도 화평이 올 수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에스겔 18:21~22) 화평은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온다.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용서에는 조건이 따른다. …… 금식, 기도, 겸손이 젓값과 같거나 더 커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이 따라야 한다. …… 눈물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죄를 인정하고 악을 버리며 주님의 합당한 종에게 죄를 고백해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1969년], 315쪽)

많은 사람들의 경우, 고백은 회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는 주님뿐만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 등 우리가 상처를 입힌 사람, 그리고 신권 권세를 가진 지도자에게 고백해야 한다. 신권 지도자(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받아야 할지 판단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엘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 대하여 범법하는 자, …… 만일 그가 나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모사이야서 26:29)

그러나 김볼 회장은 이렇게 경고했다. “용서란 풍성히 약속되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주어지지 않는다. …… 우리는 죄를 범했다가 용서 받고 또다시 죄를 범하면서 계속 용서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강조해서 상기해야 한다.”(용서가 낳는 기적, 315, 320쪽) 용서를 받고 다시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책임져야 한다.(교리와 성약 82:7; 이터서 2:15 참조)

순결의 법을 지키는 이들은 큰 축복을 받음

- 우리가 순결의 법을 지킬 때 어떤 축복들을 받는가?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 주님 앞에 순결하고 흠 없는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 삶과 우리 자녀의 삶이 축복을 받는다. 자녀는 우리가 보인 모범을 보고 우리가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

보충 성구

- 마태복음 19:5~9; 창세기 2:24(결혼 관계는 성스러움)
- 디도서 2:4~12(순결에 대한 가르침)
- 고린도전서 7:2~5; 에베소서 5:28(배우자에게 충실함)
- 요한계시록 14:4~5(순결의 법에 순종할 때 오는 축복)
- 잠언 31:10(정절에 대한 찬양)
- 앨마서 39:9(눈의 욕망을 좇지 않음)
- 교리와 성약 121:45(생각을 끊임없이 덕으로 장식함)
- 앨마서 42:16(회개는 형벌 없이 오지 않음)
- 앨마서 42:30(죄에 대해 변명하지 않음)
- 교리와 성약 58:42~43(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고 버림)

성전 사업과 가족 역사

제 40 장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다면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시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침례와 확인을 받고 성전 의식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 각자는 적합한 신권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서 침례와 확인을 받았다. 우리는 또한 각자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구원의 신권 의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처 이러한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복음을 접할 수 없는 시대나 장소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자녀들이 그분께 돌아와 함께 살기를 바라신다. 침례나 성전 의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방법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조상을 위해 성전에서 의식을 행하라고 명하셨다.

주님의 성전

- 우리 삶에서 성전은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은 주님께 헌납된 특별한 건물이다. 합당한 교회 회원들은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을 수 있다. 침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의식들과 성약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들은 주님의 성전에서 집행되어야 한다.

교사들에게: 사진은 학습자들의 흥미를 북돋우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 장에 나와 있는 성전 사진을 보면서 성전 사업에 대한 느낌을 깊이 새겨 보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우리는 또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그곳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및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전세의 생활과 지상 생활의 의미, 사후 생활에 관하여 배운다.

성전 의식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봉함

• 인봉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성전 의식은 신권 권능으로 집행된다. 이 권능으로 지상에서 집행된 의식은 하늘에서도 인봉되게, 즉 묶이게 된다. 구주는 그분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마태복음 16:19; 또한 교리와 성약 132:7 참조)

오직 성전에서만 우리는 가족으로서 영원히 함께 인봉될 수 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결혼은 남녀가 그들의 성약을 지켰을 경우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결합시켜 준다. 침례와 다른 모든 의식은 이 성스러운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남녀가 성전에서 결혼하면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영원한 가족이 된다. 일반 결혼을 한 부부는 성전에 가서 서로에게 인봉되기 위해 자신들과 자녀를 준비시킴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자녀를 입양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자신들에게 인봉되게 할 수 있다.

• 부부는 인봉 권능이 자신들의 결혼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함

• 우리는 신권 의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우리 조상들에 대해 어떤 책임이 있는가?

마리오 카나멜라는 1882년에 마리아 비타와 결혼했다. 그들은 이탈리아 트리파니에서 살았으며, 그곳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함께 여러 해를 즐겁게 보냈다. 마리오와 마리아는 살아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 메시지를 듣지 못했다. 그들은 침례를 받지 못했고, 성전에 가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인봉되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사망과 함께 그들의 결혼은 끝이 났다.

그런데 한 세기가 지난 후에 이들은 놀라운 재회를 하게 되었다. 마리오와 마리아의 후손이 로스앤젤레스 성전으로 간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의 증손자가 아내와 함께 제단에 무릎을 꿇고 마리오와 마리아의 인봉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았다. 마리오와 마리아가 느낄 기쁨에 대해 나누면서 증손자와 그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한 채 돌아가셨고, 지금 영의 세계에 살고 있다.(본 교재 제41장 참조)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운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그들을 위한 성전 의식이 집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전에서 우리 조상을 위해 의식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얻을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

-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동정심, 자비를 보여 주는 것인가?
- 여러분은 조상을 위해 성전 사업을 하면서 어떤 경험들을 했는가?

가족 역사—조상을 돕기 시작하는 방법

-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기본 단계는 무엇인가?

후기 성도들은 가족 역사 활동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는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조상에 대해 알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행할 수 있다. 가족 역사에는 다음 세 가지 기본 단계가 포함된다.

1.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 알아낸다.
2. 어느 조상에게 성전 의식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3. 그들을 위한 의식이 집행되게 한다.

대부분의 와드와 지부에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주는 가족 역사 상담자가 있다. 와드 또는 지부에 가족 역사 상담자가 없다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 조상에 대해 알아냄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을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조상의 이름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자료들을 구할 수 있다.

조상에 관한 정보 수집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에게 출생, 결혼, 또는 사망에 관한 증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또한 가족 성경, 사망기사, 가족 역사, 또는 일기와 일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친척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조상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한 후에는 FamilySearch.org와 같은 다른 자료들을 검색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또한 교회의 지역 가족 역사 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나 알아낼 수 있는지는 어떤 자료를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족에 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부모와 조부모 이외의 조상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 수집한 가족 기록이 많다면, 우리는 여러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조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가족 기록서와 가계도에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어느 조상에게 성전 의식이 필요한지 알아봄

교회가 설립된 초기부터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의식은 계속 행해졌다. 따라서 우리 조상을 위한 몇몇 의식들은 이미 집행되었을 수도 있다. 어느 조상에게 성전 의식이 필요한지 알아보려면, 두 가지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 기록에 어떤 의식이 행해졌는지 나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성전에서 행해진 모든 의식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와드 또는 지부의 가족 역사 상담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의식이 집행되도록 함

영의 세계에 있는 많은 우리의 조상들은 그들의 성전 의식이 집행되기를 몹시 바랄 것이다. 우리는 조상을 알아내는 즉시 그들을 위한 의식이 행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가족 역사 사업이 가져오는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조상을 위하여 의식을 받는 데서 비롯된다. 가능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자녀가 12세 이상이라면, 그들은 조상을 위해 침례와 확인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축복들을 나눌 수 있다.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성전에서는 다른 교회 회원들이 그 의식들을 집행하도록 계획할 것이다.

- 주님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조상에 관한 정보를 찾도록 어떻게 도와 주셨는가?

이외에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방법

- 여러 가지 다른 책임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조상을 위한 성전 의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 있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영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처한 상황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1. 가능한 한 자주 성전에 참여한다. 성전에서 자신을 위한 의식을 받은 후에는 영의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을 위해 구원의 의식을 행할 수 있다.
 2.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조상을 알아내기 위해 조사한다. 가족 역사 상담자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안내해 줄 수 있다.
 3. 교회의 색인 작업 프로그램을 돕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은 교회의 가족 역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계보 자료들을 준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로 우리는 조상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4. 가족 역사 정보를 교회의 현 가족 역사 컴퓨터 프로그램에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제공한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교회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서 얻을 수 있다.
 5. 친족회에 참여한다. 친척들과 함께 일하면 조상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
-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보충 성구

- 베드로전서 4:6(복음이 죽은 자에게 전파되었음)
- 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2:2; 제3니파이 25:5~6(엘리아의 사명)
- 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128:15~18(죽은 자를 위한 사업)
- 교리와 성약 138편(죽은 자의 구속)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

제 41 장

사후의 삶

- 우리가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을 마련하셨다. 이 계획의 일부로서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면전에서 떠나 살과 피로 된 육신을 입고 지상에서 살게 하셨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죽게 될 것이며, 우리의 영은 영의 세계로 갈 것이다. 이 영의 세계는 기다리며, 일하고, 배우는 곳이며 의인들에게는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쉬는 곳이 된다. 우리의 영은 우리가 부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살 것이다. 그 후에 우리의 육신은 다시 한 번 우리의 영과 결합할 것이며, 우리는 자신이 준비해 온 것에 맞는 영광의 등급을 받게 될 것이다.(본 교재 제46장 참조)

많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다. 경전과 후기의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영의 세계에 관한 지식을 알려 주었다.

- 여러분은 사후의 삶이 있다는 지식에서 어떤 위안을 받는가?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안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후기의 선지자들은 사망한 자들의 영들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말해 왔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때때로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휘장은 매우 얇아집니다. 이 세상을 떠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Conference Report, 1971년 4월, 18쪽; 또는 *Ensign*, 1971년 6월호, 33쪽) 브리검 영 회장은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가

이 지상에,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고 가르쳤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279쪽 참조)

우리 영의 본질은 무엇인가?

영의 존재는 그 영체가 완전한 형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필멸의 육신과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이더서 3:16 참조) 영은 그들이 지상에서 의로운 것에 헌신했거나 적대감을 가졌거나 그 때 상태 그대로이며(앨마서 34:34 참조) 지상에서 살았을 때 품었던 것과 동일한 욕구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영은 성인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들은 지상에 오기 전에 성인이었으며, 유아나 어린이였을 때 사망할지라도 사후에는 성인의 형태가 된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131~132쪽 참조)

- 우리의 영이 영의 세계에서도 지금과 동일한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왜 중요한가?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는 어떤 상태인가?

몰몬경의 선지자 앨마는 영의 세계의 두 부분 또는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깊이 이르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앨마서 40:12~14)

영들은 지상에서 순결하게 생활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에 따라 분류된다.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는 서로 분리되지만, (니파이전서 15:28~30 참조)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일치하는 삶을 살면 영들도 진보할 수가 있다. 낙원에 있는 영들은 영옥에 있는 영들을 가르칠 수 있다.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낙원

선지자 엘마가 가르친 것에 따르면, 의로운 영들은 지상에서 겪었던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쉬게 된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사업에 종사할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 영의 세계에 있는 의로운 영들을 방문하신 것을 시현으로 보았다. 그분은 사자들을 임명하여 권능과 권세를 부여하시고 “복음의 빛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에게 가지고 가도록” 임무를 맡기셨다. (교리와 성약 138:30)

영의 세계에서도 교회가 조직되며, 신권 소유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이 맡은 책임을 계속 수행한다. (교리와 성약 138:30 참조) 윌포드 우드럽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회장 저편에서도 동일한 신권이 존재합니다. …… 신앙 안에서 사망한 모든 사도와 칠십인과 장로 등은 회장 저편으로 들어서자마자 성역을 시작합니다.” (Deseret News, 1882년 1월 25일, 818쪽)

영의 세계에서는 가족 관계 또한 중요하다. 브리검 영의 보좌였던 제디다이어 엠 그랜트 회장은 영의 세계를 본 후 히버 시 김볼에게 그곳에 존재하는 조직체에 대해 설명해주었다. “그분은 그곳에서 보았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원이 있는 가족도 있었습니다. …… 왜냐하면 그들은 지상에서 맡은 부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살도록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Deseret News, 1856년 12월 10일, 316~317쪽)

영옥

사도 베드로는 지상 생활 후의 영의 세계를 옥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곳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과 같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전서 3:18~20 참조) 영옥에는 아

교사들에게: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낙원과 영옥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칠판이나 큰 종이 한가운데에 수직선을 그어서 두 칸으로 나눈다. 한쪽 칸 상단에 의로운 자들의 상태라고 적고, 다른 칸 상단에는 사악한 자들의 상태라고 적는다. 반원 또는 가족들에게 이 부분에서 읽은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영의 세계의 각 상태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한다. 각 칸에 그들이 설명한 것을 요약하여 적는다.

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한 영들이 있다. 이 영들은 선택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과 악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그들이 복음과 성전에서 그들을 위해 집행된 의식들을 받아들인다면 영옥을 떠나 낙원에 거할 수 있다.

또한 영옥에는 지상에서든 영옥에서든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을 거절한 자들이 있다. 이 영들은 지옥이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 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마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 하였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18) 그들은 자신의 죄에 따르는 고통을 겪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장 낮은 영광의 등급인 별의 왕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 영의 세계의 상태는 현세의 상태와 어떻게 유사한가?

보충 성구

- 베드로전서 4:6(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었음)
- 모세서 7:37~39(영옥은 사악한 자들을 위해 준비되었음)
- 교리와 성약 76편(세 가지 영광의 왕국에 관한 계시)
- 누가복음 16:19~31(영의 세계에서 거지와 부자의 운명)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

제 42 장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임

•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야곱은 그리스도의 시대로부터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였다. 야곱이 충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다”라는 의미이다.(Bible Dictionary, “Israel”, 708쪽) 야곱에게는 아들이 열두 명이 있었다. 이 아들들과 그 가족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알려지게 되었다.(창세기 49:28 참조)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영원한 성약을 맺으셨으며,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도 그 성약을 새롭게 맺으셨다.(본 교재 제15장 참조; 또한 본 장에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림 참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한 그분의 성약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신명기 28:9~10 참조) 그들은 복음과 신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줌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이다.(아브라함서 2:9~11 참조) 그들은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이며, 그분은 그들과 맺은 성약을 지키실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

주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사악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모세는 이렇게 예언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 곳에서 나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신명기 28:64)



그러나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 결국 그들은 서로 싸워 두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이라 불리는 북왕국과 유다 왕국이라 불리는 남왕국으로 분열되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는 북왕국에서 살았다. 전쟁 중에 그들은 적들에게 정복되어 포로로 잡혀갔고, 그 중 몇몇 지파는 이후에 북쪽 땅으로 도망쳐 종적을 알 수 없게 되었다.

북왕국이 포로로 끌려간 지 약 100년 후에 남왕국도 정복되었다.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멸망되었으며, 이스라엘의 나머지 두 지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이후에 그 지파들 중 일부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했다. 한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리하와 그의 가족은 그 도시를 떠나 미대륙에 정착했다.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로마 군대는 다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고, 유대인들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버렸다.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스라엘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자신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임을 모르고 있다.

-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온 지상에 흩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집합되어야 함

- 왜 주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집합하기를 바라시는가?
-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집합할 것인가?

주님은 그분의 성약의 백성이 언젠가는 집합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 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으리니]”(예레미야 23:3)

하나님께서는 선교 사업을 통해 그분의 자녀를 모으신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의식을 받으며 관련된 성약을 지킨다면 그들은 “성약의 자손”(제3니파이 20:26)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모으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분은 복음을 배워 구주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자녀들을 모으신다. 또한 성전을 지어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은 조상을 위해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하도록 그들을 모으신다. 그들이 서로를 강화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의 불의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모으신다.

1836년,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집합을 인도하도록 그 권능과 권세를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다.(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그때 이후로 항상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집합하기 위한 열쇠를 소유했고, 집합은 교회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왔다. 성약의 백성은 이제 그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집합되고 있다.(신명기 30:1~5 참조)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영적으로 집합되며, 그런 다음에는 실제로 집합될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영적으로 집합된다. 이 영적인 집합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다. 교회로 개종한 사람들은 혈통으로, 또는 입양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의 가계에 속한다.(아브라함서 2:9~11; 갈라디아서 3:26~29)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교회에는 ……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 집합의 영을 받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여든 것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954~1956년], 3:256)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집합은 성약의 백성이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확립”되는 것이다.(니파이후서 9:2)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미대륙에 집합할 것이며,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도시와 그 주변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다. 잃어버린 열 지파는 그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33:26~34 참조)

교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성도들은 오하이오 주로, 그 다음에는 미주리 주, 그 다음에는 솔트레이크로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현대의 선지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선택은 물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결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조국을 떠나지 않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를]’[제3니파이 20:13] 수 있습니다. 교회 초창기에 개종은 종종 이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집합은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브라질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브라질입니다. 나이지리아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나이지리아입니다. 한국 성도를 위한 집합 장소는 한국입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교리와 성약 97:21)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있는 곳은 어디나 시온입니다.”(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81쪽)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집합은 구주께서 재림하시고 복천년이 될 때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조셉 스미스-마태 1:37 참조) 그 후에 주님의 약속은 다음과 같이 성취될 것이다.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 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예레미야 16:14~15)

-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주님의 성약의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영적인 집합을 했는가?
-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집합에 참여했는가?

보충 성구

- 창세기 17:1~8(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성약)
- 로마서 9:4~8; 갈라디아서 3:29(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성약의 자녀임)
- 니파이후서 30:2; 모사이야서 5:10~11(회개하고, 선지자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 자들은 주님의 성약의 백성이 됨)
- 열왕기하 17장(북왕국이 포로로 잡힘)
- 역대하 36:11~20(남왕국이 포로로 잡힘)
- 야고보서 1:1(열두 지파는 사방으로 흩어졌음)
- 니파이전서 10:12~13(니파이인의 이주는 분산의 일부였음)
- 예레미야 3:14~18(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

교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으로 개종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은 영적인 집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미리 몇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개종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 에스겔 20:33~36(이스라엘은 온 나라로부터 집합될 것임)
- 제3니파이 20:29~46(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집합될 것임)
- 니파이전서 15:13~18; 제3니파이 21:26~29(집합은 복음의 회복과 함께 시작됨)
- 교리와 성약 38:31~33(주님의 성약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임)
- 이사야 11:11~13(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회복하실 것임)
- 요한계시록 18:4~8(한 음성이 집합을 외칠 것임)
- 교리와 성약 133:6~15(이방인은 시온으로,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재림의 표적

제 43 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으로 돌아오실 것임

- 재림의 표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구주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29:11; 또한 본 교재 제44장 및 제45장 참조) 재림이 가까워지면 특정한 표적과 사건이 일어나 우리에게 경고를 해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평화와 기쁨의 날로서 재림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구주께서 오시기에 앞서 지상의 주민들은 큰 역경과 재난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러한 환란에 대비하고 구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구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줄 여러 가지 표적을 주셨다. 여러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표적들을 그분의 선지자에게 계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모두 그 표적이 무엇인지 알 것이며 그것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45:39 참조) 우리가 순종하고 충실하다면 경전을 공부하여 그 표적들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몇 가지 표적들은 이미 성취되었거나 현재 성취되고 있다. 나머지 표적들은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각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 장에서 설명되어 있는 표적을 하나 또는 두 개씩 배정한다.(반원이 많은 경우, 몇몇 표적은 한 명 이상에게 배정될 수 있다.) 공과를 가르치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 표적들에 관하여 공부하고 현재 성취되고 있는 표적들의 증거에 관하여 스스로 생각해 볼 시간을 준다. 그리고 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한다.



간악함, 전쟁, 혼란

표적들 중 많은 것들은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다. 선지자들은 지구가 큰 혼란과 간악함, 전쟁과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선지자 다니엘은 재림 전의 시대가 지상에서 결코 알려진 적이 없는 환란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니엘 12:1 참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의 사랑이 차차 식어질 것이요, 죄악이 성하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5:27) “그리고 만물이 동요할 것이요……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임이라.”(교리와 성약 88:91) 우리는 세상에 지진과 질병, 기근, 큰 폭풍우, 번개, 천둥 등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마태복음 24:7; 교리와 성약 88:90 참조) 우박이 땅의 곡식을 멸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29:16 참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에 전쟁이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마태복음 24:6~7)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위험하고 뒤숭숭한 시기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는 곧 임할 것이며, 검과 기근과 역병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는 큰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은 일점일획도 빼놓지 않고 모두 성취될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취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51쪽)

이러한 많은 표적들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세상 어디에서나 간악함이 존재하고, 여러 국가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지진과 여러 재난들이 일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파괴적인 폭풍우와 가뭄, 기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에 앞서 이러한 재난들이 더욱 심해질 것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두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 중의 많은 것들은 세상에 기쁨을 가져온다.

복음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빛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리니, 이는 나의 복음의 충만함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45:28) 고대 선지자들은 복음이 회복될 것이라 예언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을 회복할 한 천사를

보았다.(요한계시록 14:6~7 참조) 후기에 천사 모로나이와 다른 하늘의 사자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고,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몰몬경의 출현

주님은 니파이인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몰몬경이 그들의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이다.(제3니파이 21장 참조) 구약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은 몰몬경의 출현을 예언했다.(이사야 29:4~18; 에스겔 37:16~20 참조) 이러한 예언들 역시 지금 성취되고 있다. 몰몬경이 세상에 나와 방방곡곡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

마지막 날에 있을 또 다른 표적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것이다.(마태복음 24:14; 또한 조셉 스미스-마태 1:31 참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복음의 충만함을 듣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90:11 참조) 교회가 회복된 이후로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해 왔고, 현재는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많은 나라에서 여러 언어로 복음을 전파할 만큼 선교 사업이 확장되었다. 재림에 앞서, 그리고 복천년 동안에 주님께서서는 모든 나라에 진리를 전할 방법을 마련하실 것이다.

엘리아의 오심

선지자 말라기는 구주의 재림에 앞서 선지자 엘리아가 지상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엘리아는 가족이 함께 인봉될 수 있게 하는 인봉의 권능을 회복할 것이다. 또한 조상과 후손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말라기 4:5~6; 교리와 성약 2편 참조) 선지자 엘리아는 1836년 4월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고, 그때 이후로 계보와 가족 역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우리는 또한 성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인봉 의식을 할 수 있다.

리하이의 후손이 위대한 민족이 될 것임

주님은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레이맨인들이 의롭고 존중받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 레이맨인이 장미처럼 피어나리라.”(교리와 성약 49:24) 현재 엄청나게 많은 리하이의 후손들이 복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다.

새 예루살렘의 건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충실한 성도들은 의로운 성, 즉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을 세울 것이다. 그 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제3니파이 21:23~25; 모세서 7:62~64; 신앙개조 제10조 참조) 주님은 그 성이 미합중국 미주리 주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교리와 성약 84:2~3 참조)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 중 몇 가지일 뿐이다. 경전에는 더 많은 표적들이 설명되어 있다.

- 여러분은 표적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보는가?

시대의 표적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음

- 어떻게 하면 무섭고 두려운 표적이 보일 때조차도 동요되지 않고 계속 침착하고 평온할 수 있을까?

주님은 재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 시와 그 날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니.”(교리와 성약 49:7) 주님은 이것을 무화과나무의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분은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오면 곧 여름이 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마찬가지로 경전에 설명되어 있는 표적들이 보이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다.(마태복음 24:32~33 참조)

이러한 표적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주신 것들이다. 우리는 우리 삶을 정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비해 자신과 가족들을 준비시킬 수 있다.

우리는 재난에 대해 경고받았으며 대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구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뻐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심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표적]이 될 때 너희와 맺은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너희가 알 것임이 나라.”(교리와 성약 45:35) 주님은 그분께서 오실 때 의로운 이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 날을 견디리라. 그리고 땅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리니 …… 그들의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 이는 주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이며, 그가 그들의 왕과 입법자가 될 것”(교리와 성약 45:57~59)이라고 말씀하셨다.

보충 성구

- 고린도전서 15:22~28(끝이 오고, 사망이 사라짐)
- 마태복음 16:1~4(시대의 표적을 분별함)
- 마태복음 24장; 교리와 성약 29:14~23; 45:17~57; 88:87~94; 조셉 스미스-마태 1장(재림의 표적)
- 데살로니가전서 5:1~6(표적을 지켜보고 준비함)
- 교리와 성약 38:30(두려워하지 않도록 준비함)
- 교리와 성약 68:11(우리는 표적을 알 수 있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 4 4 장

구주의 재림을 고대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그분과 사도들은 감람산에 함께 모였다.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실 때가 이르렀다. 그분은 그 당시에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치셨고,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계셔야 했다.

사도들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 사도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재림을 고대해 왔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실 것이다.

1. 그분은 지상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권능과 큰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에 사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모든 썩어질 것들이 소멸되며, 지구는 불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01:24~25 참조)
2. 주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류하실 것이다.(마태복음 25:31~46; 또한 본 교재 제46장 참조) 계시자 요한은 이 심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교사들에게: 각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본 장에 있는, 번호가 매겨진 다섯 개 항목을 하나씩 배정한다. 각자에게 경전 구절을 포함하여 자신이 맡은 항목을 개별적으로 공부하게 한다. 그런 다음 모두에게 배운 것을 이야기하도록 권한다.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사악한 자들은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요한계시록 20:4~5; 또한 교리와 성약 88:95~98 참조)

3. **주님께서 복천년의 시작을 알리실 것이다.** 복천년은 예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시는 천 년을 말한다. 의로운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들어 올려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88:96 참조)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천 년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본 교재 제45장 참조)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복천년, 이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권능과 영광, 완전함 속에 세워지고 또한 그토록 오랫동안 퍼져 있던 사악함의 통치가 정복될 그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성전을 건립하고,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 되는데[요한계시록 3:12 참조] 특권을 받고, 죽은 자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친구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아마도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이곳에서 얼굴을 익힌 적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 그리고 우리는 계시를 통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이브에 이르는 우리 조상들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대를 잇는 연결 고리가 아담까지 완벽하게 이어지도록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어, 아담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종말의 순간까지 신권의 연결 고리가 완벽하게 이어질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333~334쪽)

4. **주님은 첫째 부활을 완결하실 것이다.** 의인의 부활에 돌아오는 특권을 받은 이들은 무덤에서 일어나 구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들어 올려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88:97~98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했던 의로운 사람들도 부활을 했고, 그들은 예루살렘과 미대륙에 나타났었다.(마태복음 27:52~53; 제3니파이 23:9~10 참조) 이것은 첫째 부활의 시작이었다. 그때 이후 일부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했다. 이미 부활한 이들과 구주께서 오실 때 부활할 이들은 모두 해의 왕국의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76:50~70 참조)

해의 영광을 상속받을 이들이 부활한 후에는 또 다른 무리가 부활할 것이며, 이들은 달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모두 부활하면 첫째 부활은 완료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 있던 사악한 자들은 육신이 멸해질 것이며, 그들은 이미 사망한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마지막 부활의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할 것이다. 그들은 별의 왕국을 상속받거나, 아니면 사탄과 함께 바깥 어둠으로 내쫓길 것이다.(교리와 성약 76:32~33, 81~112 참조)

5. 주님은 하늘과 지상의 왕으로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 교회는 그 왕국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분은 천 년 동안 평화롭게 지상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어떤 영광도 함께하지 않았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고, 유대인이 기대했던 구주의 모습처럼 큰 군대와 함께 오지 않으셨다. 오히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4) 그분은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러나 다시 이 세상으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배척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는 모든 귀가 그것을 들을 것이며,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이다.(교리와 성약 88:104) 그분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요한계시록 17:14)으로 환영받으실 것이다.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이사야 9:6) 불리실 것이다

- 재림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가?

우리는 구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세상의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분이 누구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태복음 24:36; 또한 교리와 성약 49:7 참조)

주님께서는 그분이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주셨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가복음 13:28~29)

주님은 또한 그분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표적을 주셨다. 그분은 표적을 알려주신 후에 다음과 같은 주의를 주셨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태복음 24:42, 44)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본 교재 제43장을 참조한다.

우리는 구주께서 오시는 때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구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가르치셨던 것처럼 매일 최선을 다해 생활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줄 선지자를 바라보며 그의 권고를 따를 수 있으며, 성신의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행복한 마음으로 구주의 오심을 고대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내가 올 때까지 왕국은 너희 것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참으로 그리하리라. 아멘.”(교리와 성약 35:27)

- 재림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보다 우리의 준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충 성구

- 요한복음 14:2~3; 마태복음 26:64(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심)
- 말라기 3:2~3; 4:1; 교리와 성약 64:23~24(지구가 불태워짐)
- 교리와 성약 133:41~51(사악한 자가 멸망됨)
- 마태복음 13:40~43(심판이 예언됨)
- 고린도전서 15:40~42; 교리와 성약 76편; 88:17~35(영광의 왕국)
- 교리와 성약 43:29~30; 29:11(구주의 오심은 복천년의 시작을 알릴 것임)
- 신앙개조 제10조(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임)
- 엘마서 11:43~44; 40:23(부활이 설명됨)
- 교리와 성약 88:96~98(죽은 자가 일어남)
- 스가랴 14:9; 요한계시록 11:15; 니파이전서 22:24~26(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심)

복천년

제 45 장

복천년 시대 지상의 주민들

- 복천년 동안에는 누가 지상에 있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지상에는 천 년 동안 평화와 사랑, 기쁨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 천 년 동안을 복천년이라고 부른다. 경전과 선지자들은 우리가 복천년 동안 지상에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일지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구주께서 재림하실 때 사악한 이들이 멸망하기 때문에 복천년이 시작되면 지상에는 의로운 사람들만 살게 된다. 그들은 고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해의 왕국이나 달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복천년 동안에 인간은 여전히 지상에서 살 것이며 지금 우리가 그렇듯이 계속해서 자녀를 가질 것이다.(교리와 성약 45:58 참조) 조셉 스미스는 불멸의 존재가 자주 지상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활한 존재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그 외 다른 일을 도울 것이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252쪽 참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선택의지가 있을 것이며, 한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와 사상을 그대로 따를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복천년 동안 예수님은 “친히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이다.(신앙개조 제10조) 조셉 스미스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통치하고 내려오셔서 가르치실” 것이라고 설명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58쪽)

복천년 시대 교회의 사업

- 복천년 동안에 이루어질 두 가지 위대한 사업은 무엇인가?

교사들에게: 복천년에 관한 주제를 다루다 보면 때때로 사람들이 경전이나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나와 있지 않은 개념에 대해 추측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공과를 진행하면서 그러한 추측을 피하도록 주의한다.



복천년 동안 교회 회원이 해야 할 두 가지 위대한 사업은 성전 사업과 선교 사업이다. 성전 사업은 승영에 필요한 의식들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에는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전 의식인 엔다우먼트, 성전 결혼, 가족 인봉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 의식들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이러한 의식들을 행해야 한다. 이 사업은 현재 주님의 성전에서 집행되고 있다. 복천년이 시작되기 전까지 다 마치기 어려울 만큼 그 일의 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복천년 동안에 달성될 것이다. 부활한 존재들은 돌아가신 조상에 관하여 조사하면서 우리가 실수했던 부분을 바로잡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들은 또한 기록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찾도록 도와줄 것이다. (조셉 필딩 스미스, *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954~1956년], 2:167, 251~252 참조)

복천년 동안에 해야 할 또 다른 위대한 사업은 선교 사업이 될 것이다. 큰 권능으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질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예레미야 31:34)

- 우리는 복천년에 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복천년 동안의 상태

- 복천년 동안 인간이 살아갈 삶은 현재 우리 삶과 어떻게 다를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복천년 동안에 “땅이 새로워지고 낙원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다.(신앙개조 제10조)

사탄이 결박됨

복천년 동안에 사탄은 결박될 것이다. 이 말은 그가 그 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할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교리와 성약 101:28 참조) “자녀는 죄 없이 자라나 구원에 이르리라.”(교리와 성약 45:58) “[주님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니, 그러즉 그가 여러 해 동안 풀려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함이

니, 이는 그들이 의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다스리심이나이다.”
(니파이전서 22:26)

지상의 평화

복천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할 것이다. 전쟁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은 다른 유용한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이사야 2:4; 또한 이사야 11:6~7; 교리와 성약 101:26 참조)

의로운 통치

존 테일러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온 인류는 문자 그대로 그분의 지배를 받을 것이며,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나라는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분 홀 앞에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의로움으로 그분을 섬기는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할 것이며, 천사의 성역을 받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고 성약 안에서 온전히 가르침을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상을 다스리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며 세상 모든 나라에 순종하라고 명하는 것이 그분께서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년], 225쪽)

사망이 없음

복천년 동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사망은 없을 것이다. 즉, 사람들이 노령에 이르렀을 때 죽어서 묻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대신에 그들은 “눈 깜빡하는 사이에” 필멸의 상태에서 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63:51; 101:29~31 참조)

모든 일이 계시됨

어떤 진리는 아직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다. 복천년 동안에는 모든 것이 계시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일을 드러내리니—지나간 일들이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였던 감추어진 일들이나, 땅의 일들, 무엇으로 땅을 만들었는지와 그

의도와 목적을—지극히 귀한 일, 위에 있는 일과 아래에 있는 일, 땅 속과 땅 위와 하늘에 있는 일들을 드러내리라.”(교리와 성약 101:32~34)라고 말씀하셨다.

기타 복천년의 활동

모든 것이 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복천년 때에도 우리 삶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옷을 입을 것이며(*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97년], 333쪽 참조) 계속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수확하며 집을 지을 것이다.(이사야 65:21 참조)

- 여러분은 복천년 동안의 상태에 관하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

복천년 후에 있을 최후의 전쟁

- 지구는 최후에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천 년이 지나면 사탄은 잠시 풀려날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다. 사탄은 자신의 군대를 모을 것이며, 미가엘(아담)은 천군을 모을 것이다. 이 대전투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해의 왕국으로 변화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29:22~29; 88:17~20, 110~115 참조)

보충 성구

- 스가랴 14:4~9; 니파이전서 22:24~25(예수님께서 지상을 통치하심)
- 다니엘 7:27(성도들은 왕국을 받음)
- 교리와 성약 88:87~110(복천년 동안의 상태)
- 요한계시록 20:1~3; 니파이전서 22:26(사탄이 결박됨)
- 교리와 성약 101:22~31(적개심이 그침, 사망이 없음, 사탄이 유혹할 힘을 잃음)
- 이사야 11:1~9(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함)
- 교리와 성약 43:31; 요한계시록 20:7~10(사탄이 잠시 풀려남)



최후의 심판

제 46 장

하나님의 심판

-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있을 다른 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모든 심판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는가?

우리는 종종 경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이를 것이라는 말씀을 읽는다. 이 중대한 일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전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요한계시록 20:12; 또한 교리와 성약 76:111; 니파이 전서 15:32; 아브라함서 3:25~28) 우리는 또한 “[우리]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 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37:9; 또한 엘마서 41:3 참조)

지상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왕국 내에서의 기회들을 받기 위해 우리의 합당성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의식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심판 받는다.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을 때나 신권 승진 또는 성전 추천서를 위해 접견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엘마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은 행복한 상태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고 가르쳤다.(엘마서 40:11~15) 이것도 하나의 심판이다.

교사들에게: 각 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가르칠 필요는 없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과를 준비하며, 각 장에서 어느 부분을 다루어야 하는지 알기 위해 영의 인도를 구한다.

우리의 말과 행위와 생각은 우리를 심판하는 데 사용됨

-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심판받는다를 것을 상상해 보라.

선지자 엘마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임이니 ……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 것이라.”(엘마서 12:14)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태복음 12:36~37)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분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가 되고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으며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다. 죄를 회개하고 순결하지 않은 모든 생각과 행동을 버릴 때, 성신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게 된다.(모사이아서 5:2 참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갖춰야 할,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우리는 기록에 의거하여 심판받을 것임

- 우리는 어떤 기록으로 심판받게 되는가? 누가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죽은 사람들이 지상에서 작성된 기록으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하늘에서 작성된 “생명책”으로 심판받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28:6~8 참조)

“여러분은 모두 ……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며 ……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라 …… 심판을 받[아야]’(니파이후서 9:15) 합니다. 요한의 시현에 따르면 ‘책들이 퍼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요한계시록

20:12)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들’이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이요, 땅 위에서 작성되는 기록’이며, …… ‘생명책이라 한 책은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교리와 성약 128:7)을 말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 [2000년], 226~227쪽)

우리가 심판받을 때 사용될 기록이 또 하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바로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이라고 가르쳤다.(로마서 2:15 참조) 우리 몸과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완전한 역사이다. 존 테일러 회장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한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며,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 그 사람이 마음속에 새긴 기록, 거짓말할 수 없는 그 기록은 그날에 하나님과 천사들과 심판관으로 참석할 이들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Deseret News*, 1865년 3월 8일, 179쪽)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가르쳤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요한복음 5:22) 아들은 또한 심판을 도울 다른 사람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분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함께 있었던 십이사도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며(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참조), 니파이인 열두 제자들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심판할 것이다.(니파이전서 12:9~10; 몰몬서 3:18~19 참조)

영광의 왕국에서 거처를 상속받음

- 지상 생활에서 보인 우리의 충실함은 영원에서의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의 거처를 상속받게 된다. 경전은 영광의 세 왕국인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별의 왕국에 대해 가르친다.(교리와 성약 88:20~32 참조)

주님은 교리와 성약 76편에서 우리가 지상 생활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내린 선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왕국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우리는 이 계시에서 교회 회원들도 서로 다른 왕국

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일에서 똑같이 충실하고 용감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과 왕국의 종류이다.

해의 왕국

“해의 왕국에 속할 이들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의 이름을 믿고 …… 침례를 받은 자들이니 ……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씻음을 받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어 ……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으로 세상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의롭고 참되어 성신이 축복을 인봉해 줄 수 있는 이들이다.(교리와 성약 76:51~53 참조) 해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상속받아 신이 되는 이들은 또한 반드시 성전에서 영원한 결혼을 한 사람들이다.(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해의 왕국을 상속받는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교리와 성약 76:62 참조)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 복음의 충만함과 구원의 의식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그들은 해의 영광의 가장 높은 등급의 거처를 상속받을 수 있다.

달의 왕국

달의 왕국에 속할 이들은 지상에서 복음을 거절했으나 이후에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상에서 존경을 받았지만 인간의 계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눈이 멀거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고도 그것에 용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방문은 받지 못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73~79 참조)

별의 왕국

별의 왕국에 속할 사람들은 지상 또는 영의 세계에서 복음이나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이다. 그들은 복천년이 끝나 부활할 때까지 지옥에서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마

술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음행하는 자요 누구든지 거짓을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들이니라.”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무수히 많은 이 사람들은 성신의 방문을 받겠지만 아버지나 아들의 방문은 받지 못할 것이다.(교리와 성약 76:81~88, 103~106, 109 참조)

바깥 어둠

바깥 어둠에 속할 사람들은 성신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주님의 권능을 알았지만 사탄에게 굴복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권능에 반항했으며, 성령을 받은 후에 그것을 부인했으므로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들은 영광의 왕국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으며 비참하게 살아갈 것이다.(교리와 성약 76:28~35, 44~48 참조)

- 교리와 성약 76:50~53, 62~70에 따르면, 신앙으로 세상을 극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심판을 준비해야 함

-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매일매일이 심판의 날이다. 우리는 해의 왕국, 달의 왕국, 또는 별의 왕국의 율법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매일 하는 행동에서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상속받을 왕국을 결정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며 회복된 복음을 갖고 있다. 복음은 해의 왕국의 율법이다. 우리의 진보에 필요한 모든 신권 의식이 계시되었다. 우리는 침례의 물가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겠다는 성약을 맺었고, 우리가 충실하여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킨다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태복음 25:34)

보충 성구

- 로마서 2:6~9; 요한계시록 20:12~13(심판)
- 앨마서 11:41, 45; 몰몬서 7:6; 9:13~14(우리는 부활한 상태에서 심판받음)
- 니파이후서 29:11; 제3니파이 27:23~26(심판에 사용되는 책들)
- 앨마서 41:2~7(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행위, 마음의 소원, 회개,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결정됨)
- 몰몬서 3:22(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 회개하고 준비함)
- 누가복음 12:47~48; 교리와 성약 82:3(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됨)
- 교리와 성약 88:16~33(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합당한 것을 받음)

승영

제 47 장

우리의 진보를 위한 계획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그분은 우리가 진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그분처럼 승영에 이른 존재가 될 수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지상으로 와야 했다. 이러한 분리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거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 계획에는 지상 생활이 끝날 때 심판을 받고 우리의 신앙과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 하늘에 세 영광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배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고린도후서 12:2) 사람을 안다고 말했다. 바울은 하늘에 있는 두 왕국의 이름을 말했는데, 바로 해의 왕국과 달의 왕국이 있었다.(고린도전서 15:40~42 참조) 해의 왕국은 가장 높은 것이며, 달의 왕국이 그 다음이다. 후기에 알려진 계시에서 우리는 세 번째 왕국이 별의 왕국이며(교리와 성약 76:81 참조) 해의 왕국 안에는 세 하늘, 또는 등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교리와 성약 131:1 참조)

승영

• 승영이란 무엇인가?

승영이란 영생, 즉 하나님께서 영위하시는 삶이다. 그분은 위대한 영광 중에 살고 계신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영의 자녀의 아버지이시며, 창조주이시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승영이다.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다면 하늘에 있는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승영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승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사이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승영의 축복

• 승영하는 이들이 받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신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신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모세서 1:39)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른 사람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만물은 그들의 것이라.”(교리와 성약 76:59) 승영에 이른 사람들이 받은 축복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교리와 성약 76:62 참조)
2. 신이 된다.(교리와 성약 132:20~23 참조)
3. 그들의 의로운 가족들과 영원히 결합되며 영원히 증식할 수 있다.
4. 충만한 기쁨을 얻는다.
5.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즉, 모든 권능과 영광과 주권과 지식을 갖게 된다.(교리와 성약 132:19~20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기록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분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지혜와 권능이 자라며, 은혜에 은혜가 더해져 어느 날 갑자기 완전해 이를 것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브루스 알 맥콩키 편, 제3권 [1954~1956년], 2:36)

승영의 요건

승영의 요건을 갖추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앨마서 34:32~34 참조)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승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복음과 모든 성약을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임무를 이행하고, 빛과 진리

를 이해하고 행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Doctrines of Salvation*, 2:43)

승영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신앙으로 견뎌야 한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특정한 의식을 받으라고 명하신다.

1. 우리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으로 확인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안수례를 받아야 한다.
3. 형제들은 떨기세텍 신권을 받고 신권 안에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4. 우리는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한다.
5. 우리는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영원한 결혼을 해야 한다.

필요한 의식들을 받는 것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명하신다.

1.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
 2. 계명을 지킨다.
 3. 우리의 잘못을 회개한다.
 4. 사망한 친족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위한 복음의 구원 의식을 받는다.
 5. 가능한 한 정기적으로 교회 모임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의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한다.
 6. 가족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강화시킨다.
 7. 매일 가족 기도 및 개인 기도를 한다.
 8. 말과 모범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친다.
 9. 경전을 공부한다.
 10. 주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영감 받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각자 성신을 받고 삶에서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 의식과 성약은 우리가 승영하도록 어떻게 준비시켜 주는가?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왜 우리는 승영하기 위해 성신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하는가?

우리가 충실하고 끝까지 견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가 되어 끝까지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4:7)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을 경배하며 진리에 따라 생활한다면, 진리의 충만함을 입을 날이 올 것이며, 이 진리는 점점 밝아져 완전에 이를 것입니다.”(*Doctrines of Salvation*, 2:36)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사다리에 오를 때에는 아래부터 시작하여 한 계단씩 올라가야만 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하여 승영의 원리를 모두 다 배울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모두 배우게 되는 것은 휘장을 통과 [사망]하고 나서도 한참 후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무덤을 넘어서서도 우리가 구원과 승영에 대해 배울 것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268쪽)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아는 것도 복음의 첫째 원리에 속합니다. …… 하나님도 한때는 ……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한때 이 지상에 사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그러하셨습니다.”(*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976년], 328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겪는 시련과 약점, 죄를 알고 계신다.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 자신 처럼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지 상상해 보라.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충실했으며 당신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오게 되어 기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잘하였도다 ……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태복음 25:23)

- 마태복음 25장 23절을 다시 살펴본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해 본다.

보충 성구

- 교리와 성약 132:3~4, 16~26, 37(승영에 관하여)
- 교리와 성약 131:1~4(영원한 결혼은 승영의 열쇠임)
- 교리와 성약 76:59~70(해의 영광의 축복이 설명됨)
- 교리와 성약 84:20~21(경건의 능력은 신권 의식을 통해 나타남)

교사들에게: 여러분이 반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복음 진리를 깊이 생각하거나 삶에 비추어보거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사랑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성신의 가르침을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다.

시각 자료

표지: 생수, 사이먼 듀이, © Simon Dewey. 배경 © Artbeats

4쪽: 사진 촬영 © NASA and STScI

8쪽: 사진 촬영 © NASA 및 STScI

14쪽: *엠마오의 그리스도의 세부*, 칼 하인리히 블록, 덴마크, 힐레르외드의 프레데릭스보르에 있는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함

18쪽: 사진 촬영 Dimitri Vervitsiotis/Digital Vision/Getty Images

22쪽: 사진 촬영 © Corbis

26쪽: 에텐 동산을 떠남, 조셉 브릭키. © 1998 Joseph Brickey

40쪽: *조셉 스미스*, © 화가 미상, Community of Christ 기록 보관소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브리검 영*, 단과르트 안손 웨글랜드,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존 테일러*, 화가 미상, 교회 역사 도서관 및 기록 보관소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윌포드 우드럽*, 에이치 이 피터슨. *로렌조 스노우*, 루이스 램시,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조셉 에프 스미스*, 에이 샬즈브레너, © IRI. *히버 제이 그랜트*, 시 제이 팩스, © IRI. *조지 앨버트 스미스*, 리 그린 리차즈, © IRI. *데이비드 오 맥케이*, 에버레트 클라크 톨프, © Everett Clark Thorpe. *조셉 필딩 스미스*, 쇼나 쿡 클린저, © 1983 IRI. *해롤드 비 리*, 그랜트 롬니 클로슨, © IRI.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사진 촬영* © Busath Photography. *토마스 에스 몬슨의 사진 촬영* © Busath Photography

50쪽: *아이로의 딸을 되살리는 그리스도*, 그레그 케이 올슨.
© 1990 IRI

60쪽: *내 뜻대로 마음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해리 앤더슨. © Seventh-day Adventist Church. 복사 금지

82쪽: *마르레 평원의 아브라함의 세부*, 해리 앤더슨. © IRI

- 88쪽:** 십이사도를 성임하는 그리스도의 세부, 해리 앤더슨. © IRI
- 94쪽:** 내 마음의 소망의 세부, 월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 102쪽:** 예수 그리스도의 세부, 해리 앤더슨. © IRI
- 134쪽:** 최후의 만찬, 사이먼 듀이. © Simon Dewey
- 150쪽:**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리,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Inc.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 162쪽:** 사도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텔 파슨. © 1983 IRI
- 168쪽:** 사진 촬영 © Getty Images
- 174쪽:** 선한 사마리아인, 조셉 브릭키. © 2001 Joseph Brickey
- 180쪽:** 사진 촬영 George Doyle/Stockbyte/Getty Images
- 190쪽:**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백성에게 가르치라, 해리 앤더슨.
© IRI
- 200쪽:** 희생 제물을 바치는 아담과 이브, 키스 라슨.
© 1996 Keith Larson
- 218쪽:**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스. © 2004 Robert Casey
- 224쪽:** 사진 촬영, 로버트 케이스. © 2004 Robert Casey
- 246쪽:** 요셉을 축복하는 야곱, 해리 앤더슨. © IRI
- 252쪽:** 재림, 해리 앤더슨. © IRI
- 258쪽:** 재림의 세부, 해리 앤더슨. © IRI
- 264쪽:** 노하지 않고의 세부, 낸시 글래지어 코흘러.
© 1984 Nancy Glazier-Koehler
- 268쪽:** 최후의 심판의 세부, 존 스코트. © 1974 IRI
- 276쪽:** 벽화의 세부, 댄 백스터
-

색인

ㄱ

가르침

-의 은사, 128

본 교재의 -, 1~3

가족 역사, 233~23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0, 207,

210, 211, 213, 214, 215, 217, 226

가족

- 관계, 209~210

-에 관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말씀, 207

-에 관한 해롤드 비 리의 말씀,
210

-을 부양함, 157

-의 중요성, 207, 209

-의 책임, 213~217

성공적인 -, 210~211

영원한 -, 207~211

간증에 관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말씀, 128~129

감독의 직분과 의무, 76

값진 진주, 48

강한 음료, 167, 169

개성, 전세의 생활에서 발전되었음,
9~10

거짓말, 181

건강, 주님의 -의 율법. 지혜의 말씀
참조

게으름, 158~159

결혼

-에 관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 222

영원한 -, 219~223

경전, 45~49

-을 공부함, 48~49

네 권의 -, 45~48

계명을 지키, 회개의 일부분임,
111~112

계시, 참된 교회의 특징, 87, 89

고기, 170

고백, 회개의 일부분임, 110~111

곡물, 170

교리와 성약, 47

교사의 직분과 의무, 75

교회 회장, 39

-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의 말씀,
41~42

-에게 순종하는 것의 축복, 43

-은 교회를 인도함, 98

-은 오늘날 살아있는 선지자임,
41~42

-을 지지함, 42

또한 선지자 참조

교회의 회복

-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루어짐,
96~99

-이 예언됨, 92~93, 95~96

구원의 계획, 10~12, 23

구주. 예수 그리스도 참조

권세

-가 회복됨, 97

참된 교회의 특징, 89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조

금식, 145~148

-의 축복들, 147~148

올바른 -, 145~146

금식일, 146~147

금식 헌금, 147, 187

기도, 35~38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는가, 37~38

어떻게 기도하는가, 37

언제 기도하는가, 36~37

왜 우리는 기도하는가, 35~36

기록, 우리는 -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임, 270~271

기쁨, 충만한 -, 11

기적을 행하는 은사, 129~130

끝까지 견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받는 축복, 279~280

L

낙원

-에 관한 윌포드 우드럽의 말씀, 243

-에 관한 제테디아 엠 그랜트의 말씀, 243

영의 세계에서의 -, 243

ㄷ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 회개의 일부분임, 111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믿는 은사, 129

달의 영광, 272

담배, 169

대제사의 직분과 의무, 77

도적질, 181

뜨거운 음료, 169

ㄹ

루시퍼, 사탄 참조

ㅁ

마약의 오용, 169

말, 우리는 -에 의해 심판받을 것임, 269~270

멜기세덱 신권

- 정원회, 78~79

-의 직분과 의무, 76~77

또한 아론 신권; 신권 참조

몰몬경, 46~47

밀, 170

ㅂ

바깥 어둠, 273

방언의 은사, 125, 27

방언의 통변,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 127

배도, 대-, 91~92

별의 왕국, 272

병고침의 은사, 129

보상, 회개의 일부임, 111

복음 진리가 회복됨, 98~99

복천년, 263~267

-에 관한 브리검 영의 말씀, 259

-에 관한 존 테일러의 말씀, 266

봉사, 161~166, 187

-에 관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 163

부모의 책임, 157, 213~216

불순종의 결과, 204~205

入

- 사도의 직분과 의무, 77, 98
또한 십이사도 참조
- 사탄
-은 복천년 동안에 묶임, 265~266
복천년이 끝난 후에 잠시 풀려남, 267
선에 반대함, 19~20
선택할 자유를 없애려 했음, 13, 15
영의 은사를 모방함, 131
우리가 순결의 법을 어기기를 바람, 228~230
우리를 유혹함, 16
이브를 유혹했음, 28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대항하여 싸웠음, 15
하늘에서 쫓겨남, 15~16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 85
생각, 우리는 -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임, 269~270
생식의 능력, 226
선교 사업, 189~195
-에 관한 에즈라 태프트 벤슨의 말씀, 192
선지자, 39~43
-는 예임되었음, 9~10
-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임, 39
-의 말씀은 경전임, 48
하나님은 여러 시대를 통해 -를 부르셨음, 41
선택의지
구원의 계획에서 필요함, 17, 19
사탄이 -를 없애려 했음, 17
선택을 요함, 19~20
영원한 원리, 17
전세의 삶에 대한 기억이 없이 행함, 11
선택할 자유. 선택의지 참조
성경, 45~46
성신, 31~33
-에 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말씀, 33
-의 사명, 32~33
-의 속성, 32
-의 은사를 받기 위해 침례가 필요함, 116
-이 아담과 이브에게 왔음, 31~32
또한 성신의 은사 참조
성신의 은사, 121~124
-를 받음, 122~123
-의 정의, 121~122
성신의 영향력을 인식함, 123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의 하나, 123
성약
-은 성찬을 통해 새롭게 됨, 136
-의 정의, 81, 83
새롭고도 영원한 -, 85
아브라함의 -, 83~84
침례 -, 117~118
성약의 백성, 81~86
성전
-에서 행해지는 일, 233~239
복천년 동안 -에서 행해지는 일, 259, 265
영원한 결혼은 -에서 행해짐, 220~221
성찬, 133~137
- 집행, 135~136
-을 취하는 태도, 137
-을 통해 성약을 새롭게 함, 136

그리스도께서 -을 제정하셨음,
133, 135
속이기, 181~182
속죄, 59~66
-를 설명하는 보이드 케이 패커의
이야기, 63~65
-에 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말씀, 109
-의 결과로 죄에서 구원받음,
62~65
구원을 위해 필요함, 59
그리스도는 -를 이루기 위해
고통과 사망을 겪으심, 55~57,
61
그리스도는 -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 61
부활은 -의 결과임, 62
또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
순결, 225~232
순종, 201~206
-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 203
침례는 -을 보여줌, 116
술, 167, 169
스미스, 조셉
교회는 -를 통해 회복됨, 96~99
진리가 -를 통해 회복됨, 98~99
스테이크, 98
승영, 275~280
-에 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말씀, 277
-하기 위해서는 영원한 결혼이
필수적임, 219~220
-하기에 합당해짐, 16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시련, 진보에 필요함, 11
시험, 지상 생활은 시험임, 10~11

신권, 67~71
- 정의, 67
-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씀, 74~75
-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오는
축복, 71
-의 열쇠, 74~75
-의 조직, 73~80
-의 종류, 73~74
-의 필요성, 67, 69
어떻게 -을 올바르게 사용하는가,
70
어떻게 인간은 -을 받는가, 69~70
또한 아론 신권; 멜기세덱 신권
참조

심판

-에 대비하여 준비함, 273
-에 사용될 기록들, 270~271
말과 행위와 생각은 -에 사용될
것임, 269~270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 271
최후의 -, 269~274
십이사도에 의한 심판, 271
또한 사도 참조
십일조, 185~188
-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의 말씀,
188
-에 관한 스티븐 엘 리차즈의
말씀, 186
-에 관한 히버 제이 그랜트의
말씀, 188

○

아담과 이브

-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
28~29
-의 결혼, 27

- 의 타락, 28~29
 성신이 -에게 왔음, 31~32
 용감한 영들, 27
 자녀를 가지라는 계명을 받았음, 28
 첫 번째로 지상에 옴, 27
- 아론 신권
 -의 직분과 의무, 75~76
 - 정원회, 78
 또한 멜기세덱 신권; 신권 참조
- 아버지, -의 책임, 214~215
- 아브라함, -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 83
- 악마. 사탄 참조
- 안식일, 139~143
 -을 거룩하게 지키, 141~142
 -을 준수하는 것의 축복, 142
 -의 목적, 139~140
 -의 역사, 140~141
 -의 정의, 139
 일요일, 140
- 야곱
 -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245
 하나님께서 -과 맺으신 성약, 245
- 약초, 170
- 어머니
 -에 관한 보이드 케이 패커의 말씀, 215
 -의 책임, 215~216
- 에덴 동산, 28
- 엘리아, -의 방문, 254
- 열매, 170
- 영광의 왕국, 271~272
- 영들, 육신의 형상을 지님, 242
- 영옥, 244
- 영의 세계, 241~244
 -에 관한 브리검 영의 가르침, 241~242
- 에 관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말씀, 241
- 영의 은사. 영적 은사 참조
- 영적 은사, 125~132
 -를 발전시킴, 130~131
 -의 사용에 주의함, 131~132
 -의 종류, 125~130
 사탄은 -를 모방함, 131
 참된 교회의 특징, 91
- 예수 그리스도
 -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심, 163
 -에 의한 구속, 55~57
 -의 가르침, 54~55
 -의 고통에 관한 올슨 에프 휘트니의 시현, 56
 -의 사랑, 54~55
 -의 생애, 51~58
 -의 완전한 삶, 53~54
 -의 탄생과 사명이 예언됨, 51~52
 -의 희생, 57, 149, 151
 교회를 조직하심, 55
 구주이자 지상 생활에서의 지도자, 15
 봉사의 모범, 165~166
 성찬을 제정하심, 133, 135
 아버지께 순종하심, 204
 아버지의 독생자, 52~53
 우리가 속죄를 통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심, 57
 자애의 모범, 176~177
 전세에서 예임되었음, 9
 창조주, 23~24
 또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참조

-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은사, 128~129
-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101~106
- 과 함께 행위의 필요성에 관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 105
 - 에 따르는 축복들, 105~106
 - 은 영적 은사임, 101, 130
 - 의 정의, 101, 103
- 어떻게 우리는 -을 키울 수 있는가, 103~105
- 왜 우리는 -이 필요한가, 103
- Lectures on Faith*에서 -의 영향에 관한 말씀, 105~106
-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 가 조셉 스미스를 통해 조직되었음, 97~98
 - 로부터의 배도, 91~92
 - 에 있는 계시, 87, 89
 - 에 있는 권세, 89, 97
 - 의 조직, 89~90, 97~98
 - 의 특징, 87~91
 - 의 회복이 예언됨, 92~93, 95~96
-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 91
- 오늘날의 -, 95~100
- 초기의 -, 87~93
- 침례에 의해 -의 회원이 됨, 115
- 회복된 -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임, 99~100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257~262
- 의 표적, 251~256, 261
- 예언의 은사, 129
- 예일, 9~10
- 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 10
- 오락, 159
- 와드, 98
- 용서
- 를 통한 기쁨, 112
 - 에 관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 231
 - 순결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한 -, 231
- 유혹을 극복함에 관한 고든 비 싱클리의 말씀, 229
- 의식
- 이 회복됨, 98~99
 - 참된 교회의 특징, 90~91
- 이브, 아담과 이브 참조
- 이스라엘 백성, 245
- 이스라엘
- 민족의 분산, 245, 247
 - 민족의 집합, 245~250
 - 의 집합에 관한 러셀 엠 넬슨의 말씀, 249
 - 의 집합에 관한 조셉 필딩 스미스의 말씀, 248
 - 야곱의 이름이 -로 바뀜, 245
- 인간
- 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스림, 5
 - 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됨, 6
 - 의 신성한 태생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씀, 9
 - 하나님의 자녀, 9
- 인봉의 권능, 엘리야에 의해 회복됨, 254
- 일, 155~160, 170
- 에 관한 데이비드 오 맥케이의 말씀, 160
 - 에 관한 히버 제이 그랜트의 말씀, 157
- 일요일, 안식일, 140~141

즈

자녀

- 의 책임, 216
- 아담과 이브는 -를 가지라는 계명을 받았음, 28

자애, 173~178

- 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 177~178
- 에 관한 토마스 에스 몬슨의 말씀, 176

장로의 직분과 의무, 76~77

재능

- 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마빈 제이 애쉬튼의 말씀, 198
- 을 발전시키는 것에 관한 히버 제이 그랜트의 말씀, 199
- 을 발전시킴, 197~199
- 의 책임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씀, 199
- 전세의 생활에서 발전시켰음, 9~10

정직, 179~183

- 에 관한 브리검 영의 말씀, 179
- 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씀, 182
- 에 관한 마크 이 피터슨의 말씀, 179

제사의 직분과 의무, 76

제일회장단, 97~98

조상을 도움, 235~238

죄

- 의 정의, 107
- 모든 사람은 -를 범함, 107

죄 사함을 위한 침례, 115

죄를 버림, 회개의 일부분임, 110

죄를 슬퍼함, 회개의 일부분임, 110

죄의 인식, 회개의 일부분임, 110

주는 것, 186

- 에 관한 스티븐 엘 리차즈의 말씀, 186

주님의 날, 140~141

- 또한 안식일 참조

죽은 자를 위한 의식, 참된 교회의 특징, 90~91

지식의 은사, 128

지혜의 말씀, 167~172

- 에 관한 히버 제이 그랜트의 말씀, 171

지혜의 은사, 127~128

진보, 지상 생활은 -를 위해 필요함, 10~11

집사의 직분과 의무, 75

즈

차, 169

창조

- 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 24~25
- 를 수행함, 23~24
-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 23~24

채소, 170

천국 전쟁, 15~16

천국 회의, 11

첫째 되는 원리와 의식, 90

- 회복을 통해 -의 충만함을 다시 얻게 됨, 98~99

축복사의 직분과 의무, 77

축복사의 축복, 10, 77, 130

- 에 관한 토마스 에스 몬슨의 말씀, 10

출생의 때와 장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심, 10

칠십인의 직분과 의무, 77

침례, 115~119
- 성약, 117~118
-를 통해 새로 시작함, 119
-을 위해 필요함, 115~116
-의 형식, 116~117
침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 117

ㅋ

커피, 169

ㅌ

타락, 28~30
-의 결과, 29~30
통변의 은사, 127

ㅍ

포도주, 167, 169

ㅎ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조
하나님 아버지
-를 앎, 6~7
-와 같이 될 우리의 잠재력, 9
-와 우리의 관계에 관한 조셉 에프
스미스의 말씀, 9
-의 몸, 6
-의 소망, 그분이 지니신 자질들을
우리가 발전시키기를 바라심,
10~12
-의 속성, 6
-의 일과 영광, 6
-의 존재, 5~6
만물의 창조주, 5
만물의 통치자, 5
사람들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됨, 6

우리의 아버지이심, 9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말씀, 5~6
하나님의 심판, 269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조
해의 왕국
-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침례가
필요함, 116
-에서의 승영, 272, 275~280
행위, 우리는 -에 의해 심판받을
것임, 269~270
헌물, 185~188
-에 관한 고든 비 힝클리의 말씀,
188
-에 관한 스티븐 엘 리차즈의
말씀, 186
-에 관한 히버 제이 그랜트의
말씀, 188
확인. 성신의 은사 참조
회개
-에 관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의
말씀, 109, 111~112, 231
-의 원리, 109~112
-의 정의, 109
-의 축복, 112
-의 필요성, 107
지금은 -할 때임, 113
휘장이 하늘 집에 대한 기억을 가림,
11
휴식, 159, 170
희생, 149~154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15061 95320 0

06195 320